

인경 스님(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회장)
온 우주가
'내 생각'에서 창조된다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5월 2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52호 2015년 7월 9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쇠에서 생긴 녹이 쇠에서 나서
그 쇠를 먹어 들어가듯
방종한 자는 스스로 지옥불로 들어간다

日 약탈 문화재

남·북 환수 왜 다른가

평양 율리사지 탑 北 반환 가시화… 같은곳 이천 오층 석탑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반출된 평양 율리사지 석탑의 환수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일수교 50년을 맞은 일본 내 한국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은 7월 2일 "지난 2월 일본 도쿄 간이재판소에 반환을 요청한 평양 율리사지 석탑에 대한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7월 22일 오쿠라 문화재단과 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양 율리사지 석탑은 고려시대 석탑으로 일제강점기 오쿠라(大倉) 호텔 창립자인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가 조선총독부를 통해 일본으로 반출한 문화재다. 현재 도쿄의 오쿠라 호텔 정원에 전시돼 있다.

이번 평양 율리사지 석탑 반환 조정은 지난 2월 25일 혜문 스님이 北 조선불교도연맹(서기장 차금철)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돼 이뤄졌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일본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북한의 문화재는 일본 정부가 2002년 북일수교 평양선언을 통해 강탈한 문화재 반환을 약속한 만큼 관계자들은 반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번 평양 율리사지 석타 반환이 관심을 모르는 이유는 같은 호텔에 한국측이 환수 추진중인 이천오층석탑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수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일 협정으로 약탈 문화재 반환문제는 해결되었다는 논리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과 달리 1965년 한일 협정을 하며 4479점의 반출문화재 중 1432점을 '인도'라는 용어 하에 반환받았다. 하지만 일본의 민간인 소유 반출문화재는 일본 정부가 기증을 권고할 수 있다는 합의 의사록만 별도로 작성하는데 그쳤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소장은 "당시 협상으로 일본에게 추가로 문화재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라며 "정부의 역할이 국한되는 것이 그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이 한국에 반환한 조선왕조의궤 등 문화재들도 명목을 보면 '반환'이 아니라 '기증'의 형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에 있는 문화재의 경우 실태파악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 약탈된 것인지, 어떻게 유통됐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지만 환수 논란으로 일본 기관들이 공개조차 꺼리고 있다.

정작 환수가 진행돼도 민간 차원에서는 벽에 부딪히기 일수다. 실제로 이천오층석탑은 2006년 환수위가 구성돼 수년간 반환협상이 진행됐지만 오쿠라 문화재단이 1억 5000만엔(약 14억원) 상당의 문화재와 교환하자는 요구를 해 협상이 결렬됐다.



도쿄 오쿠라 호텔의 율리사지 석탑

'북일수교'에 관심갖고 한국정부 적극 나서야

여기에 일본 정부조차 미지근한 반응이다. 오구라(小倉) 컬렉션 반환도 추친 중인 혜문 스님은 지난 2월 오구라 컬렉션을 소장한 도쿄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소장품 소장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도쿄 지방재판소는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타결된 문제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결내렸다. 이에 스님은 국제박물관협의회에 국제청원을 넣은 상태다. 유네스코는 1970년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고, 국제박물관협의회도 '모든 문화재는 합법적·도덕적·윤리적으로 소장하고 수집하고 구입해야 하며 강령에 어긋나거나 다른 방법으로 문화재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적인 성격에 불과하다.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해외로 유출돼 공식확인된 한국 문화재는 20개국 15만 6000여점에 이르고 그 중 일본에만 6만 6000점이 있다. 특히 일본 유출 문화재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이 강탈해갔거나 도굴, 도난당한 것들이지만 한일수교 50년임에도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오구라 컬렉션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문화재는 민족의 자존심으로 지금부터라도 길게 보고 유통 경로, 소장처 등의 자료를 모으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환수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베트남에 남긴 각현 스님의 원력 국제연꽃마을(회장 원명)이 6월 26일 베트남 광남성 탐키시 지역에 한국형 사회복지타운 '베트남 연꽃마을'의 한글학당과 도서관, 숙소를 준공했다. 이 지역은 베트남 전쟁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으로 故각현 스님의 원력이 서린 곳이다. 은사 월탄 스님(사진 왼쪽)과 원명 스님을 비롯해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법타 스님 등이 베트남 연꽃마을 내에 각현 스님의 흉상을 제막하고 있다. 〈관련 기사 7면〉 노덕현 기자

아프리카 학교 짓기, 동전 모아 '3억'

아름다운동행, DreamAfrica 저금통 모금사업 결과

불교계 공익기부법인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립을 위해 시작한 동전 모으기에 3억원이 넘는 금액이 모여 화제다.

아름다운 동행 측은 6월 30일 "Dream Africa 저금통 모금사업 종료결과 3억 471만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Dream Africa 저금통 모금사업'은 2014년 8월에 저금통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4가지 디자인의 저금통을 총 10만개 제작해 2014년 10월부터 전국 750여 사찰과 동국대 산하 종립학교와 불교 유관단체 등에 배포되며 진행됐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246개 사찰과 18개교 교육기관을 비롯해 22곳의 불교대학, 신행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총 2만 5천여 개의 저금통이 수거돼 약 25%의 회수율을 보였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은 "동전으로 3억 원을 모으기에는 적지 않은 양인데 불자들의 힘을 보여준 것 같다"며 "내년 완공 될 때까지 계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201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를 건립 중에 있다. (02)737-9595

노덕현 기자

불교방송 사장 후보에 선상신·하동근 추천

진흥원 후보자 발표… 7월 22일 불교방송이사회서 선임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방송 사장 최종 추천후보에 선상신 대구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前 불교방송 보도국장)와 하동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회장(前 iMBC 사장)을 선정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6월 29일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 응모자 총 9명 중 1, 2차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4명의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후보자 2명(선상신·하동근)을 선정 재단법인 불교방송에 공식 추천했다.

선상신 후보자는 1960년 생으로 법명은 해원(海圓)이다.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정책대학원 석사, 동국대 대학원 북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불교방송(BBS) 공채 1기로 입사해 기자를 거쳐 보도국장을 역임했으며 학교법인 회당학원 감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이사,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이사(경영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구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중국 산동대학원 한국학원 겸직교수, 안양대 교양대학 산학협력 교수 등으로 재직 중이다. 1993년 방송기자클럽(BJC) 보도제작상, 1995년 한국기자협회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선상신



하동근

하동근 후보자는 1955년생으로 법명은 선행(善行)이다. 1981년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를 거쳐 동국대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다. 1981년 문화방송(MBC) 보도국 기자, 부장, 정책특보 등을 지내고 iMBC 사장(2003년~2009년)을 역임했다. 이후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CJ 인터넷·온미디어·CJ E&M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재능교육그룹 신규사업부문 대표이사, 재능e아카데미 사장 등을 지냈다.

현재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회장,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문화방송(MBC) 작품상, 특종상 등을 수상했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올해의 동문상 및 서울대 경영대학 GLA 제정 글로벌 콘텐츠 리더상을 받았다. 한편 불교방송은 7월 22일 이사회를 열고 사장선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천년고찰 신륵사서, 천년의 아이디어를

세계 3대 광고제 뉴욕페스티벌, 신륵사서 개막

세계 3대 광고제 뉴욕페스티벌이 7월 1~5일 여주 신륵사를 중심으로 여주일대에서 펼쳐졌다. 7월 1일 범패시연과 함께 문을 연 뉴욕페스티벌은 광고계의 세계적인 거장 데이비드 안젤로(David Angelo), 토니 리우(Tony Liu) 등이 참석해 신륵사 순례와 함께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첫날인 1일 개막식에서 '뉴욕국제광고페스티벌 in 여주 2015' 테이프 컷팅을 마친 원경희 여주시장과 정병국 국회의원, 그리고 뉴욕페스티벌 주관사 마이클오르크 회장 등 일행은 신륵사에서 신륵사의 창건 역사와 유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불교 의식음악인 '범패' 시연을 관람했다. 이어 범종각에서 여주시민의 무사 안녕과 뉴욕페스티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타종 등 불교문화를 체험한 후 템플스테이관에서 발우공양을 진행했다.

여주 신륵사 주지 청곡 스님은 "이번 행사가 끝날 때까지 무사히 잘 마쳐지질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범패가 진행되는 동안 광고계의 세계적인 거장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찬불가를 감상했다.

마이클 오르크 뉴욕페스티벌 회장은 "진정한 광고란 서로 소통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사회 정의를 알리고 지구를 살리는 많은 광고들에는 서로 다른 믿음의 연결고리가 있다. 이런 광고를 위해 불교사상 또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포럼, 세미나, 강연 등 광고와 관련된 다양한 학술 행사가 열렸으며, 여주도자세상 물의 회랑 등에서는 수상작 및 출품작 전시·상영회와 함께 홍대 인디밴드 10개 팀이 참여하는 신나는 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뉴욕페스티벌은 프랑스의 칸느, 미국의 클리오 광고제와 함께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 개최는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두 번째이다.

노덕현 기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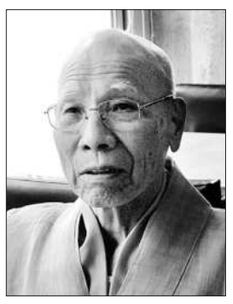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나는 결백… 필요하면 재심 청구할 것”

원두 스님, 기자회견서… “의현 스님 판결 잘된 일”



징계 사유가 명확치 않았고
제소 요지 누락… 종법 위반

1994년 조계종 개혁 당시 멸빈된 원두 스님(사진)이 자신의 결백을 다시 주장했다. 최근 재심호계원의 의현 스님 판결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원두 스님은 6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994년 초심호계위원회의 징계는 법적 절차에 맞지 않고 징계사유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1994년 당시 초심호계원이 자신을 승니법 4, 6, 10호를 적용해 징계했고, ‘화합 저해’를 사유로 적시했다”면서 “그러나 ‘화합 저해’는 치탈 사유는 고사하고 가벼운 징계의 법적 근거가 없다. 10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인 ‘부당한 언사’ 역시 가벼운 징계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원두 스님은 “호법부 등원 통보를 받았지만 두 차례나 불법 납치를 당한 상황이어서 출석하지 못했다. 안전한 장소에서 답변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총무원법 18조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출두요구서에는 제소 요지가 누락됐고, 제소 이유를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답변이 오지 않아 변론권이 박탈된 채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기자들과의 일문 일답에는 의현 스님 판결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원두 스님은 “재심호계원이 의현 스님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공권정지 3년’으로 판결한 것은 개인적으로나 종단적으로나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재심 청구의 의향에 대해서는 “(의현 스님의)판결을 보며 나 역시 재심과 특별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서 “다만 지도층의 의향 변화와 종단의 정서가 무르익어야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심호계원 판결 후 의현 스님과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법규위원회 심판청구 이후 연락하지 않는다”고 간략하게 답했다.

원두 스님은 그동안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초심호계원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실제 스님은 2012년 호계원에 특별재심을, 의현 스님은 2013년 법규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스님의 특별재심 요청은 각하됐으며, 의현 스님의 심판청구는 자진 철회로 종료됐다. 신성민 기자

해인사가 다시 시끄럽다

차기 주지 H 스님 내정설… 반대 움직임 격화
방장 스님 측 “모두 확인되지 않는 루머일 뿐”
여연 스님 “몽니 아닌 정상화 위한 문제 제기”
원학 스님 “추천 확인되면 반대 입장 밝힐 것”

해인총림 해인사가 다시 시끄럽다. 방장 원각 스님이 차기 주지로 H스님을 추천한다는 루머가 돌았고, 여연 · 원학 스님을 중심으로 H스님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연 스님은 6월 26일 방장 사서실장 능혜 스님에게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이 담긴 ‘촉구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해인사 사중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금품 살포 등으로 문제가 된 특정 스님이 주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연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간에는 주지 추천을 두고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해인사 정상화를 위해 7년을 노력했다. 이번 문제 제기 역시 해인사 정상화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세간의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촉구 서한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 여연 스님은 “주지 자리를 놓고 쟁탈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위 사실이 있는 스님을 주지로 추천하는 것을 다시 재고해줄 것을 방장 스님에게 간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인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철 스님 이외에도 위로는 용성 스님과 일타 · 자운 스님 등 수행, 포교, 율학 등 사상적인 부분부터 재정 분야의 재가자 참여, 수익사업을 통한 승가와 재가 종무원에 대한 복지 등이 종횡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을 섭수하고 이끌어나갈 인물이 주지가 돼야 한다. 그럴 수 있다면 누가 와도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원학 스님도 H 스님이 주지 후보로 추천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원학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연 스님의 서한에 의하면 H 스님이 방장 선거 캠프에 금품을 제공하고 사제들에게도 선거운동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한다”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원학 스님은 “우리가 7년 동안 해인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것은 여러 문중이 모여 해인사를 원융 체재로 구성하자는 데 이유가 있다. 원각 스님을 방장으로 모신 이유도 문중 화합의 추진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작 모시고 나니 부정적 인물을 추천하고 연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어른(방장 스님)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하면서 “특정 스님의 주지 추천이 확인되면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겠다. 또한 현 방장추대위원회 측 한 명으로서 본인도 참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장 원각 스님 측은 모두가 확인되지 않는 루머라고 일축했다. 방장 예경실장 능혜 스님은 “세간에서 H 스님을 주지 후보로 추천했다고 하는 데 이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다. 여연 스님이 보냈다는 서한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금품 수수에 대한 부분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방장 추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임대 · 운영비로 십시일반한 것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다 돌려보냈다. 영수증도 있다.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창원 軍불자의 안식처 안국사 폐사 중단하라”

군법당 창원 안국사, 일방적 철거

육군 제39사단 군법당 창원 안국사가 부대 이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거 · 폐사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를 두고 창원 지역 불교계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안국사 존치위원회(총괄부장 성공, 이하 존치위)는 6월 26일 “함안으로 부대를 이전 과정에서 종단과 일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법당 철거를 추진했다”며 “창원시도 기부채납 당시의 조건을 이행하라는 통도사와 조계종의 요구를 무시하고 법당 철거와 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치위에 따르면 안국사는 안심정사가 화재로 전소되자 불교계가 건립해 국방부에 기부채납한 사찰이다. 건립 당시 부대 이전 등으로 인해 법당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종단으로 불하한다는 조건을 군 당국에서 제시한 바 있다.

1990년 법당건립비용으로 5억 2천7백여만 원이 투여됐고, 이는 불자들의 시주와 화주에 의해 이뤄졌다. 이후에도 조계종은 2005년 약 3천만 원을 직접 지원해 교육관을 신축했으며, 이를 기부채납했다.

조계종 안국사존치위원회(총괄본부장 성공)는 6월 2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와 태명건설이 종단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안국사와 안국사존치위원회는 안국사 존치를 염원하는 법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뜻을 관철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 하성미 기자

100인 대중공사로 간 ‘의현 스님 재심 논란’

추진위 30일 회의서 의제 변경 결의… 오는 7월 29일 대중공사

조계종의 ‘뜨거운 감자’가 된 재심호계원의 의현 스님 감형 판결이 100인 대중공사에 다뤄진다.

조계종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도법)는 6월 30일 6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29일 열리는 제5차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의제를 ‘의현스님 재심 논란’으로 변경했다.

그간 추진위는 메르스 여파로 대중공사가 연기됨에 따라 5차와 6차 의제를 병합해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8일 재심호계원이 의현 스님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공권정지 3년’ 감형 판결한 데 대해 종단 안팎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종헌 질서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고, 대중공사 참여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의제를 변경해 종단의 현안을 다루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고 미래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대중공사 참가자들이 판단한 것 같다”면서 “일부 정해진 의제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중공사에서 재심호계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구속력은 없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따라서 추진위 내부에서는 의현 스님의 공권정지 판결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번 사태를 통해 과거사를 재조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메르스와의 전쟁, 이겨내 달라”

종교지도자들 6월 29일 국립의료원 격려 방문

자승 스님, 김희중 주교 등 참석 의료진에 격려금 1천만 원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앞 줄 왼쪽서 두 번째)을 비롯한 종지협 대표단이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부터 메르스 대처 현황을 브리핑 받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은 일선의 의료진이다.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불교, 가톨릭 등 한국 주요 종교지도자들이 나섰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 자승, 이하 종지협)는 6월 29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가톨릭 주교회의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유교의 정한효 성균관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발열 체크 등 검사를 진행한 후 의료원장실로 이동해 현황을 전해 듣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격려금 1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의료원 방문으로 번거로움을 끼치지 않을까 고민했다”면서도 “의료진들이 메르스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에 감사를 드린다. 어려움은 있지만 노력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하루 빨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종교계도 메르스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진들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꼭 이겨내길 바란다. 의료진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중 주교는 “의료진들이 고생이 많으시다. 정성을 다해서 하시니 곧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전화위복의 좋은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귀한 걸음해주셔서 감사하다. 종교계 어른들이 방문해 의료진이 더욱 힘이 난다”면서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난국을 극복하기 어렵다. 종교인들이 앞장서주신다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대처 없을 시 실명 공개”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종규)는 6월 30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종단 기능 정상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지난 6월 13일 조계종 재심호계원서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 감형 판결을 내린 것 관련 “복권 문제를 논하기 전 의현 스님이 보유한 불교 문화재를 환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는 “2005년 의현 스님이 문화재 은닉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압수품을 수거했으나 ‘사찰에서 쫓겨나면서 옮긴 것, 전래 승려의 방식으로 보관한 것’이라는 의현 스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과 함께 압수품 대부분을 의현 스님이 환수해갔다”며 “조계종단은 의현 스님 복권을 거론하기 전 최소한 자신들의 문화재라도 환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불기 2558(2015)년 주지의무 연수교육 공고

귀의삼보 하옵고, 종단발전과 불교중흥을 위해 정진하시는 스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종단 창종주 서경보 존자 생존시에는 매년 주지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오던 중 종단의 두 번에 걸친 내홍으로 중단되었으나 종도들의 애종심으로 종단이 안정됨에 따라 다시 주지연수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스님의 자질을 향상하고 종도간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적극 동참 하시어 종단의 발전과 종도간의 화합에 협조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9(2015)년 7월 27일(월) ~ 28일(화) (1박 2일)**
■ 장 소 : 한국문화연수원(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065 불교문화원)
■ 참석대상 : 주지스님, 주지법사
■ 요청사항 :
❶ 참가신청 : **7월 15일 수요일까지 마감**
❷ 대회경비 : 100,000원
❸ 입금계좌 : 농협 (355-0001-1643-13) 예금주 :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❹ 신청방법 : 각지역 교구 또는 총무원으로 통보
❺ 준 비 물 : 가사, 장삼,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 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일붕선원 1층 총무원
전화 02)991-8175,8904 / 팩스 02)991-8176

※ 주지의무연수교육 불참 시 향후 비구계, 법계고시, 종단직책등 불이익이 발생할수있습니다.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원**

“참인재 키우는 상아탑 역할 다하겠다”

6월 29일 보광 스님 2차 인사… 동국대 경영조직서 대학조직으로 재편

동국대(총장 보광 스님)가 6월 29일 보광 스님 취임 이후 2차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기획, 교무, 대외부총장 등을 비롯한 대학 조직 전반에 걸쳐 편제가 바뀌었다.

특히 대외부총장직이 신설되고 공석으로 있던 불교학술원장직이 새로 임명되는 등 대외, 연구 분야의 업무가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의 이번 2차 인사는 그동안 기업형 구조였던 ‘본부’ 체제를 대학형 구조인 ‘처’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먼저 부총장 직책이 기획과 교무, 대외의 세 분야로 나눠졌다. 특히 대외부총장이 새롭게 신설돼 산하에 대외협력처(前 대외협력본부)와 연구처, 홍보처(前 전략홍보실) 등의 대외 업무를 총괄한다. 이 자리에는 지난 5월 6일 문화예술대학원장에 임명됐던 오원배 교수가 임명됐다. 문화 예술계 원로로 사찰 불사 등으로 불교계와도 인연이 깊은 오 교수의 대외적인 역량이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

1차 인사에서 경영부총장에 임명됐던 신재호 교수는 기획부총장으로, 학술부총장에 임명된 양영진 교수는 교무부총장으로 임명됐다.

이와 함께 전략홍보실도 전면 개편됐다. 대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처로 격상됐으며 홍보처장에는 고재석 교수가 임명됐다. 홍보실장에는 원충희 행정대학원 · 경찰사법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교학팀장이 임명돼 실무를 맡는다.

그동안 보광 스님이 직접 맡아 정상화를 이끈 불교학술원의 수장 자리에는 정승석 전 불교대학장이 임명됐다. 정승석 불교학술원장은 새로이 학술대학원장 겸임직에서 분리된 일반대학원장 직도 겸직하게 됐다.

본부에서 처로 바뀌고 직제 신설
대외부총장직 두고 대외 업무 강화
홍보실도 홍보처로 위상 높여
불교학술원장에 정승석 교수

정재형 교수는 문화예술대학원장 겸 예술대학원장이 됐으며, 비서실로 이름을 바꾼 옛 경영관리실의 책임자는 허남결 교수가 맡았다. 학생처장 겸 신설된 인권센터장, 기숙사관장은 김상겸 교수가 임명됐다.

한편, 동국대 이사회는 6월 30일 분당 동국대병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동국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현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에 관한 연구진실성위원회 징계요청건을 기각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보광 스님에 대한 징계요청은 그동안 절차상 문제 등이 지적돼왔다.

동국대 측 교무부총장 명의로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징계요청에 대한 절차적 문제와 징계 시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 사회에서 정관에 명시된 징계사유 발생 후 시효 3년을 적용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연구진실성위원회로 징계건을 회송했다.

이와 함께 신임이사에는 호성 스님과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을 선출했다. 호성 스님은 재선출이며 지홍 스님은 前 이사장이었던 정련 스님의 후임이다. 임기는 교육부의 승인일로부터 4년이다. 지난 회에 해임된 이사 영담 스님의 후임은 이사회에서 개방이사 선임과 연관해 정관 개정 후 진행될 예정이다. 영담 스님의 후임으로는 조계종에서 돈관 · 덕조 스님을 추천한 상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자승 스님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종교화합에 관심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양성 존중에 사회 안정, 종교화합 관심을”

자승스님,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당부… 종단협 차원 예방 받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은 7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단협 회장단과 함께 황교안 신임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종단협 회장단이 함께 배석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은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됐던 국무총리의 종교편향성에 대해 언급하며 “종교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우리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 종교 갈등이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다”며 “종교화합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우리 사회는 종교간 갈등이 많지 않고 잘 화합해왔다. 앞으로도 (종교화합에) 유념하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하겠다. 종교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예방에서 종단협 회장단은 황교안 총리에게 메르스 사태와 가뭄 극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며 불교계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문화재 보존 노력과 함께 문화재 관련 규제완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이주노동자도 한국 노동계 한 부분”

조계종노동위, 대법원판결 환영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이 합법화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도 노동3권 및 노조설립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 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노조가 서울지방 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관련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조계종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노동위)가 6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판결에 대한 환영을 표했다.

노동위는 “이번 판결로 국민과 정부, 고용주는 이주노동자도 한국 노동자의 한 부분이 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들을 단속하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라 권리 보장을 위한 포용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노동위는 “2005년 4월 24일 이주노동자 99명이 이주노조를 설립했으나 같은 해 6월 3일 서울지방 노동청이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지 10년이 지났다. 그간 이주노조 주요임원들은 표적 단속돼 강제추방과 입국거부를 당하는 등 온갖 수난을 겪었다”며 “이제라도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즉각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아름 기자

“추상같은 만해 스님의 사자후가 그립다”

선학원, 만해 71주기 다례재
유족 · 정관계 3백여 명 참여
청소년 문예공모전 시상도 진행



만해 스님 71주기 추모재에서는 한승석 중앙대 교수와 국악단 ‘바라지’가 국악공연을 선보였다.

만해 스님을 추모하고 사상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가 마련됐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6월 29일 서울 A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 71주기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로 선학원이 진행한 ‘만해 추모의 달’ 일련의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날 추모제에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선학원 고문 인환 스님, 만해 스님의 딸 한영숙 여사, 전국 선학원 분원장 스님, 동국대 석림동문회장 영담 스님 등 불교계 인사와 국회부의장 정갑윤 의원,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등 사부대중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추모법어를 통해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많은 시와 논문들을 통해서 자비사상을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간과 출세간은 무용한 싸움을 멈추고 있지 않다”면서 “추상 같은 만해 스님의 불호령이 그립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스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 후학들을 이르는 곳마다 고향마을이 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 삼천대천세계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동국대 석림동문회장 영담 스님은 추모사에서 “만해 스님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은 똥이나 송장이 아니라 바로 31본산의 주지들이라며 일제에 빌붙어 사는 그들의 행위를 질타했다”며 “내년 72주기 추모식은 한국불교가 세계일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화와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만해 스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국회 부의장 정갑윤 의원은 “만해 스님의 위대한 사상과 숭고한 민족혼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참된 나라사랑의 길이 무엇인지, 정의와 진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가신 영원한 겨레의 스승 만해 선생의 높은 뜻을 받들어 나가겠다”고 추모사에 갈음했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한용운 스님의 71주기 추모는 선학원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며 “오늘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혜명을 굳건히 지키는 이 시대 불교의 법등이 되어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부 추모공연은 제1회 청소년 문예공모전 시상식으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시부문 최우수상 한유경 학생이 수상작 ‘꽃 밟는 길’을, 산문 부문 윤소연 학생이 ‘만해 한용운, 그의 삶’을 낭독했다. 시 부문 우수상 이민정, 민유빈 학생과 산문 부문 우수상 박지현, 진시형 학생도 각각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한승석 중앙대 교수와 국악단 ‘바라지’는 국악 공연을 선보였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웃 고통 외면한 불교, 감동이 없다”

조성택 교수, 27일 화쟁아카데미 5차 종교 포럼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상향은 ‘모든 생명의 안녕과 행복’이었으나, 부처의 꿈은 현실 속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동아시아로 불교가 전래된 이래 관념적 세계관으로 고착됐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화쟁문화아카데미 대표 · 사진)는 6월 27일 종로구 사간동에서 열린 화쟁문화아카데미 제5차 종교포럼에서 현대의 불교가 이웃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불교’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현재 한국불교의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화두를 들고 선방에 앉아있거나 교리를 공부하고 경전을 통해 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곧 ‘불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엄밀하게 말해 ‘안다’는 것과 ‘실천’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만 가르침을 인식하는 것은 수행을 하는 것도 불교를 믿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한국불교에는 감동이 없다”며 “우리는 고양시키는 것은 연기법에 대한 논리적 이해가 아니라 초기불교 이래 잊혀졌던 ‘종교적 감성’의 복권으로, 가장 불교적인 감성은 ‘고통에 대한 예민함’”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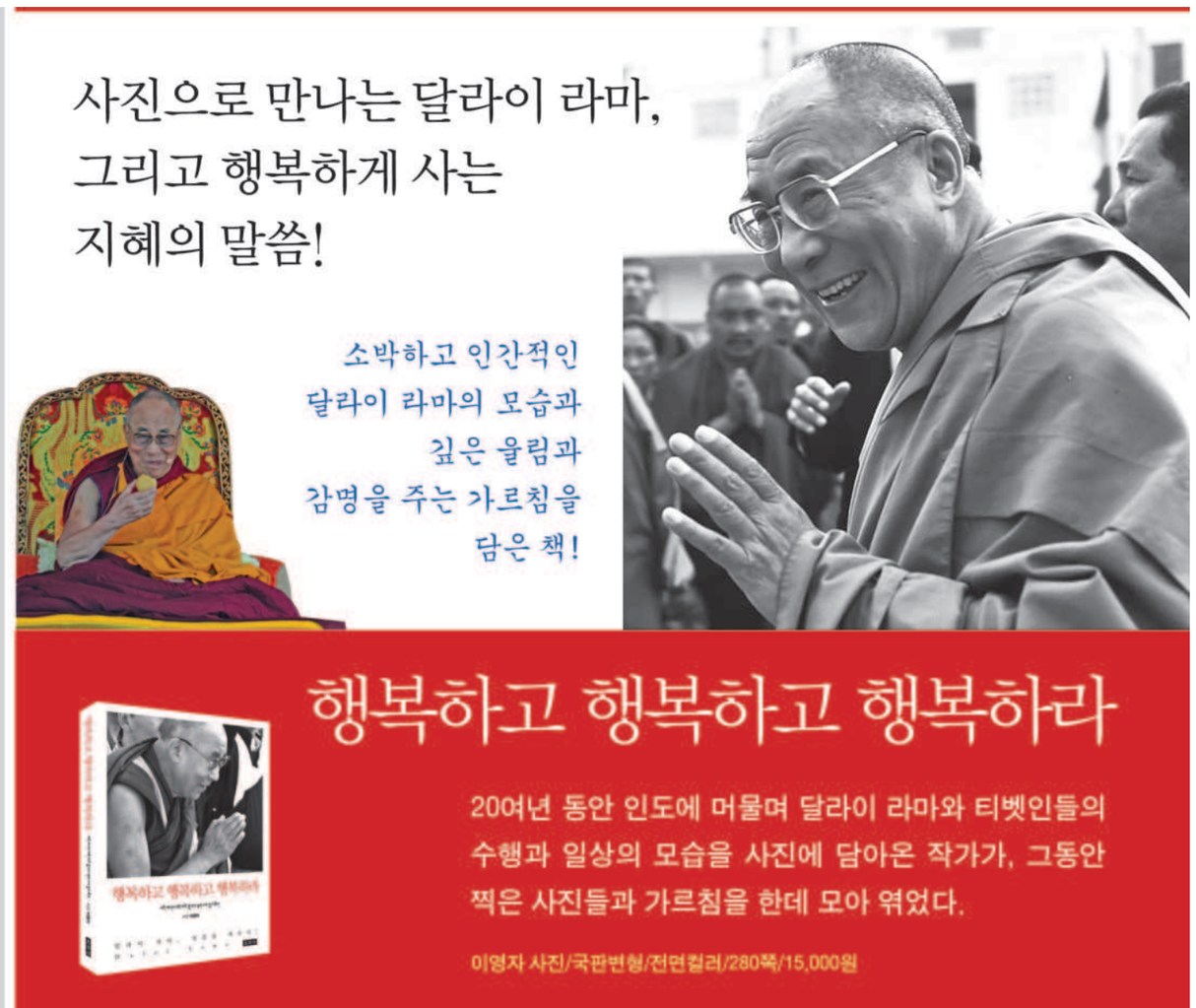
또한 조 교수는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기 위한 불교의 자세로 시민보살과 불교만의 방식으로 사회참여 등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보살정신은 수행과 구원이라는 종교적 차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주체적 시민의식의 차원으로 외연을 넓혀가야 하며,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는 종교’란 ‘동체대비(同體大悲)’라는 불교의 용어로 구체화된다”고 강조했다.

불교만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굳이 한쪽 편을 들을 필요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자신의 옳음만이 유일한 옳음은 아니며, 다양한 옳음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단순히 피해자 뿐만 아니라도 가해자 또한 나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며 “이것이 불교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일 주 문



레이 에번스 추모 출판 기념식

월주 나눔의집 이사장 스님은 7월 2일 경기 퇴촌에 위치한 나눔의 집에서 故레인 에번스 미국 하원의원을 기리는 추모 출판 기념식을 진행했다.



일현 스님 열반 24주기 추모재

원경 마곡사 주지 스님은 7월 31일 어산의 대가 취담당 일현 스님의 열반 24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한다.



호선당 신축건립 기념법회

지운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센터 회주 스님은 7월 19일 자비선사 자항선원서 템플스테이 숙소 '호선당(護善堂)' 개원 법회를 봉행한다.



노동자 초청공연

혜용 조계종 노동위원회 위원장 스님은 7월 3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서 노동자 초청공연을 열었다.

영남지역 조계종 교구장협의회장 수불 스님



'영남지역 조계종 교구장협의회' 초대 회장에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선출됐다. 수불 스님은 "앞으로 지역 문제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영남지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불교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월 2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회의에는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쌍계사 주지 효명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등이 참석했다. 제2차 모임은 8월에 경주에서 열린다. **하성미 기자**

〈인사〉 문광부 신임 불교종무관에 이상효 씨



문화체육관광부 불교 담당 종무관에 前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명예회복지원 이상효 과장〈사진〉이 새롭게 임명됐다. 이상효 신임 종무관은 앞으로 종무1담당관 임기 2년 동안 "불교계와 정부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

이 종무관은 궁극적으로 불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종무관은 "정부와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와 종교 간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화해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및 타 종교와 적극적인 교류를 유도해 불교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효 종무관은 10 · 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명예회복지원과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무국장, 로터스월드 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불교 장애인 복지 앞장서는 계기로"

제9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에 선출된 조석영 관장

"서울시내 45개 장애인복지관과 일선 사찰들의 연계를 통해 불교계가 장애인 복지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조석영 강북장애인복지관장(법명 덕산 · 사진)이 서울지역 장애인복지를 대표하는 제9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회장이 관장으로 있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8년 조계종이 최초로 수탁운영을 시작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조 회장은 18년간 개관 이후 근무하며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 왔다.

조 회장은 "예전에는 불교에 장애는 악업의 산물이라는 시선이 있어, 장애인 복지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모두가 공동체 일원이라는 인식을 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사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종교계와 복지관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특히 불교계의 경우 장애인 복지에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 회장은 강북장애인복지관에서 매달 장애인들과 화계사에서 정기법회를 하고 있다. 조 회장은 초창기의 열악한 상황을 회고 했다.

"그 때에는 법당에 장애우들이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인식도 그렇거니와, 전통사찰



불교계 최초 장애인복지관서 18년간 근무, 불교장애인 대부 사찰과 연계한 프로그램 모색

이라는 구조자체가 몸에 장애가 있으면 거동이 힘들기 때문이었죠. 지금은 많은 사찰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배려해줘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화계사 뿐만 아니라 매 분기마다 장애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하지만 "일선사찰에는 장애인들이 법회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곳이 많지 않다. 어르신 복지는 많은데 비해 장애인 복지는 약하다. 장애인들의 경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많기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회장은 불교계가 장애인 관련 시설을 비롯해 일반인들과 차별없이 법회 등을 볼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현재 조계종의 장애인전법단과 함께 서울시의 장애인들을 위해 명상을 비롯해 다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보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려서부터 안동 봉정사에 다니고 현재 화계사 신도이기도 한 그는 "부처님께서 지금 이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어려운 이웃과 장애우들을 끌어앉는데 앞장서실 것"이라며 "불자들이 불심으로 장애인복지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들을 끌어앉는 모습이 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장애인복지관의 연계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이끌고 장애인 복지도 확산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최전방 GOP에도 이제 '독서 까페'

군종교구, 6월 30일 기증식 열어

최근 GOP 내 장병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국가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계종 군종교구가 GOP 부대에 독서까페를 열거 화제다. 조계종 군종교구는 6월 30일 육군 을지부대(사단장 조종설 소장) GOP에서 컨테이너형 독서카페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기증된 컨테이너형 독서카페는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최전방 GOP 소초 장병들이 커피나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독서카페는 1000여 권의 책을 꽂을 수 있는 5단 책꽂이와 탁자 · 의자, 벽걸이형 냉난방기 등을 갖추고 있다. 18㎡ 넓이의 독서카페는 10여명의 장병이 사용할 수 있다.

군종교구장 정우스님은 "GOP 소초에도 이런 아늑한 공간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독서카페를 많이 이용하여 따뜻한 병영생활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26일 신임군승임관식도 열려… 14명 임관

군종교구는 6월 26일 충북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학교장 소장



윤완선)에서 15년 신임군승 14명의 임관식과 고불식을 진행했다.

올해 임관한 군승법사는 ▲신행 김형민 군승(육군 20사 62여단) ▲현삼 손준우 군승(육군 1군단 701특공연대) ▲영관 정태영 군승(육군 21사 65연대) ▲준상 김민규 군승(육군 26사 73여단) ▲석원 정태윤 군승(육군 3사 18연대) ▲종민 이종민 군승(육군 12사 52연대) ▲홍연 윤승완 군승(의무사령부) ▲법현 김민균 군승(육군 11사 9여단) ▲균재 강혜림 군승(육군 28사 82연대) ▲고원 최광혁 군승(해군 해병6여단) ▲통연 윤여평 군승(해군 연평부대) ▲범진 황수진 군승(공군 38전대) ▲지웅 전시웅 군승(공군 2여단) ▲현종 박원종 군승(공군 1여단) 등이다. **노덕현 기자**

신규탁 연세대 교수, 〈고존숙어록〉 공개 강독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사진〉가 〈고존숙어록(古尊宿語錄)〉 강독을 7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9시 연세대 문과대학 외솔관 627호에서 실시한다.

〈고존숙어록(古尊宿語錄)〉은 1267년 중각(重刻)된 선종 문헌으로 선사들의 선풍을 파악하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원서 강독은 무료로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007년 〈벽암록〉, 2014년 〈화엄경수소연의초현담〉 등 공개강좌를 진행한 신규탁 교수는 "보다 많은 이들이 선에 대해 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010)7696-2906

일붕스님 탄신 101주년 다례재

선교종, 6월 24일 울산 화엄정사 대법당서



대한불교선교종(총무원장 삼주)은 6월 24일 울산 화엄정사 대법당에서 '일붕 서경보 존자 탄신 101주년 다례제 및 원적 19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봉행위원장인 법인이사장 화엄스님, 총무원장 삼주스님, 자비실천승가회 수도암 광명심 원장 등 종단 임원과 각 종단 지도자 등 사부대중 300명이 참석했다. 중앙종회의장 해동스님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는 발원문 낭독, 육법공양, 헌화 헌향, 행장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법인이사장 화엄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세계가 곧 하나임을 말씀하신 세계일화의 유훈을 가슴에 새겨 지구촌 모두가 상생화합 할 수 있도록 정진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으며 총무원장 삼주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일붕 존자님을 기리는 오늘을 계기로 더욱 정진하여 종단을 반석위에 올려놓고 불교중흥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자'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무량종 창종 16주년 창종비 등 제막

6월 20일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서 개최



대한불교무량종(종정 혜안)은 6월 20일 종단 총본산인 지리산 칠보정사에서 '창종 16주년 창종비와 총본산 칠보정사 사적비 제막, 포대화상 점안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혜안스님, 총무원장 보운스님을 비롯하여 관내 기관장 등 종단 임원 및 종도 500여명이 동참했다.

창종 16주년을 맞아 봉행된 이날 법회는 종단 및 본산연혁 보고, 비문낭독, 포대화상 점안식, 내빈축사, 인사말씀, 공로패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불자님들을 위한 노래자랑이 이어졌다.

종정 혜안 스님은 법어를 통해 "창종 16주년과 총본산 칠보정사 창건 25주년을 맞아 정법종단의 표적인 창종비와 총본산의 위상인 사적비를 건립하게 되어 모든 분들께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정법종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무량종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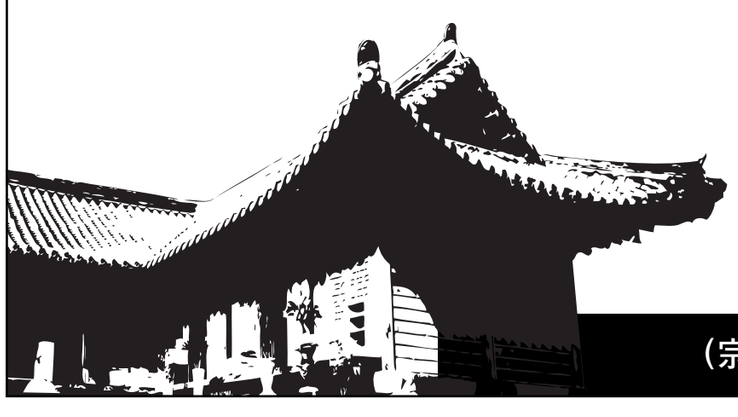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 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夏夏 好好’ 산사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休’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여름 템플스테이 40選

염천(炎天)의 시작, 몸과 마음은 더욱 지친다. 6월 한달 전국을 휩쓴 메르스 사태로 몸도 마음도 지쳤다. 이제 내 몸과 마음은 힐링과 건강을 원한다.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40곳에서는 방학과 휴가를 맞은 어린이 · 청소년과 일반인 대상으로 7, 8월 ‘2015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를 진행한다. 학업에 지친 청소년과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가득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이 엄선한 여름 템플스테이를 소개한다.

여름이다! 놀자 놀자!

웃음 에너지로 충만한 **영암 도갑사**에서는 총 2회에 걸쳐 어린이를 위한 ‘너, 나, 우리 함께 놀자! 템플스테이’ (7/31~8/2, 8/4~6)를 연다. 월출산 생태체험, 물놀이, 캠프파이어, 천연염색 체험 등 산사에서 기차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 데 모였다.

용인 화운사는 ‘놀아봐! 꿈꿔봐! 어린이 템플스테이’ (7/31~8/2, 8/7~9, 8/14~16)를 선보인다. 호흡명상, 전통놀이, 물놀이, 숲 명상, 별자리 찾기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신나는 놀이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거북이도 푹 쉬어가는 **성주 심원사**로 ‘검정고무신 동심체험 템플스테이’ (7월~8월)를 떠나는 건 어떨까.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최초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받은 만큼 청소년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꾸려졌다. 꿈등 만들기, 소금 만다라 명상, 향낭 만들기, 가야산 생태학습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공부와 휴식을 동시에

방학은 학생들에게는 모자란 학업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사찰 템플스테이도 영어, 한문 등 학습하며, 휴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호숫가에서 별빛포행을 즐겨볼 수 있는 **영동 반야사**에서는 어린이 지혜학당 템플스테이(7/25~29)를 열고 영어, 한자, 다도, 명상, 국선도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직 초등학생 참가자를 위해 산사의 문을 열 예정이다. **여수 흥국사**는 외국인 강사를 특별히 초청하여 어린이 영어 템플

어린이 · 청소년에게는 놀이를
영어 · 한문 공부하며 호연지기도
가족 · 일반인엔 완전한 휴식을
수행 통한 마음공부 ‘일석이조’

스테이(8/7~10)를 운영할 계획이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영어회화는 물론 108배, 계곡 물놀이, 명상 등을 두루 체험할 수 있다.

서산 부석사는 8월 2일부터 8월 8일 6박 7일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문학당을 마련한다. 교재는 〈사자소학〉과 〈법구경〉, 〈명심보감〉에서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엮은 〈수심자경문〉으로 교재를 삼았으며, 문장해석 공부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과정을 졸업하면 한문에 흥미를 가지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한문학당의 전통 강자는 미황사다. 미황사 역시 7월 26일~8월 2일, 8월 5일~8월 12일 2차례에 걸쳐 어린이 템플스테이 ‘미황사 한문학당’ 을 연다. 교수사에는 주지 금강 스님을 비롯한 동국대학교대학원 무진 스님, 중앙승가대학 범선 스님 등이 나선다.

특별한 당신, 특별한 템플스테이

가족과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템플스테이도 마련됐다. **서울 금선사**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산사 캠프’ (8/18~19)를 진행한다. 가족과 함께 하는 숲속 명상과 산사에서의 캠핑, 초롱등 밝히기, 가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용인 법륜사는 가족 템플스테이 ‘지금 행복하기’ 를 7~8월 중 진행한다.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템플스테이도 이뤄진다. **봉녕사**는 여성 단기 출가 템플스테이를 8월 12~16일 연다. 만 18세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학장 스님의 특별법문과 다도 특강, 발우공양, 사찰음식 체험 등이 진행된다. 건강을 위해서는 육지장사로 가자. **육지장사**의 ‘여름 특별 전문 다이어트 단식 템플스테이’ (7/29~8/2, 8/5~9)는 온구 체험과 보행 명상 등을 통해 스트레스와 비만을 해소시킬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대상층과 함께 몸과 마음이 쉬는 참선여행을 떠나는 **봉화 축서사**의 ‘쉬고, 쉬고 또 쉬고’, **양산 통도사**가 준비한 ‘별이 쏟아지는 통도사로 가요!’ 템플스테이 등 이색 템플스테이를 즐겨 보자.

다양한 〈2015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의 일정 확인 및 참가 신청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templestay.com)**를 통해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2015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지역	사찰명	프로그램명	대상	일정	프로그램 내용	연락처
서울	국제선센터	어린이 여름방학 영어 템플스테이	초등학생	7/24~26	연등 만들기, 영어 일기 쓰기, 외갓집 체험학습(감자 캐기와 옥수수 따기 수확체험, 황토 머드팩 놀이, 시골 반찬 식사, 바디 슬라이딩, 대나무 뗏목타기, 소금 만다라 등	(02)2650-2200
	금선사	가족 산사 캠프	누구나(가족/친구)	8/18~19	가족숲속명상, 산사에서의 캠핑, 초롱등 밝히기, 마주하는 108배, 가훈 만들기 외	(070)4242-9913
경기	화운사	놀아봐! 꿈꿔봐! 어린이 템플스테이	초등학생 중고생	청소년 7/31~8/2 어린이 8/7~9 8/14~16	발우공양, 부모은중경 사경, 마음거울 108배, 숲속 포행, 사찰 탐방, 전통놀이, 물놀이,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만다라 그리기, 연꽃등 만들기, 불꽃축제, 별자리 이야기, 다도체험 외	(031)355-2576
	봉녕사	여성 단기 출가 템플스테이	만18세 이상 여성	8/12~16 (4박5일)	학장스님 특별법문(나의 인생관을 찾아서), 다도 특강 다도명상, 발우공양, 스님과 함께 배우는 사찰음식체험, 난타체험, 걷기명상. 참선/붓다요가, 자기발견, 108염주 만들기 외	(031)256-4127
	봉선사	쉼 프로젝트	누구나	7~8월 (수~목 상시진행)	사물 참관, 저녁 예불, 참선, 108배, 숲속걷기 명상, 스님과의 차담, 연잎밥 체험 외	(031)527-9969
	육지장사	여름 특별 전문 다이어트 단식 템플스테이	누구나	7/29~8/2 8/5~8/9	스트레스와 비만해소를 위한 온구체험, 스님과의 차담, 보행명상, 참선, 108배 명상 외	(031)871-0101
	용문사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숲속 템플스테이	엄마와 미취학 어린이(4세~7세)	7/27~28	사물체험(타종체험), 단주 만들기, 다도명상, 숲길걷기 명상, 소원 바람개비, 물놀이(수박)	(031)773-3797
	법륜사	가족 템플스테이 ‘지금 행복하기’	누구나 (가족)	7/18~19 8/8~9, 8/15~16	테마파크 숲명상, 내도마을 연꽃밭 다도체험 외	(031)332-5703
세종	영평사	여름 숲속학교 ‘펀펀’	초등학생	7/29~31	찬불가 배우기, 재밌는 물놀이, 캠프파이어, 연등 만들기, 견학 외	(044)857-1854
		청소년학교 ‘선선’	초등학생(고학년) 중고생	8/3~7	난타배우기, 판소리 배우기, 다도, 사경, 108배, 사찰음식 만들기 외	
인천	전등사	寒 여름밤 특별 템플스테이	초/중/고	7/28~30 8/4~6	발우공양, 사찰예절 습의, 워터파크 물놀이, 사천왕 페이퍼 만들기, 참선, 삼랑성 포행, 108염주 만들기(1일3배), 스님과의 차담, 삼랑성 숲 이야기 외	(032)937-0125
경북	축서사	①반딧불 (지혜의 숲에서 놀자) ②쉬고 , 쉬고 또 쉬고	초4~중3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가족	그룹별 진행 7/2~5, 7/9~12 7/20~22, 7/24~8/2 8/9~11, 8/3~6, 8/6~9, 8/11~13	반딧불-집중명상(집중력을 키우는 미술놀이),솔향기 따라(산림치유),차 향기 따라(다도), 스님과 마음 나누기,108마음 내려놓기, 선요가, 참선 등 쉬고, 쉬고 또 쉬고-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제대로 쉬는 참선여행 외	(054)672-7579
	자비선사	참마음 찾아가는 길	성인	8/1~7	자비선 강의, 자비수관(좌선), 자비다선(차명상), 자비경선(걷기명상), 수행점검 및 상담	(054)931-8874
	심원사	검정고무신 동심체험	초/중/고	7월 중순~ 8월 말	108배 Dream, 꿈등 만들기, 탑돌이, 내 마음 보기 명상, 가야산 생태학습, 소금만다라 명상, 다도체험, 천년문화유산 답사, 향낭 만들기, 별빛달빛축제, 발우공양	(054)931-6886
		거북이 충전소		7월 중순~ 8월말	발우공양, 소금만다라, 숲속명상	
		하하호호	누구나	7~8월 매주말	108배, 연등 만들기, 탑돌이, 일출명상, 만물상 트레킹 또는 심우골 명상, 스님과의 대화, 발우공양	
	골굴사	청소년 여름 수련회	초등학생, 중학생	7/26~8/22	선무도, 영어회화, 108배, 승마, 다도 외	(054)775-1689
	도리사	친구야 놀자 여름캠프	초등학생	7/27~7/29	친구와 함께 물총 놀이, 수수께끼	010-8691-3877
경남	대광사	부처님 품안에서 신나게 놀자	초등학생	7/25~26	만다라 그리기, 편백숲 포행, 명상, 나뭇잎 손수건 만들기 외	(055)545-9595
		너랑 나랑 템플스테이	누구나	7월 (상시 진행)	108배, 편백숲 걷기, 단청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외 *동반인 무료	
	문수암	여름아 고맙다	중고생	8월 첫째주말	행복 카드 활동, 나무 명상, 연꽃등 만들기, 소금만다라, 먹기명상, 숲길 걷기. 스님과의 대화	
	통도사	별이 쏟아지는 통도사로 가요!	성인	7/30~8/1	참선, 보궁 걷기 명상, 솥밭길 명상, 몸 살리는 걷기운동(태극권), 계곡 명상(추억의 물놀이),음악 명상, 마음 나누기, 자연명상(암자순례)	(055)382-7182
	쌍계사	여름, 나를 찾아 떠나자! (여름 참선 캠프)	대학생, 일반	8/5~8/8	스님과 도량 둘러보기, 참선법문, 좌선, 요가, 포행, 칠불사 참배, 차담, 계곡 휴식	(055)883-1901
대구	동화사	내몸 그린 숲속여행	누구나	어린이8/3-8/6 청소년7/26-7/28 일반7/22-7/24 8/7-8/9, 8/14/-8/16	108염주 매듭 만들기, 타종체험, 직접 도시락 싸서 숲속여행 보물찾기, 다도체험, 부채 만들기, 숲길 걷기 명상, 폭포명상체험, 3보1배 외.	(053)980-7900
전북	개암사	열려라 바위야 바위야~	누구나	7/31~8/2, 8/7~9 8/14~16, 8/21~23 8/28~30	우금암 트레킹, 재미있는 불교벽화여행, 새벽숲속명상, 스님과의 차담. 녹차밭 포행 외	(063)583-3871
전남	송광사(완주)	어린이 여름 템플스테이	초등학생	7/27~29	체조(태극권), 나만의 옷 만들기, 물놀이, 연꽃 지화 만들기, 만다라 목걸이 만들기 외	(063)243-8091
	신흥사	島..途..道.. (도도도)템플스테이	누구나	7~8월 매주 금~일(2박3일)	예불, 108배, 발우공양, 명상, 스님과의 차담, 섬 명승지 탐방, 걷기 포행(또는 자전거) 외	(061)554-2202
	미황사	여름 한문학당	초등학생 (4~6학년)	7/26~8/2, 8/5~8/12	한문, 숲 체험, 탁본 체험, 발우공양, 별자리 탐방, 다도 외	(061)533-3521
		참사람의 향기	누구나 (대학생 이상)	7/11~18 8/15~22	참선, 다도, 묵언, 오후불식, 법문, 수행문답 외	
	화엄사	화엄세계를 만나다!	대학생 이상	8/7~9	부처님을 만나다(불교기초입문), 발우공양, 내가 행복해지는 108배, 나돌아보기 명상 등	(061)782-7600
	대원사	현장스님과 함께 웰다잉 템플스테이	누구나 (초등생 제외)	7/24~25 8/22~23	사찰안내(죽음체험, 바르도의 길 등), 티벳박물관 관람, 현장스님과 마무리 시간, 108배 외	(061)852-3038
		친구들아 놀자~!	초등학생 (3~6학년)	8/14~16	모듬별 미션, 차 맛 어때?!, 티벳박물관 체험, 벚꽃길 걷기, 캠프파이어, 전통매듭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미션),우리무예놀이, 물놀이 외	
	대흥사	여름 숲속 마을	누구나	어린이, 8/1~3 청소년, 8/5~7	어린이-만다라 그리기, 일지암 트레킹, 대흥사 바로알기 어른,청소년-스님과의 대화, 명상, 요가, 108배, 차담, 참선, 두륜산 북미륵암산행	(061)535-5775
	불갑사	행복 만들기 템플스테이	초4 이상~ 중학생	7/31~8/2 8/7~8/9, 8/21~23	108배, 참선, 울력, 불화그리기, 도예체험, 한지공예, 산행 외	(061)352-8097
	도갑사	너, 나, 우리 함께 놀자!	초등학생	7/31~8/2, 8/4~6	도갑사 보물(문화재)찾기, 숲속 놀이터(월출산국립공원 생태체험), 물 속 놀이터 등	(061)473-5122
	송광사	참나를 찾아서	성인	7/18~ 8/12 (토요일-수요일)4차	예불, 참선, 발우공양, 강의, 포행, 1080배, 철야정진, 차담 외	010-8830-1921
	천은사	천은사 계곡 탐방 노고단 산행	누구나	7~8월 매주 화, 금	감로숲포행,요가(몸명상), 스님과의 차담, 옴명상. 천은사 계곡 탐방, 노고단산행(휴식형)	(061)781-4800
	흥국사	어린이 영어	초 · 중생	8/7~10	외국인 강사와 함께 하는 교재 ‘HELLO DHARMA SCHOOL’ 학습 등	(061)685-5633
충북	구인사	내려놓은 마음길	누구나	7/31~8/2 8/13~15	108배 염주꿰기, 부채 만다라 그리기, 소백산 걷기, 발우공양, 스님과의 차담 ,구인사 주변 탐방 외	(043)423-7100
	법주사	산사여행 랄랄라~	누구나	초등부 7/31~8/2 청소년 8/7~9	나눔을 통한 행복줍기, 나를 낮추는 108배, 뮤직테라피, 숲속명상, 촛불아래 마음 내려놓기, 계곡에 발 담그기, 스님과의 차담	(043)543-3615
	반야사	여름 어린이 지혜학당 템플스테이	초등학생	7/25~7/29	영어야 놀자, 한자와 친구하기, 다도, 명상, 플라워아트,	(043)742-7722
		청산아 놀자 (여름휴가템플스테이)	중학생 이상	7/31~8/2	물소리바람소리명상, 연지명상, 편백나무숲명상, 차명상 외	
충남	갑사	행복한 후유증 용솟음!갑사	누구나	1차캠프(7/25~26) 2차수련법회(7/30~8/2)	마음 나누기, 갑사 이야기, 범종 체험, 나만의 108여의주 만들기, 손으로 만드는 연등, 소원을 담은 탑돌이, 철당간 명상 외	(041)857-8981
	부석사	자연愛 / 한문학당	누구나 초등학생 (고학년)	6월~8월	천연염색, 사찰음식 체험, 숲길 참선, 야생화 탐방/한문학당	(070)8801-3824
	수덕사	어린이 스스로캠프 2015	초등학생	7/27~7/29	부모은중경 독경. 108배, 촛불명상, 문화재 탐방, 연등 만들기, 스님과 함께하는 전통놀이	(041)330-7789
		2015여름선수행 템플스테이 ‘탁발’	누구나 (16세 이상)	1차 7/31~8/2 2차 8/14~16	탁발공양, 참선, 나를 깨우는 108배, 숲길걷기, 선지식을 찾아서 등	
	지장정사	보이지 아니한가	초/중.고	8월 1~2주	108배, 농촌체험(옥수수감자), 나를 찾는 방법, 칠리체프린(페이스 페인팅) 등	(041)732-5629
	마곡사	수리수리 숲소리 청소년 템플스테이	초중고생	7/30~8/1 8/13~15,8/20~22	한지 부채 만들기, 공주 치즈 스쿨 체험하기, 솔바람길 산책, 스님과의 차담,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강연 외	(041)841-6226
강원	백담사	꿈, 희망 찾아가는 숲명상 템플스테이	누구나(초등생 2학년 미만 제외)	7/24~8/31 (2박3일 상시진행)	자비명상, 숲 명상, 요가형 108배 습의, 사진명상, 맥놀이명상, 차훈명상, 소금만다라 그리기, 별바라기 외	(033)462-5565
		청소년 꿈.희망.도전 템플스테이 (꿈과 끼를 펼쳐라!)	중고생	7/24~26 (2박3일)	요가형 108배 배우기, 사진명상, 숲명상, 자비명상, 맥놀이 명상, 꼴라쥬, 소리명상, 돌탑 쌓기, 마음나누기 등	
	월정사	月래, 괜찮아!	누구나	중고생 7/31~8/2 누구나 (미성년자 보호자 동반) 8/6~9, 8/13~16 8/20~23	108배, 포행, 스님과의 차담, 삼보일배, 자비명상 외	(033)339-6606

世界佛教 法王廳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2월 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9월 30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급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였기에 모든 직무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

수행 길잡이 능엄경 '영어로' 공부한다

금강정진회, 7월 8일 개강… 11월까지 진행

불교 수행법을 다룬 능엄경을 영어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능엄경〉은 〈원각경〉 〈금강경〉 〈기신론〉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 강원의 4교과로 쓰이는 주요 경전으로써 부처 수행법의 요체로 평가받아 왔다.

금강정진회(사단법인 참수레, 이사장 배광식)가 '영어로 읽는 능엄경 강좌'를 개최했다. 강좌는 지난 7월 8일 서울 종로구 두산위브파빌리온에 위치한 승우당서 첫 문을 열었으며, 앞으로 11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강정진회는 "능엄경은 선의 골수를 담고 있는 경전으로 동양 대승 불교권에서 중시하는 경전 중 하나"라고 평하며 "대승 주요 경전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한국 불교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실천행이다. 이에 첫 번째 불교 강좌로 영어 능엄경 강좌를 개설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어 금강정진회는 많은 언어 중 영어를 선택한 것에 대해 "젊은 세대의 영어 수요는 줄곧 높아지고 있다. 경전을 영어로 공부하는 장을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경전에 대한 관심도 커질 기대를 안고 있다"며 "두 가지를 한 번에 배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경전을 영어로 읽을 수 있도록 영어 공부가 선행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배울 수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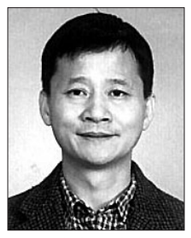
강의는 5개월 간 21주차에 걸쳐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능엄경 이해(Prologue) △시각적 인식의 성격(The Nature of Visual Awareness) △환상 같은 세계 생성(The Coming into Being of the World of Illusion) △수행의 도구(Instruments for Practice) △25명의 현자들(Twenty-Five Sages) △능엄주(The śūrangama Mantra) △존재의 층돌(Levels of Being)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7월 8일 시작된 첫 강의 주제는 '능엄경 전반에 대한 이해'였다. 참석자들은 능엄경 역사와 유래, 경의 구조, 대략적인 경의 내용을 배웠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배광식 이사장은 "능엄경은 우리나라 선종의 소의 경전으로 참선 중 나타나는 갖가지 마군의 유혹을 분별하고 퇴치하는 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어 수행의 길잡이로써 가장 좋은 경전"이라며 "능엄경의 원래 이름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이라고 설명했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무한히 큰 절대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되기 위해 보살들이 닦는 완전무결하고 견고한 육도만행 수행법을 설한 경이라는 뜻이다.

강의 교재로는 〈Buddhist Text Translation Society 2009년 번역판〉이 선정됐다. 금강정진회는 "한글본에 입각한 능엄경 강좌는 종종 열렸으나 영어본 강좌는 매우 드물었다. 영어권에서 능엄경 공부가 중국 선화상인 중심으로 선양돼 온 만큼 선화상인의 유지를 받드는 교재를 택하게 됐다"고 선정 과정을 밝혔다.


배광식 교수


한창호 회장

젊은 세대 영어수요 맞춰
부처님 수행법 영어로 공부
불교 트렌드 수행 공부 '눈길'
5개월 간 21차 강의 진행



아울러 강사로는 사단법인 참수레 배광식 이사장과 금강강독회 한창호 회장이 나선다. 배광식 이사장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로 치의학박물관장, 대한치과보존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선학원 중앙선원 선정회장, 도봉산 광륜사 신도회장, 서울대교수불자회 회장, 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전문위원 및 국제포교사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또 한창호 회장은 서울대 영문학과 및 동대학 국악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 재학 중이다. 불교 관련 국역서 〈꽃과 쓰레기〉(틱낫한), 〈셀프 컴패션〉(거머), 〈미국과 불교의 만남〉(트위드) 등을 펴냈다.

한편 금강정진회는 인터넷 수행카페 '금강불교 입문에서 성불까지' 정기 오프라인 모임으로 시작됐다. 회원수 7천여 명을 보유한 금강 카페는 청화 스님(1924~2003)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일상에서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 2002년도 7월 설립됐다. 이후 2014년 5월 사단법인 참수레 출범, 2014년 10월 충남 태안 태화산 묘금륜원을 개원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캠퍼스 포교'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

대불련총동문회, 7월 13일까지 접수

대학생불교연합회가 대학 내 캠퍼스 포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백효흠, 이하 대불련총동문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채은, 이하 대불련)는 침체되고 있는 캠퍼스 포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캠퍼스포교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을 오는 7월 13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대불련 캠퍼스 포교를 위한 매뉴얼 및 맞춤형 포교 콘텐츠 개발이다. 공모를 통해 채택된 사업은 2015년 7월~11월 진행되며, 사업비는 2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된다.

공모를 위한 세부 내용에는 △캠퍼스 포교 매뉴얼 전략의 성공 포인트 △제안 배경 및 목적 △대불련 활성화 전략에서 연구용역이 갖는 의미 △사업 제안의 특징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한편 참가자격은 불교계 포교 연구 사업 및 대학생 · 비영리단체(기관) 경영분야 연구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로 한정된다. 참가자들은 제안 기관 현황, 연구 사업 실적, 연구 책임자 이력, 학력 및 경력(신행경력 포함), 연구 사업 경력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계획, 추진 방법 및 시행체계, 연구진 현황, 세부추진계획(주요 공정표 포함), 용역 결과물, 예산 계획(용역비 산출내역)을 세워 함께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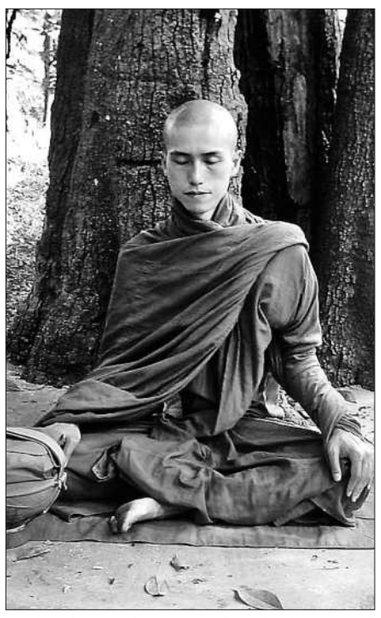
또한 선정 절차는 △공개공고를 통한 제안서 평가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기관별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된다. 제안서 제출기한은 7월 13일 17시로, PDF파일 이메일 접수(대불련총동문회 사무국 daebul333@naver.com)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불련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

백효흠 총동문회 회장은 이번 공모 사업에 대해 "대불련총동문회가 지난 2년간 대불련과 함께 진행한 '대불련 역량강화를 통한 캠퍼스포교 활성화 기반 조성' 토론회 및 워크숍서 도출된 결과물을 실천하는 1단계 사업"이라며 "선정된 업체는 대불련 캠퍼스포교연구팀 15명 및 대불련 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불교 전문가 5명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한다. 재원은 대불련발전기금에서 충당될 예정"을 밝혔다.

아울러 백회장은 "기존 신행활동에서 벗어나 대불련 미래비전과 중 · 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캠퍼스포교전략연구소 설립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앞으로도 대불련 역량강화를 위한 동문 결집을 최우선 사업으로 매진할 것"이라 전했다. 문의 (02)720-1963 대불련총동문회 사무국

박아름 기자

사마타 · 위빠사나 동시 체험 법회 열린다


위빠사나 지도법사 호두마을 선원장 상가락키타 스님 수행 모습.

7월~10월 향천선원서… 삿담마사라 스님 탁발 수행도

남방불교의 대표적 수행법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향천선원 한국사마타위빠사나명상(가칭, 이하 명상센터)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향천선원서 7월~10월 간 사마타 및 위빠사나 수행법회를 봉행 한다. 사마타 지도법사는 4월~6월 호두마을 비구상가 단기출가 과정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미얀마 파욱숲속사원 삿담마사라 스님이, 위빠사나 지도법사는 호두마을 선원장 상가락키타 스님이 나선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사마타 수행 법회는 부처님 핵심 수행법인 사마타의 구체적 방법을 학습하고 실천하기 위한 자리다. 참가자들은 초기경전인 〈니까야〉와 그 외 논서들을 중심으로 삿담마사라 스님의 설법을 들은 후 아나빠나사띠 명상을 직접 실습한다.

수행 이후에는 인터뷰가 진행된다. 사마타위빠사나명상 최학봉 홍보위원은 "남방불교 수행의 핵심은 수행 내용을 스승에게 보고하고 다음 수행의 지침과 숙제를 받는 '인터뷰'가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수행 후 삿담마사라 스님과 1대1 인터뷰를 진행하며 열린 법회를 꾸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회 전에는 삿담마사라 스님과 상가락키타 스님이 탁발 수행할 예정이다. 명상센터는 "두 스님이 선원 주변 마을서 탁발 공양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피력했다. 탁발공양을 통해 탁발 전통과 법, 나아가 복전의 의미를 알리기 위함"이라며 "이번 법회를 통해 남방불교의 청정한 수행 전통과 가풍이 한국 사회에 전해져 부처님 계율과 정법이 널리 홍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명상센터는 근본불교 기본교리 및 근본불교 실천교리 과정도 개설했다. 교리 학습과 함께 위빠사나 명상실습이 진행된다. 기본교리 과정은 삼보(三寶), 십바라밀, 보시 · 지계 · 수행 체계 등 교리 학습 후 호흡관, 40분 기본수행 과정 등을 실습한다. 또 실천교리 강좌 과정은 업(業), 연기, 사성제, 팔정도 등 교리 강좌와 함께 신 · 수 · 심 · 법을 주제로 사념처 수행 과정을 이수한다.

기본교리는 7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실천교리 강좌는 7월 5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향천선원서 열린다.

한편 향천선원 한국사마타위빠사나명상법회는 지난해 9월 미얀마 파욱숲속사원의 우실라 사야도 스님을 초청해 사선정 주제 법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출범했다. 이후 2015년 4월~6월 말 수가따왕사 스님을 지도법사로 선정 법회를 봉행한 바 있다. 문의 (02)2254-3100

박아름 기자

중노년 부부 위한 템플스테이 개최

불교여성개발원, 7월 11~12일 진행… 부부 위한 맞춤 프로그램 '눈길'

여름을 맞이해 전국 사찰서 다양한 템플스테이가 열리는 가운데 중노년 불자부부 10쌍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개최된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박순)은 오는 7월 11~12일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서 '행복한 나, 건강한 가족을 위한 부부 템플스테이'를 주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하기 위한 자리다.

부부를 위한 템플스테이답게 이색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부부명상 △가족헌법 만들기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 △온 구체험 △부부상장 만들기 △화성거사 금성보살 수다방 등이 마련돼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 불자들의 남편들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며 "중노년 부부불자들이 서로 도반이 되어 함께 수행도 하고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컬러링 열풍 '엽서'로 번졌다

힐링 문화로 떠오른 '컬러링' 열풍이 엽서에도 옮겨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7월 15일~8월 14일 '심심한 생각 채우기 예쁜 엽서전'을 진행한다. 전국 사찰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인 심심한 생각 채우기 컬러링북 엽서와 카드를 구매한 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카드를 완성하는 것이다.

참가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카드와 재료 선택은 자유이나 1인 3매 이하 응모로 제한된다.

당첨자는 9월 1일 화요일 발표된다. 수상작은 △최우수상(3명) 문화상품권 5만원 및 노스페이스 35L 배낭 △우수상(5명) 문화상품권 3만원 및 노스페이스 25L 배낭 △장려상(10명) 문화상품권 1만원 및 노스페이스 모자 △입상(20명) 문화상품권 1만원 등을 각각 수여한다.

문의 (02)733-7277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국

박아름 기자

제13회 대원상(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에서는 설립자인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해 포교대상과 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해 제13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상세는 본 원 홈페이지 및 월간 「불교문화」 공모 내용을 필히 참조 바람.]

⊙ 포교대상

공모 부문(개인 또는 단체)
① 출가 부문
② 재가 부문

상금 : 총액 5,000만원 이내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① 출가 부문
- 3인(곳) 이내 시상
-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활동 전개에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또는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② 재가 부문
- 3인(곳) 이내 시상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 콘텐츠대상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주제 및 소재)의 콘텐츠

공모 부문(개인 또는 단체)
① 텍스트 · 이미지 콘텐츠
② 오디오 · 영상 콘텐츠

상금 : 총액 4,000만원 이내

* 오디오 · 영상 콘텐츠는 DVD나 USB 등으로 제출할 것.

※ 각 시상 분야에 대해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음.
※ 후보자 또는 후보 작품들이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 ·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수상 부문 및 상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절차

제출서류 : 제13회 대원상 수상 후보 소정양식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접수기간 : 2015년 9월 14일(월) ~ 10월 2일(금)

접수 및 문의처 :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주소 :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전화 : (02) 719-2606, 1855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시상식 일정 : 추후 발표

대한불교진흥원

종단 명칭 변경 및 승려 분한신고 실시 공고

(사)한국불교정토종은 종단을 재 정비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22일부로 종단명을
(사)한국불교본정토종으로 변경하고 이를 토대로 종단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승려 분한신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본 종단 소속 전 종도스님 및 법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기한내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❶ 신고기간 : 2015년 7월 10일 부터 ~ 8월 10일까지
❷ 신고대상 : (사)한국불교정토종 소속 전 종도스님 및 법사님
❸ 신고장소 : [총 무 원] 032)543-2693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23번길 7, 3층(학익동)
[경기종무소] 031)411-4984 / H·P 010-3950-498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92(고잔동,대원빌딩) 301호

- 신고시 사찰분담금 및 승려의무금 미납자는 필히 납부 바랍니다.
- 기한내 분한 미신고자는 종헌. 종법에 의거하여 승적 자동 말소됨을 공고합니다.

입 종 안 내

(사) 한국불교본정토종의 발전과 종지,종풍 선양에 함께 하실
승려(법사님 포함)와 사찰을 모시고자 합니다.

◆ 문의 : 총무원 032)543-2693 / 경기지부 031)411-4984
팩 스 031)410-4983 / H·P 010-3950-4984

2015년 7월 10일

(사) 한국불교본정토종
이사장 도우 / 총무원장 혜각

복지관서 챙겨주니 메르스 무섭지 않아요

3주간 휴관했던 조계종 산하 노인복지 시설 재운영

"어르신! 발열 체크하고 들어가세요. 어제 마스크는 버리시고 새 마스크 사용하세요."

6월 29일 임시운영 형태로 문을 연 서울노인복지센터 입구는 입장을 위해 줄을 선 어르신들로 분주했다. 입장과 동시에 발열체크 손소독을 마친 어르신들은 복지사들이 지급한 새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 3주만에 다시 문을 연 서울노인복지센터에 들어서며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손을 잡으며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3주간 휴관했던 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노인복지관 등 조계종 산하 노인복지관들이 일제히 문을 열었다. 6월 29일부터 정상 혹은 임시운영 형태로 문을 연 노인복지관들은 어르신들을 맞느라 분주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급식이 지급 되었고 프로그램들이 다시 운영되면서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부분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을 연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0명 이상의 프로그램은 아직 재개하지 못한 상태다. 너무 많은 대중이 모이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대체식으로 지급되던 급식도 재개돼 어르신들이 복지관 식당에서 식사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모든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기민지 복지사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정상 운영되면서 어르신들이 발열체크 손소독 과정을 거쳐 입장하고 계시다. 급식을 비롯해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메르스 안전관리 예방도 안내하고 있다. 그동안 잠정 휴관으로 중단되었던 사업들을 다시 진행해 앞으로 어르신들이 즐겁게 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전했다.

휴관 기간 동안 복지관들은 급식이 중단된 어르신들에게 대체식을 지급하고 수시로 점검전화를 하는 등 휴관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찾은 구봉년 어르신(80)은 "복지관이 그동안 문을 닫아 집에 만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급식을 먹을 수 있어 너무 좋다. 집에 있는 동안에도 복지사들이 전화로 세심하게 챙겨주어서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복지관에 나오니 마스크도 챙겨주고 메르스 예방도 해주니 메르스가 무섭지 않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메르스로 3주간 휴관했던 조계종 산하 노인복지관들이 일제히 문을 열었다. 사진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입장을 위해 발열체크를 하는 어르신의 모습.

발열체크 등 예방관리에 철저히
급식제공 등 중단 프로그램 재개
요양센터 등은 아직 면회 금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손소독을 하며 입장하는 어르신.

방혁철(79) 어르신은 3주만에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와 악수를 나누며 반가워했다. 방 어르신은 "그동안 복지관에 나와 바둑두고 당구 치고 친구도 만나고 했는데 못나와 갑갑했다. 이렇게 다시 복지관에 나오게 되니 너무 기쁘고 좋다"며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장영수(72) 어르신 역시 "뇌출혈이 발병해 오른손이 마비되어 늘 복지관에서 운동하며 건강을 지켜왔는데 복지관이 휴관하는 동안 운동을 못해 답답했다. 이렇게 다시 문을 열어 너무 기쁘고 운동을 할 수 있어 좋다"며 반가운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노인요양센터 등은 아직까지 방문객을 통제하는 등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서봉수 차장은 "6월 30일자로 임시휴관을 했던 복지관들이 많이 줄었고 7월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복지관들이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송파노인요양센터, 불국성림원, 군포노인시립요양센터 등 요양시설들은 아직까지 보호자 면회사절 등으로 외부인을 통제하고 있다.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요양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곳인 만큼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관들은 소독약 비치, 마스크 제공, 발열 체크 등을 통해 메르스 예방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인덕원 조계종복지재단에 네팔 후원금 전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십시일반 성금 모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대표이사 성운 스님)이 7월 1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네팔 후원기금 및 물품을 전달했다.

인덕원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500만원과 의류 1000벌, 백미 500kg 등 총 1000만원 상당을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후원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 인덕원 상임이사 도광 스님 등이 참석했다. 도광 스님은 "네팔 지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어린이부터 요양원 어르신까지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다. 적은 금액이지만 마음을 모은 것이 중요하다"며 취지를 전했다.

한편, 조계종은 곳곳에서 이어지는 네팔 성금을 전달하는 방식을 일원화시키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정혜숙 기자



인덕원 상임 이사 도광 스님(왼쪽서 두번째)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본동복지관 치매가족지지프로그램 시행

7월 9일까지 신청 마감, 10일 개강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병설 노들데이케어센터(시설장 김종성)가 이용자 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가족지지 프로그램을 7월 10일~10월 16일 실시한다.

센터 이용 어르신 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본동종합복지관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 분들의 스트레스와 부양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한국치매협회와 연계를 통해 총 6회 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치매 이해하기 △나 자신 치유하기 △소통하기 △즐겁게 생활하기 △어우러져 살기 △미래계획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들데이케어센터 김종성 시설장은 "치매가족이 부양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방법을 숙지할 수 있으며 가족 및 지역주민의 지지체계 구축과 정보 제공 및 공유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신청은 7월 9일까지다. (070)7163-0907

정혜숙 기자

연꽃마을, 베트남에 '한글학당' 준공

6월 26일 베트남 땀끼시서, 각현 스님 흉상 봉안도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은 6월 26일 베트남연꽃마을에 한글학당 준공식을 가졌다.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회장 원명)은 6월 26일 베트남 광남성 땀끼시 소재 '베트남연꽃마을' 내 첫 번째 시설인 한글학당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세종학당으로 지정받은 한글학당은 앞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국제연꽃마을 회장 원명 스님(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을 비롯해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법타 스님(前동국대 정각원장), 연꽃마을 이사 수현 스님(안양 안흥사 회주) 등 사부대중 200여명과 응웬 반 루어 땀끼시 당위원회 비서, 반 안 투언 땀끼시장 등 지역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베트남연꽃마을' 의 한글학당은 지난 2011년 4월 쾅남성 탐키시로부터 안푸현에 2만여평(70,000㎡)의 복지시설 부지를 무상임대 받아 2012년 12월 12일 기공식을 갖고 건립공사를 시작한 이래 2년 6개월여만에 한글학당(교실)과 도서관, 숙소 등 총 3개 동의 완공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국제연꽃마을 회장 원명 스님은 "지난해 말 입적하신 각현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한 한글학당 건립 대불사를 마무리 짓고 회향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면서 "각현 스님이 발원했던 바와 같이 이 한글학당은 땀끼시민들 가운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편안히 와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불국사 자원봉사단 부단장 일운 스님(울진 불영사 회주)은 베트남연꽃마을 발전기금으로 일금 3천만원을 국제연꽃마을에 쾌척했다.

국제연꽃마을은 준공식이 끝나고 곧바로 한글학당 앞 광장에 건립된 故각현 스님(前회장)의 흉상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반 안 투언 탐키시 시장은 "10여년 이상을 이곳 땀끼시를 오가며 베트남과의 돈독한 우정을 보여주시고, 항상 정성스런 마음으로 땀끼시민들을 사랑하신 각현 전 회장스님을 우리 땀기시 시민들은 영원히 기억하고 존경할 것"이라며 각현 스님의 업적을 기렸다.

앞으로 베트남 연꽃마을은 10개년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시설,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옥수복지관 '관세음어르신 효행잔치'

7월 14일, 식사제공 · 문화공연 등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7월 14일 복지관 5층에서 지역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초복행사 '관세음어르신 효행잔치'를 진행한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여름 저소득층 노인일자리 어르신과 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관세음어르신 효행잔치'를 통해 불교의 자비 나눔과 보살 정신으로 이웃을 격려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관세음어르신 효행잔치는 복지관의 후원사찰인 미타사 정수암의 '가족법회' 회원들의 후원으로 기획 되었다.

옥수복지관은 "저소득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문화공연, 점심식사 제공, 기념선물전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여름철 부족할 수 있는 영양을 보충해드리고, 삶의 활력을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숙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47회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새 시대의 리더로서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화랑 수련회에는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는 **21세기** 신화랑 캠프입니다.

일 시 2015년 7월 26일 ~ 8월 22일
모집 인원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0 ~ 15시 입산 / 토요일 12시 하산
대 상 초등학생 ~ 중학생, 해외교포 자녀 및 유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수련 회비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 4주 - 11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준 비 물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접수 문의 ☎ 054)775-1689, 744-1689 ※ 홈페이지 : www.sunmudo.com

◉ 기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불교강의, 좌선, 108배
◉ 영 어 캠 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생활
◉ 매주 색다른 생태순례 : 감포깍지길 걷기 · 솟대만들기, 경주남산답사
읍천항 · 주상절리길 걷기, 박물관 및 경주문화유산탐방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 사찰주지스님 추천시 10% 할인해 드립니다.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온 우주가 '내 생각'에서 창조된다

"'자기 평가'에서 우울함 느껴
밝은 미래 지향하면 불안 해소
생각이 미래와 삶 결정한다

마음 고통이 몸 느낌에 영향
몸 느낌 관찰로 생각 근원 파악
대상 아닌 '내 생각'이 기분 결정"

정각원 토요법회

인경 스님(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회장)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에 지쳐 우울함을 쉽게 느끼곤 한다. 우울증을 '정신적 감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감기를 앓듯 우울증에 빠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닐까? 인경 스님은 5월 30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에서 '명상과 인지치료'를 주제로 강연했다. 인경 스님은 "현대인들이 우울함을 느끼는 것은 현실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불안 때문"이라며 "이 속에서 긍정적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자신감을 상실해 우울함이 더 커지는 것이다. 내 생각이 만드는 우울과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생각을 들여봐야 한다"고 설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오늘 강의 주제는 '명상과 인지치료'입니다. 조금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명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인지치료'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지치료라는 것은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단순히 때로 우울감을 느끼곤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치료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과도한 경쟁과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에 빠지는 현대인들이 많아지면서 우울증을 '정신적 감기'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삶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울정서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가끔 사회적으로 유명한 배우라든가 심지어 대통령도 자살을 해서 큰 충격을 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울증이라는 것은 1954년 이후에나 그 병명이 확정이 되었을 만큼 오래되지 않은 현대인들의 정신적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울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불교 교선에서는 느낌을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고(苦), 락(樂), 불고불락(不苦不樂). 이 세 가지 느낌을 심리학자들은 괴로움과 즐거움, 마지막으로 어느 쪽도 속하지 않은 느낌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즐거운 느낌은 어디로부터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인데 또 그 마음은 몸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면 그 즐거운 마음이 어디서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기분이 몸의 느낌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우울하십니까? 무언가 뜻대로 잘되지 않았을 때 우울한 경우가 있곤 합니다. 그런데 슬픔과 우울은 각각 대상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생기는 겁니다. '난 실패자야' 혹은 '난 잘하지 못할 것 같은데'와 같이 혼자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난 할 수 있어. 자신 있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지 않습니까? 때로 인간은 위축되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CEO명상교실에는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 받는 CEO들이 있습니다. 그 CEO들은 어깨가 심각한 수준으로 아픕니다.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바로 심각한 사회적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통증입니다. 과중한 책임감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그 결정이 회사에 타격을 줄 경우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린 '불안감'이라 부릅니다. 불안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요소만 떠올리고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놓인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할 때 우울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울함은 대상과 세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할 때 생깁니다. 자기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이 우울은 세 가지 관점을 가지는데 그중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사회, 지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온갖 고통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멈추면 마음이 평화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생각이 우주를 지배하는 것, 그리고 한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 이 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있는가는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내 삶이 미래를 확정하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명상 실천은 본인의 몫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은 정년퇴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만 일을 했는데 이제 이곳을 벗어날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지요. 이 분은 그 두려움이 너무 커져 우울증까지 겪으며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은 생각이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그 반응이 나의 느낌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밝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은 온 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을 몸 느낌이라 그래요. 불교 명상에서는 이 몸 느낌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명상기술을 발전시켰는데 '바디스캔'이라고 합니다. 바디스캔이란 면밀히 조사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명상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느낌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무거운 느낌, 불쾌한 느낌, 우울한 느낌 등 그것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머릿속에 있는 그 느낌을 지켜보고 충분히 느끼는 것이지요. 눈을 가만히 감고 눈은 어떤지, 코는 어떤지 또 내 입은 어떤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바디스캔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머리의 느낌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낌명상에 대한 부분은 〈쌍윳따니까야〉에 서른여섯 가지 경이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느낌명상을 매우 강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 경전에만 있고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가치 있는 건 현장에서 사용되어 나와 남을 위해 이롭게 사용되어야지 실천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쓸모가 없습니다. 즉 느낌명상을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방법을 일러주고 질문에 답을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명상을 하셔야 합니다. 불교 명상법을 병원에 적용해 본 일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 명상을 시켰습니다. 우울증 환자이지만 이들의 스트레스가 몸으로 전해져 몸도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바디스캔 느낌명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방향은 일러줄 수 있지만 그 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실천한 분들이 명상의 효과를 느꼈을 것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대 존 카밧진 박사는 마음챙김 명상으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개발해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이 존 카밧진 박사가 워크샵을 하면 각지에서 각계각층 사람들이 2만 명씩 모여듭니다. 또 외국 대학에서 명상 수업을 들으려면 한 학기 전부터 사전 접수를 해야 들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명상 열풍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 미국 정신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치료법을 사용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인지치료 68%, 명상치료 42%, 프로이트 36%으로 집계됐습니다. 심리학계의 아버지라 말하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명상치료기법이 뛰어 넘은 것입니다. 이처럼 명상치료는 새로운 치료법으로써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생각이 끝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린 그것을 망치질 한다고 표현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대게 잠을 잘 못 이룹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은 계속적으로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합니다. 유명한 원효 스님의 해골물 일화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원효 스님이 화엄의 대가 지엄 스님을 찾아 떠나는 길에 동굴에서 잠을 청하다 해골물을 마셨지요. 마실 때 원효 스님은 아주 시원한 물에 행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 물이 해골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원효 스님은 어땠을까요? 아주 혐오스럽고 불쾌하고 역겨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매우 시원해서 갈증을 해결하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해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역겨움을 느꼈을까요? 물은 똑같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원효 스님 스스로가 한밤중에 어둠 속에서 마신 물에 대한 느낌과 아침에 눈을 떠 해골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느낀 것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물은 그저 똑같은 물일뿐인데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한 생각이 달라지며 내 경험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해골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행동과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달라지면 나 자신, 나아가 내 주변 모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적나라하게 가르쳐 준 사례이지요.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인지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지치료는 전반적인 불교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많은 것이 변할 것입니다. 원효 스님의 깨달음은 나의 깨달음이고 나의 깨달음은 여러분의 깨달음입니다. 한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 세상 모든 소란스러움도 잠잠해지고 내 마음도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려면 제일 먼저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찾아내야합니다. 그 생각을 발견했다면 생각이 내게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지 이 생각에 나는 얼마나 매달려 왔는지 이걸 발견해 낸다면 여러분은 원효스님처럼 동일한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의 삶은 바뀌고 변화할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내 스스로 아는 것이고 내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삶의 주인공이 되어라'라는 것이지요. 삶의 주인이 되려면 생각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합니다. 생각이 우리 주인이 되려고 하면 우린 생각을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 원효 스님처럼 한 발짝 돌아서서 내 자신 안에 있는 깨달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삶은 내가 끌고 가는 것이며, 바로 내가 주인공입니다.

인경 스님은 … 조계산 송광사에서 출가해 강원을 졸업했다. 동국대대학원 선학과 석사 및 동대학 '몽산덕이 선사상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현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회장을 역임 중이다.

능인 로즈마리 / 능인 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 인 라 벤 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권력에 종속… 배불론에 대응 못해"

박영제 서울시립대 교수, '고려시대 정치권력과 불교' 세미나


불교사회연구소가 7월 2일 개최한 '고려시대 정치 권력과 불교'에서는 결사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력과의 독립, 종교의 쇄신을 부르짖은 결사는 결국 정치권력화 될 수 밖에 없었다. 불교계를 결사가 주도하는 순간이 바로 정치권력의 유혹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결국 결사가 정치권력화하며 불교계는 내부적으로 이미 배불론에 대응할 힘을 잃었다."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며 제기된 결사의 정치권력화를 고찰한 발표가 눈길을 끈다. 박영제 서울시립대 교수는 불교사회연구소(소장 · 법안 스님)가 7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고려시대의 국가와 불교 · 고려시대의 정치권력과 불교'에서 결사가 결국 정치권력화 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조명했다.

박 교수는 '결사불교와 정치권력'에서 "결사 규모가 확대되며 사세의 유지를 위해 결사 초기의 정치권력과의 소원한 관계는 지속되지 못했다"며 "이는 결사 또한 국가의 승정체계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정혜결사와 백련결사를 들었다. 먼저 박 교수는 "정혜결사와 백련결사는 통시대적으로 존재했던 여타의 결사불교와는 성격이나 영향력의 면에서 사뭇 달랐다. 당대 불교계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비판, 불교사상과 신앙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실천의 제시, 정치권력의 접근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두기, 기존 불교교단으로부터의 독립, 재가 신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후원 등이 두 결사의 특징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항몽전쟁 과정에서 수선사(정혜결사)가 불교계를 주도하는 사원으로 부상했고, 백련사도 최씨 무신정권과 밀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신정권이 붕괴되며 친원불교화가 진행됐으며 변실과 쇠퇴의 길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고려 결사의 무신정권 관계 고찰

"정권 몰락 후 불교 쇠퇴 불러와"

박 교수에 따르면 지눌 스님 이후 혜심과 몽여 스님 당시 수선사는 결사이념과 중앙정치권력과의 균형이 이뤄지며 결사이념이 계승됐지만 또 권력에 종속될 위험도 상존했다. 진명국사 혼원 스님이 최이에 의해 정혜사 주지와 선원사 법주가 된다.

박 교수는 "혼원 스님이 최항의 영향력으로 수선사 사주가 됐는데 이에 앞서 선원사 법주가 된 것은 최이가 선원사를 통해 수선사를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두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로 인해 수선사는 최씨 무신정권에 종속돼 정권유지에 직접적으로 포섭된다.

박 교수는 이어 "백련결사 또한 요새 스님 이후 최씨정권과 밀착됐으며 그 정권이 몰락하자 불교계에서 더 이상 결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고려말 성리학 측의 정치운동 성격의 거친 배불론에도 전혀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결사불교는 초기의 성격과 달리 대중과 유리되고 결국 불교계 모순에 대해 비판적 대안을 제시할 능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교수는 끝으로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태어날 결사로 인해 정혜결사와 백련결사가 실패한 결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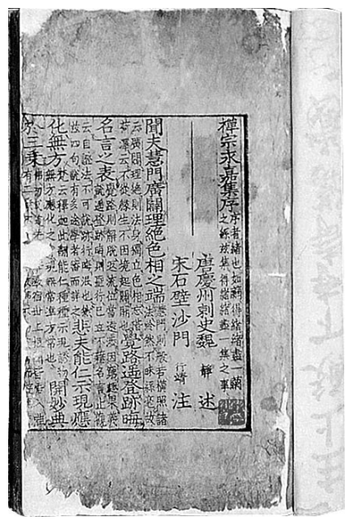
강호선 성신여대 교수는 '왕실 불교의례의 정치적 의미'를 통해 고려시대 불교의례가 국가정책 하에 발전한 것은 불교가 정치적인 효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동일한 불교의례가 설행되지 않았다. 필요에 의해 새로운 의례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의례는 집단 설행되는 과정에서 대민 동원력을 지니고 이를 통해 민심을 규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왕실의 권위를 백성에 과시하는 기회"였다며 "연등회와 팔관회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신미스님 〈선종영가집〉 서울문화재로

조선 전기 한글 연구 중요자료… 세조가 직접 현토


신미 스님의 〈선종영가집〉

한글창제의 주역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신미스님의 한글언해집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새롭게 지정됐다.

서울시는 6월 18일 〈선종영가집 언해〉을 비롯해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 1〉과, 〈묘법연화경 권 1~3〉 등 3건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문화재는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목판 인쇄술과 초기 한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꼽히는 것들이다.

특히 〈선종영가집 언해〉는 당나라 때 현각선사가 저술한 수행하는 10가지 방법을 우리 글로 번역한 조선 초기 목판본 책으로 세조가 토를 달고 신미스님이 한글로 번역했다.

신미 스님은 세종의 한글창제에도 도움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최근 연구되고 있다. 여기서는 세종의 뒤를 이은 세조의 현토에 신미스님이 한글번역을 해 조선전기 한글 변천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특히 〈선종영가집 언해〉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글자와 말을 그대로 담고 있다. 세조 때 설치한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간경도감본의 특징도 그대로 보여준다.

이와 함께 서울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감지금니묘법연화경〉은 검푸른 종이(감지)로 된 표지에 금가루를 사용해 〈묘법연화경권제일〉이라 쓴 고려시대 목판 불경이다.

묘법연화경은 국내외 다양하게 산재해 있지만 이 경은 부처님이 설법하는 그림인 변상도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됐다.

〈묘법연화경 권1~3〉은 보물 제1153호와 동일한 판본으로 현전하는 권책 수도 동일한 15세기에 새겨진 목판 불경이다. 일부 결락된 부분이 있지만 전해오는 책 가운데 이번 지정되는 책의 판본이 극히 드물어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들 3건은 소유자로부터 유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받아 사전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29일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심의에서 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유물들이다.

노덕현 기자

신라 최초 조각가 양지 스님은 동남아인?

강희정 서강대 교수, 작품 분석해 출신지 유추


2009년 사천왕사 특별전에 출품된 양지 스님의 녹유신장상. 전탑벽돌인 '탑상전'이다.

신라 최초의 조각승으로 평가받는 양지 스님의 출신을 둘러싼 학계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양지(良志)' 스님은 〈삼국유사〉에도 수차례 걸쳐 등장하는 선덕여왕 시기 활동한 조각승이다. 역사서에 이름과 행적을 남긴 예술가는 우륵, 솔거 등과 함께 손에 꼽을 정도다.

이런 양지 스님의 출신이 동남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희정 서강대 동아연구소 교수는 최근 발표한 〈양지의 남방도래인 가능성에 대하여〉 논문에서 양지 스님이 인도, 동남아 출신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양지 스님의 출신지에 대해서 학계는 논쟁을 벌여왔다. 90년대 경주 사천왕사지와 석장사지에서 양지 스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소조불상, 신장상 조각들이 잇따라 발굴되며 서역풍 묘사기법에 주목해 그가 서역에서 당을 거쳐 왔거나 백제계 장인일 것이라는 등의 설들을 제기해왔다.

강 교수는 기존 서역도래설이 당대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다는데 기반해 논지를 전개했다. 양지 스님의 활동 시기로 나오는 선덕왕 치세기(632~646년)의 서역과 당나라 정세는 왕래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불안정했으며 당이 토번(티벳), 위구르 등 서역 이민족과 큰 싸움을 거듭한 혼란기여서 안정적으로 교류할 여건이 아니었다는 분석이다.

중국에서 인도로 간 구법승려들도 7세기 해로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기록들이 전해지는 만큼 양지 스님의 새로운 조각 트렌드도 인도-동남아-중국남방 해로를 거쳐 유입됐을 개연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제작기법에서도 사천왕사지 출토 신장상과 석장사지 출토 전불 등 양지의 추정작들은 고운 흙을 빚어 틀로 찍어내면서 만들었다. 이런 제작법은 인도에서 기원해 중앙아시아, 동남아, 중국으로 전해진 것들이다.

강 교수는 "양지 스님의 작품이 서역풍으로만 고정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양지 스님의 작업을 돕기 위해 중생들이 염불, 보시 대신 흙을 나르는 공덕을 쌓은 것도 실천 공덕을 강조한 인도, 동남아의 초기 남전불교의 성격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강 교수는 양지 스님이 제작한 불탑 · 불상이 새겨진 전탑 벽돌인 탑상전에 주목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불교 유적에서는 탑과 불상을 새겨 공덕을 표현한 '봉헌판' 유물들이 종종 출토된다. 벽돌에 탑과 상을 같이 표현한 것은 형식은 달라도 인도 불교성지에서 출토되는 봉헌판 유물에 정형화되는 요소들이란 것이다. 강 교수는 "'모든 게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소멸한다'는 연기법의 내용을 탑과 불상 사이 새긴 석장사 탑상전의 구성 등도 동남아의 봉헌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짚었다.

한편, 양지 스님은 석장사, 영묘사, 사천왕사 등의 불상과 신장상, 전불 등을 만들었다. 특히 양지 스님의 작품들은 빼어난 사실적 묘사와 조형기법으로 신라의 미술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양지 스님이 베주머니 매단 지팡이만으로 백성들 집을 떠돌며 공양쌀을 거뒀고, 영묘사 장육존상을 만들며 신도들이 불상에 쓸 흙을 져나르며 '오라… 공덕닦으러 오라'는 '풍요'를 불렀다는 일화가 등장한다. 아직 생몰년은 물론, 고향과 신분 등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삼국유사 목판사업 본격 추진된다

〈삼국유사〉를 목판화하는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최근 전국 공개모집을 통해 삼국유사 목판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각수 8명을 최종 선발했다. 조선 중기 판본은 5개월간의 판각과정을 거쳐 올해 11월, 조선 초기 판본은 2016년, 경북도 교정본은 2017년에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삼국유사 목판사업은 경북도와 군위군이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주관한다. 현존 삼국유사 판본을 모델로 2017년까지 조선 중기 판본과 조선 초기 판본, 그리고 이를 집대성한 경북도 교정본을 각각 1세트씩 판각해 전통 방식으로 인출하는 사업이다.

인출된 책자는 대학,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보급해 삼국유사의 이해와 고대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판각된 3개의 목판 세트는 경북신도청과 군위군, 한국국학진흥원에 각각 보관돼 일반에 공개된다.

경상북도는 올해 발표되는 유교책판 64,226장의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추진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국보 제306호 삼국유사의 저자, 보각국사 일연선사는 1206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 포항-청도-달성-경주 등지를 거쳐 군위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집필하고 1289년 인각사에서 입적했다.

지난해 삼국유사 완역본을 펴낸 최광식 고려대 교수는 "몽고 침입 후 황룡사와 대장경이 소실된 극한의 상황에서 일연선사가 민족 문화유산을 남겨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삼국유사'를 저술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삼국유사의 가치를 평가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삼국유사는 민족의 보전(寶典)이자 역사의 보고(寶庫)이지만 13여 종의 판본만 남아있을 뿐"이라며 "경상도 개도 700년과 신도청 시대를 기념하기 위해 '삼국유사 목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7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7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7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단, 98만원에 법당의 앰프 + 대출력 스피커 + 구즈넥 탁상 마이크 등 최고급 신형 장비로 교체해 드립니다.

■ 기간 : 선착순 30개 사찰
■ 신청방법 : 계약금 30% 입금 후 휴대전화로 희망일자 및 주소, 사찰명을 정확히 문자로 보내주시면 예약 순서대로 설치 일자 및 방문 시간은 스님과 협의해 결정 합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고창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본 복원한다

최근 영인본 매입해 복원 작업 가시화… 목판인쇄 높은 가치





고창 선운사 총무 진성 스님이 영인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석씨원류〉 영인본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이후 서역 및 중국에서 불법이 전파된 사실을 기술한 〈석씨원류〉목판본의 원형복구에 나섰다.

〈석씨원류〉는 부처님의 일대기와 이후 서역과 중국에서 불법이 전파된 사실을 목각한 목판으로 성종 17년(1486)에 성종이 직접 주관해 간행됐지만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 이후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석씨원류〉 1질을 가지고 귀국해 인조 26년(1648)에 최서용, 해운법사 등이 다시금 간행한 것이다.

선운사 〈석씨원류〉는 조선 인조 26년(1648)에 새긴 가로 39㎝, 세로 29.5㎝의 목판본으로 원래 103매의 목판으로 판각되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절반가량이 망실되고 50매 100판의 원판과 별도의 2매 4판이 남아 있다. 높은 가치에도 일부만 남아 평가절하돼왔다.

선운사는 이를 복원하기 위해 석씨원류 영인본 권1~3을 매입하고 마지막 영인본인 권4를 확보하는 대로 원형 복원 불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운사의 〈석씨원류〉가 복원되면 목판인쇄사에 귀중한 자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선운사 〈석씨원류〉는 불암사 판보다 25년이나 앞서 있다.

목판인쇄사의 귀중한 자료
망실자료 많아 그동안 평가절하

선운사 〈석씨원류〉목판본 책의 편제는 글의 위쪽에 그림을 배치하여 아래쪽에 책의 본문이 새겨진 형태로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설판형(圖說版型)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목판인쇄사에서 새로운 편제의 도설판형(圖說版型)을 채택하여 방대한 양의 서책을 간행함으로써 판식과 판화의 역사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불암사판 등의 책이 왼쪽 면에 글을 싣고 오른쪽 면에 그림을 두어 한 항목이 2면을 차지한 양식에 비해, 한 항목의 도설(圖說)이 1면에서 모두 끝나게 하는 편제를 지니고 있다.

선운사 본은 편집내용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현종 14년(1673)에 경기도 불암사(佛巖寺)에서 새긴 〈석씨원류〉 목판이 현재까지 완질로 남아 있고 간행시기도 비슷하여, 유포 당시의 간행내력과 편집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선운사 경우스님은 "우리나라 목판인쇄사에서 새로운 편제의 도설판형(圖說版型)을 채택하여 방대한 양의 서책을 간행함으로써 판식과 판화의 역사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며 "안타깝게 원형 일부가 망실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는데 이번에 영인본을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복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불교계 평화의 소녀상 건립성금 전달

연등축제 등서 모금… 시민 추진위 "현재 1억여원 모여"

전북 불교계가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전주 풍남문 광장에 건립 예정인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전북 불교계가 적극 나서고 있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스님),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스님),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스님),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곽인순 외)등 전북지역의 주요 사찰들과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 사찰들은 6월 30일 그동안 모은 성금을 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공동대표 방용승)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선운사 100만 원, 금선암 100만 원, 참좋은우리절 200만 원, 전북불교네트워크 144만 원 등이다. 전북 불교계는 부처님 오신날과 연등축제 행사에 각각 모금 활동을 펼쳐 성금을 마련했다.

전북불교네트워크 산하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 4기 단원들도 직접 거리모금활동을 펼쳐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힘을 보탰다.

전주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생명평화 결사운동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소녀상 건립의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추진하는 평화의 소녀상건립 운동에 늦게나마 동참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승용 공동대표는 "일본의 적극적인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았던 우리 모두도 공범이며 과거의 역사를 잊으면 아픈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며 "불교계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성금'은 오는 8월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건립될 '평화의 소녀상'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며 시민추진위는 6월 30일 현재 목표인 5천만 원을 넘어 1억 300만 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계 네팔돕기 9200여만원 지원

7월 6일 네팔 고르카와 신두발촉지역 방문해 전달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 상임이사 혜공)는 6월 28일 비전사에서 5월부터 모금한 9200여만원을 네팔 지진 피해 지역에 전달했다.

이번에 모금한 금액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광주지역 사찰, 불교단체, 광주전남불교NGO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다. 각 사찰과 단체에서 모금한 금액을 빛고을나눔나무를 통해 기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부 금액은 지정기탁으로 전달하고 나머지는 직접 지원에 나섰다.

모금행사는 광주 불교계 처음으로 단일 창구를 이용한 공동모금인 의미도 있다.

빛고을나눔나무 이사장 연광스님(증심사 주지)은 이번 지원에 대해 "지진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네팔 국민들을 위해 광주지역 많은 불자들이 정성을 모아주셨다"며, "작은 힘이나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소중한 복전(福田)이 되었으면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문영배 빛고을나눔나무 기획팀장은 "네팔의 현지상황에 맞게 긴급구조의 상황이 마무리되고 있어서, 피해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원이 진행된다"고 말하며, "우기(雨期)를 앞둔 네팔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보수작업에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체 모금한 금액은 광주조계종승보회, 광주비구니회, 백양사, 한마음선원광주지원, 증심사, 법림사 등 사찰을 비롯해 빛고을나눔나무, 자비신행회, 광주전남불교NGO연대, 광주외국인복지센터 등이 참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광주 평동공단에서 근무하는 네팔인 프라카스(36. 한국생활 3년차)씨는 "고향에는 부모님과 아내가 살고 있으나, 이번 지진피해로 집이 파손이 되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제가 사는 마을 주민들의 피해 복구의 길이 열렸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지원은 지정기탁과 직접지원 2가지 형태로 지원된다. 지정기탁은 단체에서 기부 금액을 네팔에서 구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름다운동행, 더프라미스, 네팔 고아원 등을 통해 네팔에 전달되며, 직접지원은 광주지역 불교단체와 공동으로 7월 6일 네팔 고르카와 신두발촉지역을 방문해 피해가구에 임시주거시설과 학교시설 보수지원금으로 전달됐다.

특히 이 두 지역은 광주에 근무하는 일부 네팔인들의 고향으로 이번 지진을 통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유니버시아드 성공개최 바라옵니다

용문사 신도들이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3000배 정진을 개최했다. 무등산 두암동 용문사(주지 성종)는 6월 30일부터 1박 2일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기원을 위한 3000배 철야정진을 개최했다. 이날 기도에는 신도 30여명이 동참했다. 성종 스님은 법문을 통해 "광주에서 가장 큰 국제규모 대학생들의 올림픽"이라며 "이번 행사는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큰 행사로 신도들의 정성을 모아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양선행 광주전남지사장

서산 아라메길 친환경 트레킹 코스로 '인기'

서산의 도보 여행길인 아라메길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5개 코스, 2개 지선 총길이 88km로 조성됐다. 경사도가 완만한 낮은 평지 위주로 산책탐방로가 조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걸을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제1코스다. '백제의 미소' 로 불리는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국보 제84호)을 비롯해, 보원사지, 개심사, 해미읍성 등의 다양한 문화유적을 만나볼 수 있다.

김정겸 서산시 문화관광과장은 "아늑함과 포근함이 담긴 친환경 체험길로 입소문이 나면서 아라메길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관광객 편의를 위해 구간별로 시설물을 보완하는 등 아라메길을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군산 정안사, 주민 위한 약수터 조성



군산 정안사(주지 정안스님)가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들을 위해 우물과 약수터를 조성하고 6월 26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인근 대위마을 밭작물 재배농가는 물론 청암산을 찾는 시민들이 물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다못한 정안스님이 우물과 약수터를 조성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안정(淨安井)이라 이름붙여진 이 약수터는 인근 주말 농장을 찾는 시민들에게도 감로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정안사가 자리잡고 있는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는 전투에서 희생된 병사들의 넋을 기리는 절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정안 스님은 "인근 농가나 운동을 위해 찾는 분들을 위해 약수터를 조성했다" 며 "수질검사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중고, 이경옥 前 안행부 차관 초청 특강

전북 김제 동국대사범대학부속 금산중·고등학교(학교장 조영석)는 6월 30일 이경옥 전 행정자치부 제 2차관을 초청해 명사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이 전 차관은 '내 인생의 디딤돌과 걸림돌' 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세월호 참사시 안전행정부 차관으로 모든 구조역량을 동원하였지만 너무나 어려웠다"고 당시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 전 차관은 학생들에게 40여전 학창시절을 회고하며 "학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양한 인생에서 어떠한 환경을 딛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사로 나선 이경옥 前 차관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국가기록원장, 안전행정부 차관보, 안행보 제 2차관 등의 공직생활을 거쳤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자리한 금산중, 고등학교는 전라북도교육청 선정 혁신학교로서 현재 지역사회 농촌작은문화교실을 운영하면서 학생연극, 바이올린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금교실과 기타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7월 15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봉사행으로 부처님 법향 시방세계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6월 28일 한마음 봉사단 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6월 28일 정기법회에서 ‘한마음봉사단’ 창단식을 봉행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봉사 실천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실천함으로서 부처님의 법향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봉사단이 창단돼 화제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6월 28일 정기법회에서 ‘한마음봉사단’ 창단식을 봉행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포교와 봉사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더욱 봉사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창단식을 가졌다.

창단식은 창단 발원문, 임명장 수여, 봉사단장 인사말, 지원장 스님 격려사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한마음선원 사부대중 350여명이 참가했다.

지원장 혜도 스님은 격려사에서 “부처님과 대행 큰스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 안에 이미 갖춰진 마음법의 무한 능력을 일깨울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충실한 한마음봉사단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희 봉사단장도 인사말을 통해 “봉사하며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내 자신의 모습으로 보겠다”며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밝고 평화롭기를 마음 내며 봉사단에 함께 하시는 여러 도반님들과 물러서지 않는 정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마음봉사단 청년팀 설해인 법우는 발원문에서 “저희 한마음봉사단 모두는 행을 통해 준다는 생각 없이 봉사하며 너와 나를 둘로 보지 않고 상대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임을 알아 모두에게 이익 되는 진정한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마음 봉사단은 창단식 바로 다음 날인 6월 29일 영도노인복지관, 천마재활원을 비롯한 8곳의 복지관을 방문하고 한방 비누 1700개를 전달하는 등 활동을 시작했다.

봉사의지 다지고자 창단식 봉행
각 신행단체 및 어린이회까지 합심
음성 공양, 군부대지원 등도 펼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이 한마음봉사단 이영희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장면.

봉사단과 함께하게 된 송선화 씨는 “평소 봉사는 하고 싶었지만 소속된 단체가 없어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봉사를 위해 방문한 장애인 센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도 받고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등 봉사를 통해 새롭게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현재 한마음봉사단은 단장을 중심으로 각 팀별 팀장과 총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축했다. 또한 각 팀은 봉사 활동을 재능에 따라 전문적으로 나누는 등 효율성을 더했다. 각 팀은 거사 중심 문수팀, 보살들로 구성된 보현팀,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 까지 빠짐 없이 참가한다. 그 외 템플스테이를 보조할 템플스테이봉사팀, 군부대 봉사팀도 함께해 포교를 위해 큰 도움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한마음 봉사단에 직접 참여 하지 못하는 신도들을 위해 후원회를 결성해 동참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

앞으로 한마음 봉사단은 7월에 봉사단 교육을 받고 영도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에 정식 등록한다. 이어 기존에 해왔던 봉사활동을 지속하며 구청 및 관공서와 연계해 봉사 지역 활동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히 학생팀, 어린이팀은 선법합창단을 중심으로 노인 복지관, 요양보호기관 등을 방문하고 선법가 음성 공양 공연도 펼친다. 또한 초, 중, 고, 대학생의 경우는 봉사 점수를 인정받아 학교 내 활동에 구체적인 도움을 제시하며 일반인의 경우 봉사 마일리지가 누적되는 특혜도 받는다. **하성미 기자**

부처님 도량에서 펼쳐진 수국 향연

태종사, 6월 27일~7월5일 수국축제


6월 27일~7월 5일 동안 ‘제11회 수국꽃 문화축제’가 부산 영도 태종사 경내에서 개최됐다.

형형색색으로 피어난 수국의 꽃망울이 부산 태종대 앞 바다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장관을 연출했다. 6월 27일~7월 5일 동안 ‘제11회 수국꽃 문화축제’가 부산 영도 태종사 경내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6월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주말을 이용해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 6월 28일, 7월 4일~5일 어린이 한복쇼, 초대가수 초청, 민요, 국악 등 다양한 축하무대를 마련했다. 또한 부처님 진신사리와 1983년 스리랑카 국무장관으로부터 선물받은 보리수, 2010년 그리스 국립박물관장에게 기증받은 올리브 나무 등을 직접 볼 수 있어 태종사를 찾은 불자들에게 큰 환희심을 안겨줬다.

현재 태종사 경내에는 네덜란드, 중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온 30여 종의 수국 5천그루가 만개했으며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뽐내고 있다.

대부분 40여년 동안 태종사에서 직접 가꾼 꽃으로 여름 장마철에 만개하는 특성에 맞춰 매년 이맘 때 축제가 개최된다.

흙의 산도에 따라 꽃 색깔이 달라져 ‘살아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불리는 수국은 색깔이 칠면조처럼 바뀌어서 칠면화(七面花)라고 불리기도 한다.

2006년 이후 해마다 1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태종사 수국축제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7호인 태종대의 절경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경으로 부산의 대표적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반음지 식물인 수국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태종대와 생태학적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식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성미 기자**

“안거 수행 점검, 더욱 힘모아 정진”

7월 13일 조계종부산연합회 반결재

하안거 재가안거를 통해 수행정진하고 있는 불자들을 위해 수행 점검은 물론 수행방법 공유, 경험 나누기 등을 위한 반결재가 개최된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7월 13일 오후2시 동명대 세계선센터에서 ‘하안거 재가안거 반결재’를 진행하고 그동안의 수행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날 참가자들은 각기 수행법에 따라 참선, 다라니, 사경, 기도 등 수행 모둠에 나눠 참가하며 각 모둠에는 2명의 스님이 함께 참여해 점검하고 도움을 줄 방침이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재가불자들의 신심증장과 수행풍토조성을 위해 재가안거 수행을 실시하고 있다”며 “반결재는 수행경험과 수행과정 중에 느꼈던 마음을 공유함으로써 도반들과 친밀감을 쌓고 수행의 결의를 높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참가를 독려했다.

현재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에는 해인정사, 선암사, 영주암, 관음사, 가야사 등 18곳의 조계종 사찰 신도 외 개인적으로 참가한 불자까지 2,000여 재가자들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051)501-7554 **하성미 기자**

“목련존자의 효심 이어갑니다”

부산 경남 우란분절 맞아 행사 이어져

목련존자의 극진한 효심에서 비롯된 우란분절이 다가온다. 우란분절을 맞아 부산 경남에 있는 사찰들이 선망부모의 왕생극락과 현생정토를 발원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7월 12일 오전 9시 30분 입재를 시작으로 8월 23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우란분절 법회를 봉행한다. 회향은 8월 28일 오전 10시다.

통도사는 “백중을 맞아 49일간 대덕 스님을 모시고 정토를 발현하는 환희로운 법석을 마련한다”며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055)382-7182

홍법사(주지 심산)도 우란분절을 맞아 49일 기도를 봉행한다. 7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입재를 시작으로 7월 15일~8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며 오전 10시에 봉행한다.

회향은 8월 28일 오전 10시다. 홍법사는 “매 재일 마다 제방의 큰 스님을 모시고 특별 법석을 마련한다”며 “참가자들이 백중기도 동안 법석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51)508-0345

부산 동명불원(주지 화랑)에서도 우란분절을 맞아 49일 기도를 봉행한다. 동명불원은 7월 11일 입재를 시작으로 7월 17일~8월 28일 동안 매주 금요일 108배 · 독송 · 주지 스님 법문 등이 진행된다.

동명불원 등 49일 기도 입재
통도사 · 홍법사 법석도 마련

시간은 오전 9시 30분 108배 참회로 시작해 오전 10시 천수경 및 아미타 경, 지장경을 독경하며 이어 오전 11시 30분부터는 법문을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동명불원측은 “우란분절은 목련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날”이라며 “선망부모와 과거 7대 선망부모까지 천도하는 법회에 참가하는 복된 인연을 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51)626-4337

경남 양산 정종사(주지 여해)도 백중을 맞아 49일 동안 천도재를 봉행한다. 7월 11일 입재를 시작으로 7월 19~8월 23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되며 마지막 회향은 백중일인 8월 28일이다.

49일 동안 매일 사시기도 후 극락전에서는 아미타경 독송과 염불을 진행한다.

주지 여해 스님은 “백중 49일 동안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불자님들이 참가하길 바라며 정종사에서도 목련존자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할 것이다”며 참가를 독려했다. (055)366-6867 **하성미 기자**

청도 이서중고 호국영령 위령대재

무일학원 청도이서중고등학교가 6월 25일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거행했다. 이 위령재는 한국전쟁 당시 3학년 학생으로 군에 입대해 순국한 4명의 혼을 달래기 위해 실시되었다.

행사는 천도재 및 위령재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정신을 되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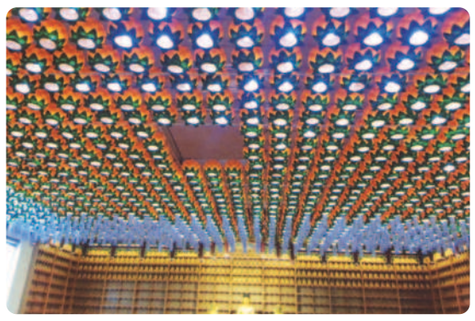
이 자리에는 한국전쟁 참전 학도병인 이태희 님과 박재욱 님, 50사단 박재봉 군법사(대위)를 비롯해 이서중고등학교 재학생 200여명과 총동창회원 등이 참석했다.

무일학원 이사장 수진 스님(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주지)은 “오늘 위령재로 어린 나이에 전장의 이슬로 사라진 호국영령들의 혼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리는 바이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를 생각해보고 통일안보 교육의 장이 되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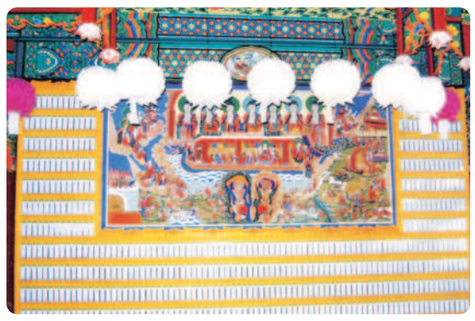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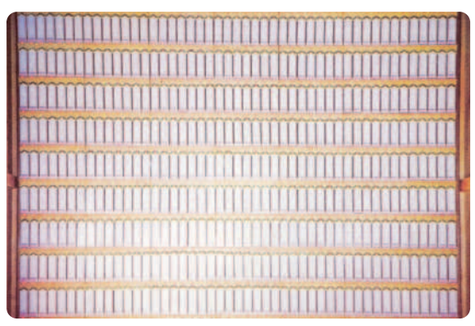

원주 보문사 대법당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장흥 보림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숯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연 등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

‘마음 산 · 골짜기’ 서 스승을 만나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⑦ 마음 동네를 찾아서



그림 · 최주현

나무꾼 의젓하게 스승 계신 곳 가리킨다.
여기서 저쪽으로 7~80리 가면
‘신령스런 누대, 사방 한치 산(靈臺方寸山)’ 이라는 산이 있고,
그 속에 ‘기운 달에 삼형제 별 뜬 골짜기(斜月三星洞)’ 가 있어.
바로 거기서 신선 한 분이 제자들 가르치고 계신다네.
후아, 이름도 이상한 곳에 사시네요.
동네 이름처럼 이상한 분은 아니겠지?

이번은 확실히 잘 찾은 모양일세
어떤 수행자가 올 것이니 마중가라 하셨다며
기상도 맑은 동자가 나와 있구나.
이끄는 데로 따라가 스승 뵈오니
풍모도 멋있어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완연한 신선도사
한번 뵈오니 저절로 엎드려진다.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온다.
“사부님! 사부님!”

스승도 기분이 좋다.
원숭이 닮은 놈이지만,
도를 구하는 정성이 눈에 보인다.
흠, 기특하구나.
그래도 어디서 온 누군지, 신상명세를 밝혀 보아라!
뭐라구? 바다를 두 개나 건너왔다구?
돌에서 태어나 성도 이름도 없다구?
어허! 하늘, 땅의 정기를 받은 놈이로구나.
그래 그럼 내가 성과 이름을 주마.
원숭이 닮았으니 손([원숭이 손]자에서
짐승을 뜻하는 옆부분 떼고 손(孫)씨로 하고
내 문하제자 항렬 돌림자에 따라
가운데는 오(悟)자로 하여
이름은 오공(悟空)이라 하거라.

좋아라! 좋아라!
천지를 부모로 삼은 이몸
성도 없고 이름도 없더니
최고의 진리, 공(空)을 깨닫는다는
앞날을 점지하는 듯한 이름을 얻었네.
기쁨에 가득 찬 원숭이 왕,
이제는 이름도 어엿한 손오공!
기쁨이 큰 만큼 각오도 새롭구나.

안녕하세요?

저번 회에 소개드렸던 제 좌우명,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은 오늘하지 말자’ 에 감명받으신 분은 설마 없으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룰 때는 기분 좋지만, 미뤘던 내일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 아시죠? 지금 제가 미뤘던 ‘손오공이 기가막혀’ 원고 쓰느라 진땀흘리고 있는 것이 그 살아있는 예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저기서 진땀 흘리며 달려오는 건 또 누군가요? 진짜 신선 도사 찾아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원숭이 왕이군요. ‘신령스런 누대, 사방 한치의 산’ 속에 있는 ‘기운 달에 삼형제 별 뜬 골짜기’ 찾아 가고 있습니다.

‘신령스런 누대, 사방 한치의 산’ 이라는 것과 ‘기운 달에 삼형제 별 뜬 골짜기’ 모두가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령스런 누대’ 라는 말은 마음이 신령하여 모든 일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오래 전에 이 말은 쓴 기록을 찾아 보니 〈장자(莊子)〉라는 책의 ‘경상초’ 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방 한치’ 라는 말도 우리 마음이 우리 가슴의 좁은 곳에 머무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방촌’ (方寸) ‘이라는 말로 마음을 가리키곤 한 예들이 고전에 많이 나옵니다. 저 역시도 “사방 한치 되는 사이에서 선과 악이 다툰다”는 식의 표현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꾼이 말한 스승 있는 곳
‘靈臺方寸山, 斜月三星洞’
모두 자신의 마음자리 의미해

스승 찾아 마음 골짜기에 이르니
동자 한 명이 원숭이 왕 인도한다

다음으로 ‘기운 달에 삼형제 별 뜬 골짜기’ 라는 말은 심(心)자를 깨뜨려서 풀어놓은 것입니다. ‘마음 심(心)’ 자를 연상해보세요. 점 세 개는 삼형제 별이구요. 비스듬하게 굽어서 삐친 획은 바로 기운 달의 모습이죠? 이런 것을 ‘글자를 깨뜨린다(破字)’ 고 합니다.

이 ‘마음 심’ 자의 경우는 좀 특별히 글자의 모양만을 깨뜨려 본 것이고요. 한자는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를 지닌 글자들을 두 개, 세 개 모아서 다시 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글자를 깨뜨려서 의미를 풀기도 하고, 다른 재미있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을 호(好)’ 자를 깨뜨려 보면 ‘계집 여(女)’ 자와 ‘아들 자(子)’ 자가 합쳐진 것이지요? 그렇게 깨뜨려 보아서 ‘좋을 호’ 자의 의미를 “여자가 아들을 안고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때다”라고 푸는 거죠. 비슷하게 ‘편할 안(安)’ 자는 “여자는 집에 들어 앉아 있어야 편안하다”고 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자를 깨뜨려 의미를 푸는 파자와는 반대로, 각각 의미를 가진 글자를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도 있겠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 개인과는 관계없는 철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역(周易)〉의 괘를 보세요. 음(陰)사이에 양(陽)이 끼어있는 괘는 ☵감(坎)괘죠. 그런데 이 괘는 자연 속에서는 물(水)에 해당하고 험난함, 어려움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반대로 양 사이에 음이 끼인 괘는 ☲이(離)괘 인데 이 괘는 불[火]에 해당하며 빛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세요. 동양 최고의 고전인 〈주역〉에서도 여자 사이에 낀 남자는 어렵고 험난함을 겪는다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남자 사이에 끼인 여자는 빛나구요. 남자 사이에 있는 여자를 홍일점(紅一點)이라고 하는 것도 빛난다는 뜻을 지니고 있지요. 반대로 여자 사이에 끼인 남자를 빛난다고 표현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보아서도 제 주장이 틀림 없습니다.

실제 ‘女+男+女’ 라는 글자는 장난으로 요즈음 만들어진 글자가 아닙니다. 자전에 보면 ‘계집이 사내 희롱할 요’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남자는 여자에게 놀림을 당하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나요? 그런데 반대의 글자도 원래 있어요. ‘男+女+男’ 는 ‘사내가 계집 희롱할 요’ 자입니다. 잘 아셨죠? 제 이야기 듣다보면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 하나 둘씩은 반드시 듣게 마련입니다.

‘마음 심’ 자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나갔군요. 하여튼 ‘신령스런 누대 사방 한치 산’ 의 ‘기운 달에 삼형제 별 뜬 골짜기’ 는 결국 ‘마음 산’ 의 ‘마음 골짜기’ 라는 뜻이 되네요. 결국 천고의 비밀은 마음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결국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는 말을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거나, 모든 것과 독립된 불변의 실체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마음은 물질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것이며, 독립적으로 있지도 않고 세상의 모습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제를 모른 척하고 오직 마음만 잘 먹으면 된다는 방식은 참 위험하죠. 경제적인 문제 등 실제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마음먹기 달렸어”하고 말하는 것은 참 무책임한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 문제 눈감고 마치 최면술을 걸 듯이 마음을 마비시키는 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일으키는 출발점은 언제나 마음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또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우선 이해하고 넘어 가기로 해요.

아무튼 원숭이 왕, 나무꾼에게 들었던 대로, 영특하게도 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구나 싶은 곳에 도착하니 기상도 맑은 동자가 마중을 하네요. 원숭이 왕은 점잖게 스승이 계시냐고 물었고, 동자는 “스승님은 출타 중이십니다” 대답하는 광경, 그 모습을 읊은 시가 있네요.

松下問童子 소나무 아래 동자에게 물으니
言師採藥去 스승은 약을 캐러 가셨다네.
只在此山中 이 산 속에 계시기는 하지만
雲深不知處 구름이 깊어 계신 곳 알 수 없다네.
***이 시는 가도(賈島)라는 시인의 ‘은자를 찾아 갔으나 만나지 못하다’ (尋隱者不遇)라는 시입니다.**

본래 이야기에서도 동자가 미리 스승의 명을 받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신통한 것을 보니 스승이 도사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원숭이 왕이 보통 원숭이가 아닌 것도 틀림없으니, 비보통(非普通) 스승과 비보통 제자의 만남! 이 정도의 무대 장치는 기본이겠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무대장치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정도의 예지력은 기본사항이 아닐까 싶기도 하군요. 자신에 대한 집착과 물욕을 벗어난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이치가 드러나고, 그 이치에 따르는 만물의 변화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존재에 대해 감응을 일으키고, 그런 존재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것도 아주 자연스런 일상적인 반응이 아닐까 싶고요.

물론 그런 초능력 자체를 욕심내서 구하려 한다면, 그건 어떤 남이 갖지 못한 물건을 탐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탐심일 겁니다. 그런 탐심으로 구해 얻는 초능력은 존경할 필요도 없고, 그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인격적으로 위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가 초능력 없으니까 괜히 초능력 무시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래뵈도 EBS에서 〈주역〉을 강의한 사람입니다. 〈주역〉이 미래를 점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래 뵈도 상당한 예지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백년 안으로 죽을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지하고 있죠. 하하. 다음에 뵙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전시리즈 ⑫

뭇 생명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

서문

‘천수경’과 ‘42수 진언’ 그리고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수행‘보살행’성불의 세 단계를 차례로 담은 글입니다.

먼저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수행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되고자 공부하며 수양하면서도 세상을 구제하심에 몸을 아끼지 않았던 과거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경전이 ‘천수경’입니다. 초지보살 시절의 관세음보살님께서 ‘천수경’을 독송하시다가, 그분들의 영험하신 보살행에 감동하시고, 나도 그분들처럼 세상의 어려움을 밝게 살펴 구제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자, 순식간에 8지보살의 단계로 초월하셨고 몸에서는 천 개의 손이 나왔는데, 각 손바닥에 눈이 하나씩 달려서 ‘천수 천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눈과 두 손으로는 세상의 어려움을 다 구제하기 어려우므로,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경문을 ‘천수경’ 또는 ‘천수천안 대다라니’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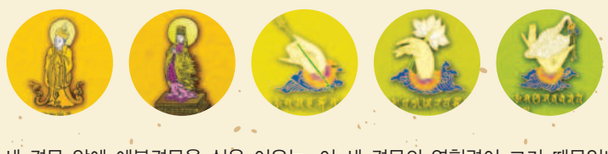
또 ‘42수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보살행이 담겨있습니다. 42개의 손 모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서원한 진언이 ‘42수 진언’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줄탁동시가 효과적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될 때, 안에서 어미닭을 보고 “엄마! 나 나갈께요.”하고 알의 안쪽을 톡톡치면, 어미닭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밖에서 알의 껍질을 콕콕하고 쪼아주어야 예쁜 병아리가 쉽게 세상에 나옵니다. 어미가 성급하게 쪼으면 부화될 준비가 덜된 병아리가 다치기 쉽고, 너무 느리면 알 안에서 지쳐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병아리와 어미닭이 동시에 톡톡 · 콕콕하고 쪼아야 새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정성스럽게 참회하며 기도하면서 깨우치고자 하면, 부처님보살님께서 보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손으로 어루만지고 눈으로 살피시며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성불이 담겨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은 관자재보살입니다. 중생을 관찰하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보살행을 할 때, 언제 어디든 찾아가 구제한다고 해서 자유자재한 보살 즉 관자재보살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두가 이 ‘반야심경’을 읽고 성불해서 피안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 세 경전의 글은 모두 관세음보살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에서 깨어나 피안으로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이 세 개의 경문이 어미닭이 되어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천수경, 42수진언,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 가르침의 정수이다.
주머니 속에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움을
느끼고 또 느껴보자!



세 경문 앞에 예불경문을 실은 이유는, 이 세 경문의 영험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게 있다가 이 세 경전을 음송(소리내서 읽음)하는 영역에 잘못 들어오면 빠져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영역 안에 들어온 작은 신 또는 생명체가 세 경문의 힘에 눌려서 당황하고, 또 그 영혼이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원망을 만들어 새로운 악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경문을 독송하기 전에 예불경문을 먼저 독송함으로써, 스스로 선택하고 빠져나갈 시간을 주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특히 ‘천수경’과 ‘42수 진언’은 그림을 넣어서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당나라 황실에서 비단에 오색금실로 글과 그림을 수놓아서 남긴 이 ‘천수경’과 ‘42수 진언’은 정말 귀중한 자료이고, 또 관세음보살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구해보기 힘든 자료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한 송이 연꽃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는 ‘천수경’과 ‘42수 진언’을 보면, 과연 부처님의 참 진리는 만고에 빛나는 생명수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감동하신 ‘천수경’과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만든 ‘42수 진언’, 그리고 ‘반야심경’을 지성으로 음송하시고 다른 중생께도 전파하시어서, 그 공덕으로 더욱더 많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담아 이 세 경문을 음송하십시오. 한 번을 음송하면 한 번 돌아보시고, 열 번을 음송하면 열 번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천 번 만 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음송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께 그 힘을 나누어 주시고, 이 책도 나누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염원을 담아 열 번을 독송했다면 둘이 하면 스무 번이 됩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세상을 살다가, 모두가 염원하는 극락정토로 가서 사시기를 바라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수 덕 사 덕숭총림 방장 **송원 설정**

대유학당 | 설정스님 | 값 10,000원 |
192쪽 | 가로 9.5㎝ × 세로 15.5㎝

주문처 02)2249-5630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自燈明 法燈明', 당신이 곧 부처이니…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9. 근본불교의 기본적 성격 ㊦

법 아래 평등하다는 것

붓다는 병고를 참고 견디면서 겨우 원기를 회복할 수가 있었다. 그때 아난다(아난)는 이 스승에게 절을 한 다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세존께서 전에 병이 심했을 때 저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며 사방이 캄캄해진 듯한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세존께서 무엇인가를 비구승가(僧家)에 관해서 말씀하는 일이 없이 세상을 떠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때 어느 정도 마음의 안도를 느꼈습니다."

이 말의 뜻을 헤아려 보자. 아난다가 이해한 바에 의한다면 이 스승은 지금 현재 이 교단(敎團)의 지도자이다. 그가 세상을 떠난다면 반드시 다음 지도자에 대한 지명(指名)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말이 없기 때문에 최후의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붓다의 생각은 달랐다.

"진실로 아난다여, 만일 내가 나는 비구승가의 지도라든가, 비구 승가는 나에게 의지하고 있다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최후를 맞이해서 비구승가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그러나 아난다여, 나는 이 비구승가의 지도자도 아니며 또 비구 승가는 나에게 의지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나는 최후에 있어서도 비구승가에 관해서 말할 아무것도 없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불교승가에 있어서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서로 선지식(善知識)(착한 벗)이며 평등하며 화합하는 단체가 되어 서로 도우며 격려하는 것을 그 근본정신으로 한다. 따라서 거기에는 지배하는 자도 없으며 지배 받는 자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법 아래 있으면서 평등하다. 붓다도 또한 본래는 이러한 평등 · 화합한 단체의 한 사람의 단원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붓다의 후계자로서 어떤 사람이 지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필요 없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교단에 있어서 붓다의 지위는, 역시, 어떤 특별한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한 일은 아니다. 이 길은 바로 붓다라는 스승에 의해서 깨달아졌으며 설명되었으며, 사람들은 이 스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으며 인도되어 여기에 몸을 던진 것이다. 몸을 던진 후에도 언제나 이 스승을 우러러보며 법을 근본으로 하며 규범으로 하며 의처(依處)로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 직제자(直弟子)들이 여기에 그 길의 주(主)가 있으며 지도자가 있었다고 생각한다해도 그것은 결코 도리에 어긋난 것은 아니리라. 그러나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하며 이 길의 본래의 모습을 더듬어 보면, 그것은 법을 근본으로 하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앞세우는 길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붓다는 지금 아난다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자기의 주인은 자기 뿐

그 두 번째에는, 이 길은 법 아래서 모든 사람이 자주(自主)이여야 한다는 발언(發言)이었다. 앞에서 말한 것에 관해서 붓다는 다시 또 아난다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아난다여, 진실로, 이 시각에 있어서도, 또 내가 죽은 후에 있어서도 스스로를 주(洲)로 하며, 스스로를 의소(依所)로 하며, 다른 사람을 의소로 하는 일없이 또 법을 주(洲)로 하며 법을 의소로 하며, 다른 것을 의소로 하지 않으면서 수행(修行)하려는 사람이야 말로, 아난다여, 그러한 사람은 내 비구들 가운데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이와 같은 언급은 이미 앞에서도 말한 것이지만 아무리 강조하여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말하자면 불교에 있어서는 매우 기본적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다.

세상에는 종교를 신(神)에게 매어달리는 인간의 길이라고도 한다. 신앙(信仰)이란 이러한 길에서 인간이 신(神)에게 절대적으로 빙의(憑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제 붓다에 의해서 시작된 이 길에 있어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의지할 의처(依處)는 없다. 이런 뜻에서 이 길은 무엇에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주(自主)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 유명한 〈법구경(法句經)〉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자기의 의소는 자기 뿐이니라.
> 다른 것에 무슨 의소가 있겠는가.
> 자기가 능히 조어(調御)되었을 때
>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의소를 얻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앞에서 붓다의 말씀처럼 진실로 의지할 것은 다만 자기와 그리고 법 뿐이라는 뜻이 된다.

자기 형성의 의지처(依支處)

이것을 다시 오늘날의 이해(理解)에 알맞도록 설명한다면, 이 길은 철두철미(徹頭徹尾) 인간의 자기 형성의 길로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생각건대 이 길에 있어서 간구(懇求)되는 것은 신(神) 앞에 머리를 숙이며 죄를 용서 받으며 구원 받는 것은 아니다. 또 신의 은총에 의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다. 하물며 노력하지 않으면서 재물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며, 또 공로 없이 영예(榮譽)가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이 길에 있어서 간곡히 추구되는 단 하나의 길은 앞에서 〈법구경〉의 표현으로서 말한다면 잘 조어(調御)된 자기의 확립(確立)이다. 이것을 현대용어로 말하면 인간의 훌륭한 자기 형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자기를 형성하여야 하는가. 그 이상상(理想像)은 곧 붓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자기를 이러한 경지에까지 이르도록 할 수 있는가. 그 이론과 실천은 여러 방편(方便)으로 이 스승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더욱이 이 스승은 이미 그 이상(理想)의 인간상을 자기 한 몸에 구현(具現)하면서 "그대들도 오라"고 손짓하고 있다. 만일 이 길을 구현(具現)하는 이론에 관해서 또는 실천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긴다면, 이 스승은 언제나 간곡하고 명쾌한 해답을 주었던 것이다. 그것이 이 스승의 제자들간에 처(處)해 있었던 상황(狀況)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스승은 얼마 후에는 임종(臨終)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한 아난다는, 슬픔과 함께 당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처소에 가서 문빗장을 잡으면서 서럽게 눈물 흘리며 울었다.

그가 황급히 스승 앞에 다가갔을 때 스승은 그를 돌아다보면서, 먼저 오랫동안 시자(侍者)로서의 노고(勞苦)를 치하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아난다여, 혹시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의 스승의 말씀은 이제 끝났다. 이제 이미 우리에게는 스승이 없다' 라고. 그러나 아난다여, 나에 의해서 설교된 교법과 계율(戒律)은 내가 간 후에도 너희들의 스승이 되리라."

이것도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 멸후(滅後)의 불교의 모습에 관한 중대한 발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군산 동국사로 환수된 조선시대 가로불화 '쌍림열반도'.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 모습과 설법을 담고 있다. 부처님은 마지막 자신의 의지처는 곧 자신이며 법에 의지해 수행할 것을 유훈으로 담겼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연기 법칙과 무아사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책을 경전이라 한다. 그 숱한 경전에는 두 가지 핵심 사상이 담겨 있다.

앞 부분에서 밝혔듯이 한쪽 수레바퀴는 중도사상(中道思想)이요, 다른 쪽 수레바퀴는 연기 법칙(緣起法則)이다. 여기서는 연기 법칙을 설명하려 한다.

우선, 연기에 대한 '상응부 경전' 에 있는 말씀부터 옮겨 보겠다.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멸하므로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

이렇듯 연기의 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물에는 조건으로 인한 존재가 있을 뿐이다.

존재의 소멸도 조건으로 인한 없어짐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은 어떤 조건으로 인해 발생도 하고 소멸도 하는 것이므로 불교에는 절대적인 존재, 불변의 영원한 것은 있을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존재하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이다.

우, 그 어디에도 영원불변하는 나는 본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원한 무한한 불변의 내가 없는데 영혼인들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주체로서 영원한 내가 없는 데 그 무엇이 있어 윤회(輪廻)를 거듭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연기 법칙은 무아사상(無我思想)과 둘이 아닌 것이다. 연기를 알면 무아를 알고, 무아를 알면 불교를 바르게 보는 것이다.

깊게 깊게 관조(觀照)할진저. 앎(知)과 봄(見)이 분명할 진저.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 위치는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 그려진 지도에는 한국은 극동(極東), 동쪽의 끝자리로 되어 있다. 중국 지도에서는 해동(海東), 바다의 동쪽 나라로 칭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는 둥글다. 그러므로 변두리도 없고 중앙도 없는 것이다.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고 있을 뿐이다.

연기 · 무아 알아야 불교 바르게 이해
중심은 곧 나, 동쪽도 서쪽도 없다

신(神) 따위나 절대자의 천지창조 따위는 있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다. 나를 비롯해 우주의 형성도 존재도, 조건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모일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기적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원인을 알고 보면 돌연변이의 법칙도 의미를 잃고 마는 것이다.

우연은 없고 필연적인 모임과 흩어짐이 있을 뿐이다. 연기(緣起)의 원리에서는 우주를 주재하는 절대적인 '브라흐만' 도 인정할 수 없듯이 나를 주재한다는 영원불변한다는 '아트만' 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존재와 사물은 상의성(相依性)의 조건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뿐 완전한 독립체, 영원불변하는 존재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연기의 법칙에서는 불변의 영원한 나를 인정할 수도, 인정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본래 없는 것이다.

눈, 귀, 코, 입, 몸, 의식 등이 어우러져 활동할 때 그 집합체, 통일체로서의 나는 있지만 눈, 귀, 코, 입, 몸, 의식(세포와 신경, 뇌 작용 등) 등이 흩어질 경우, 그 나는 없는 것이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호메트' 의 고향을 메카(Mecca)라고 부른다. 지구의 배꼽이라는 뜻이다. 배꼽은 생명줄이자, 어머니와의 연결고리이며 신체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中國)은 이름 그대로 세계의 중앙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 하여 중원문화하면 곧 중국 문화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세 사람이 서 있다고 치자. 셋 중 한 명은 중앙에 서 있는 것이 되고 둘은 변두리에 서 있는 꼴이 된다.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은 선택된 인사이드라고 생각하고 변두리 두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아웃사이드라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몇 걸음 옮겨 위치만 바꾸어 서면, 변두가 중앙이 되고 중앙이 변두리가 된다. 영원한 동쪽도, 영원한 서쪽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 서, 남. 북은 본래 없는 것이다. 내가 오로지 중앙에 있을 뿐이다. 내가 어느 곳에 이르든 어떤 일을 하던 지구의 중앙에 머물고 있음을 잊지 말자. 세계 지도가 아닌 세계 인구 지도를 그릴 경우 나를 중심으로 그리는 법이니까.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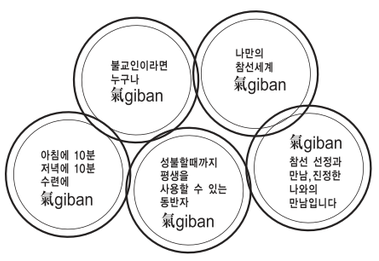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美 5대 도시 불교·가톨릭계, 사회 정의 나선다

미국 5대 도시에서 '사회 정의'를 주제로 한 종교간 대화에 봇물이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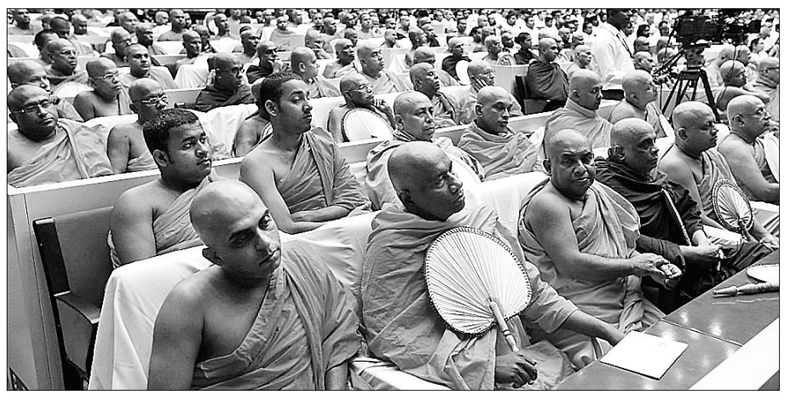
'World News' 지는 7월 1일 "샌프란시스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DC 등 미국 5대 도시의 불교계와 가톨릭계가 6월 30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빈곤, 폭력, 불평등 등과 같은 사회 문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향후 불교와 가톨릭 두 종교의 대화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대 사회 프로젝트 이해와 협력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진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World News' 지에 따르면 이번 공동 성명은 5대 도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현대 사회에서의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고,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풀어가는 데 두 종교의 소통과 교류를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5대 도시 종교 지도자들은 공동 성명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움을 증진하기 위해 기회의 균등한 분배와 투명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강조하고, "청소년 교육, 재소자 교화, 저렴한 주택 제공, 이민자 포용, 빈민자 지원 등의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키로 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불교센터의 로널드 코바타(Ronald Kobata) 스님은 이번 공동 성명에 대해 "미국에서 종교간 대화는 서로의 교리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동시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조를 맞추는 단계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샌프란시스코의 불교계와 가톨릭계는 이 계기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더욱 긴밀하게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World News' 지는 "불교의 '연민'과 가톨릭의 '박애'는 두 종교가 대중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서로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공동 성명의 필요성은 이미 두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박애와 연민이 동시대 최고의 가치'라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이 단초가 되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2일~27일 미국의 불교와 가톨릭 지도자 50여 명은 로마 외곽에 있는 교황의 하계 별장인 카스텔 간돌포(Castel Gandolfo)에 모여, '고통, 해방과 우애'를 주제로 종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출처=The Catholic Sun

샌프란시스코·뉴욕·로스앤젤레스·시카고·워싱턴 DC

6월 22~27일 열린 '카스텔 간돌포 종교회의' 계기로

이에 앞서 지난 6월 22일~27일 미국의 불교와 가톨릭 지도자 50여 명은 로마 외곽에 있는 교황의 하계 별장인 카스텔 간돌포(Castel Gandolfo)에 모여, '고통, 해방과 우애'를 주제로 종교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교황청을 방문했으며 교황 프란치스코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깊은 연대로 연결돼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불교와 가톨릭이 나서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대결이 아니라 성숙한 상호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하는 데 관심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스텔 간돌포 종교회의에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DC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와 가톨릭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가톨릭 주교 사무국 안토니 씨렐리(Anthony Cirelli) 신부는 "이번 종교회의는 가톨릭과 불교의 대화와 소통에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공의에 따라 마련했다"며 "이제 신학적 교류라는 과거의 주제를 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 종교의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Catholic Philly' 지에 따르면 '고통, 해방과 우애'을 주제로 진행된 카스텔 간돌포 종교회의에서 샌프란시스코 코바타 스님의 발제가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코바타 스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등의 종교계가 모여 결성한 종교간 협의회(Interfaith Council)는 2년 전부터 노숙자 보호센터를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방문해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연민과 박애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의 복지를 증진한 것은 물론 종교간 소통이라는 시너지 효과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atholic Philly' 지는 "불교의 자비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박애"라는 가톨릭 주교 사무국 씨렐리 신부의 말을 인용하고 "올해 초 교황 프란치스코의 자비의 해(Year of Mercy) 선언에는 '종교간 화합'이라는 기저가 깔려 있는 것이다. 가톨릭과 불교 지도자의 종교회의도 그러한 맥락에서 준비됐다"고 풀이했다.

'World News' 지는 "사회의 모든 문제는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코바타 스님의 말을 인용하고, "카스텔 간돌포 종교회의와 그것을 단초로 발표된 미국 5대 도시의 불교계와 가톨릭계 공동 성명은 '관계의 깨어짐'을 직면하자는 데 함의적의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두 종교계의 활동이 향후 미국 전역에 사회적 계층·계급 사이에 치유의 분위기를 널리 퍼지게 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중국불교, 비즈니스에 몰두"

중국 정부 수익성 불교 테마 관광지 개발 나서

슈 유 교수, 상업화 된 믿음 아닌 '간절한 믿음' 절실

중국의 중앙·지방정부가 '불교 비즈니스'에 몰두하고 있어 이를 바라본 국제 여론이 곱지 않다.

'Economist' 지는 6월 27일 "중국에서 한때 금지되었던 종교인 불교가 다시 중국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제하고 "중국의 중앙·지방정부가 수익 증대에 주목해 불교를 테마로 한 관광지 개발에 앞 다퉈 투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덴마크 관광객 체니 푸(Cheni Foo) 씨의 "중국의 사원은 거대한 사업장인 듯하다"는 말을 인용, "관급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불교 관광지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꼬집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문화 혁명기에 파괴되었던 불교사원이 공적 자금으로 복원되고 있다. 근래에는 새로운 불교사원도 생겨나고 있는데 대부분 관광 자원으로 투자되고 있다.

해남도 남산불교문화원(Nanshan Cultural Tourism Zone)의 남산해상관음을 찾은 체니 푸 씨의 경우 남산해상관음 상단에 마련된 기도처 입장료로 60위안(10,838원)을 지불했다. 남산불교문화원 입장료로 126위안(22,758원)을 지불한 뒤였다. 또 남산해상관음과 그와 어우러진 중국 남해를 조망할 수 있는 호텔방에 투숙하기 위해 1,730위안(313,700원)도 지불했다.

해남도 남산사는 중국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사찰로 중국의 최남단에 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108미터의 남산해상관음(南山海上觀音)은 지난 2005년 봉안된 것으로 미국 뉴욕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다.



남산해상관음상〈사진〉 앞에 관광객들이 즐비해 있다. 남산해상관음상을 가기 위해 관광객들은 남산불교문화원 입장료와 기도처 입장료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 사진출처=On.cc

'Economist' 지에 따르면 중국 중앙·지방정부는 수익에 목적을 둔 불교 테마 관광지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허난성 봄(Spring) 사원에 세계 최대 규모인 128미터 불상을 봉안했다. 간쑤성에서는 지방정부 주도로 둔황과 그 주변 모래 언덕을 연계해 불교 테마 공원을 진행하고 있다. 쿵푸로 유명한 소림사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에서는 2억 9,700만 달러(3,327억8,850만 원)을 투자해 500 침상의 호텔을 짓고 무술학교, 27홀 골프장 등을 건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슈 유(Xue Yu·중국대학 불교학 교수) 스님은 "중국불교가 수행불교로서의 모습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불교가 상업화 된 믿음이 아닌 간절한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일본 만화 번역'으로 반핵·평화 운동

중국 정부 수익성 불교 테마 관광지 개발 나서

슈 유 교수, 상업화 된 믿음 아닌 '간절한 믿음' 절실

스리랑카 한 스님이 반핵·평화 운동에 적극 나서 화제다. 특히 일본 인기 만화 번역본을 사용해 눈길을 끈다.

아사히신문은 6월 29일 "스리랑카 소마시리(Somasiri·55) 스님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를 다룬 일본의 인기 만화 〈하다쉬 노 겐(맨발의 겐)〉(전 10권)을 스리랑카어로 번역, 출판하고 스리랑카에서 반핵·평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행정 콜롬보의 주요 사원인 사마 마하(Sama Maha) 사원의 주지, 소마시리 스님은 최근 〈하다쉬 노 겐〉의 전 10권 중 1·2권을 번역, 출판하고 대중에게 배포하고 있다.

"한 세대의 배움은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한다"는 소마시리 스님은 "1년 전 〈하다쉬 노 겐〉의 출판권을 계약하고 싱할리어로 펴낸 이유는 일본의 이야기일지라도 그 속에서 스리랑카에 평화의 가치를 전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앞선 세대의 뼈저린 교훈은 그 다음 세대의 절대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리랑카는 1983년부터 2009년까지 26년간의 내전을 겪었다. 불교계 싱할라족과 소수 힌두교계 타밀족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이 내전으로 10만여 명 이상의 사망자, 수십만의 부상자, 1백만여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소마시리 스님은 "내전이 종결된 지 6년이 되었지만 스리랑카에서 그 흔적은 여전하다"며 "사마 마하 사원은 지금도 난민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고아를 돌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하다쉬 노 겐〉의 싱할리어본 출판도 스리랑카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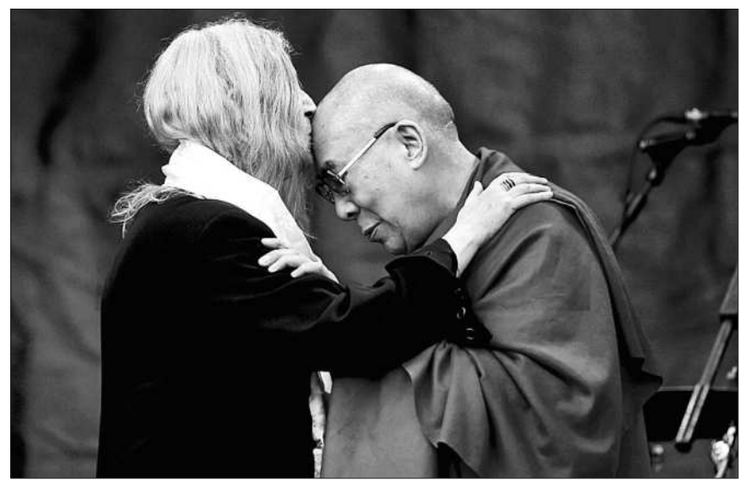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스님이 〈하다쉬 노 겐〉 번역·출판을 결심한 것은 1년 전 히로시마 '평화기념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이다. 스리랑카가 원폭을 겪지 않았지만, 그 상흔만큼은 동일했기 때문이다. 이후 소마시리 스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새벽 5시부터 〈하다쉬 노 겐〉을 번역하는 데 몰두했다.

"〈하다쉬 노 겐〉에는 일본 방언이 많은데 이를 번역하는 게 힘들었다"는 소마시리 스님은 "이 만화는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2권을 우선 내놓았는데 앞으로 모두 번역해 스리랑카 반핵 평화 운동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소마시리 스님은 1980년대 다이쇼 대학에서 수학하면서 일본과 그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스리랑카로 돌아와 수행에 전념한 후 콜롬보 주요 사원이 '사마 마하'에 주지에 취임하면서도 일본 카토리 지역의 스리랑카 불교사원인 란카지(Lankaji) 사원의 주지 겸직을 요청한 것도 일본에 대한 남다른 관심에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마시리 스님은 최근 나가사키 원폭을 다룬 〈나가사키 노 케인(나가사키의 종)〉의 판권을 계약하고, 싱할리어본 출판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영국 음악축제 참가한 달라이라마 영국 방문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6월 28일(현지시간) 세계적 음악 축제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The UK's Glastonbury Festival)에 참석했다. 달라이라마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패티 스미스(Patti Smith)의 소개로 무대에 올라 자비와 평화 사상을 강설했다. 달라이라마는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은 모두 우리가 만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국가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서로를 죽이고 있다"면서 "모든 인간은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해 큰 환호를 받았다. 한편 패티 스미스는 7월 6일 80세 생일을 맞은 달라이라마를 위해 깜짝 케이크를 준비해 관객들과 함께 생일노래를 부르며 달라이라마를 축하하기도 했다. 〈사진출처=eNCA〉

박아름 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고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째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째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마하연여행사

천불천탑의 나라 미얀마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 여행 문의 상품 ☜

중국
[지장도량]구화산/황산/항주 5일
[관음도량]항주/보타/낙가산 5일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문수도량]북경/오대산 5일
[민족의영산]백두산 5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인도 9일
델리-라즈기르-나란다-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

인도 11일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나란다-쿠시나가르-룸비니-카필라바스투-쿠단-산카시아-아그라

스리랑카 완전일주 순례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



※10월/11월 상품 -8월까지 조기예약 한정

※10회 출발 한정※ 미얀마순례 출발 가능한날짜 : 8월19,29 / 9월~~6~~,19 / 10월7,17,28 / 11월~~X~~,14,~~X~~ (마감)

특전 1. 특급호텔(양곤-세도나호텔,바간-뜨레져호텔,만달레이-세도나호텔,헤호-후핀호텔 등 동급진행
2. 추가경비 일체 없음 3. 미얀마 전문 가이드 동행 및 미얀마 현지 불교전문 가이드 진행
4. 일정 및 식사 타사비교 필수 5. 미얀마 현지 불교 행사 진행 가능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정상가 2,090,000 → 조기예약 할인가 1,890,000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몽유와 7일 요금문의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요금문의

【 전세계 여행상품 20년의 노하우 마하연여행사만의 알찬 일정 】

간다라 불두에서 신중까지 불교문화를 엿보다

여름 휴가 · 방학 맞아 가볼만한 불교 전시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 왔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불교 관련 전시장을 찾아 역사공부도 하며 문화적 안목을 높여 보는 건 어떨까?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아시아의 불교미술' △울산 대곡박물관의 '기와가 알려주는 울산 역사-성(城)과 사(寺)의 성쇠' △원주고판화박물관의 특별전 '일본 고판화의 세계' △만해 기념관의 '남한산성 역사 · 문화 특별전' △직지성보박물관 '신중(神衆)을 만나다' 등 다양한 전시가 곳곳에서 열린다. 아시아불교에서 신중까지 전시를 통해 불교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해보자.

조각, 회화, 공예 등의 불교미술을 통해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8월 2일까지 '아시아의 불교미술-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티베트'를 진행한다. 불두 등 120여 점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미술이 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꽃피웠는지를 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티베트의 4부로 나누어 소개한다. 간다라에서 출토된 불두를 비롯해 칠기로 제작한 화려한 공양구와 경전과 경상, 세밀한 묘사와 화려한 색채의 티베트 불화 탕카와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각종 법구 등을 만날 수 있다. (062)570-7000

울산지역은 일제강점기부터 입암리 사지 등에서 삼국시대 기와가 출토되어 주목받아왔다. **울산대곡박물관**이 '기와가 알려주는 울산 역사-성(城)과 사(寺)의 성쇠' 전을 9월 13일까지 개최한다. 4부로 구성된 전시는 △절터 기와와 사찰의 성쇠 △성터에서 만난 기와 △기와와 통일신라 건물지 △울산의 기와 생산과 공급 등을 통해 울산의 기와 16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절터 기와와 사찰의 성쇠'에서는 울산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절터 가운데 영축사지, 운흥사지 출토 기와와 대곡천 유역의 방리 사지(백련사지)와 장천사지 출토 기와를 전시한다. 일반인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영축사지 출토 기와 등은 해당 사찰의 역사와 흥망을 잘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052)229-6638

불교에는 여러 부처님과 보살 외에도 범천 · 제석천을 비롯한 다양한 천인(天人)들과, 인왕, 사천왕, 팔부중 등 수많은 호법신들이 있다. 이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 '신중'이다.

직지성보박물관의 '신중(神衆)을 만나다'는 70여 점의 유물을 통해 신중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한다. 전시에서는 △범천 · 제석천 · 사천왕이 음각되어 있는 '도리사 금동육각사리함'(국보 제208호) △석가모니부처님의 영축산 설법을 외호하면서 경청하는 불보살 · 신중의 모습을 담은 '수다사 석가모니후불탱'(보물 제1638호) △청암사 신중탱(경북 유형문화재 제416호) 등이 전시된다.


국립광주박물관 '아시아의 불교미술' 전의 간다라 불두(2세기 파키스탄)

광주박물관-아시아의 불교미술

고판화박물관-일본고판화의 세계

직지성보박물관-신중을 만나다

대곡박물관-사찰 등의 기와 전시


범천 · 제석천 · 사천왕이 음각되어 있는 '도리사 금동육각사리함'(국보 제208호)

또한, 직지사 사천왕문 및 사천왕상 보수과정에서 발견된 사천왕 복장과 더불어 사천왕초 등은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유물이다. 이외에도 신중이 새겨져 있는 묘법연화경 변상도 경판과 다양한 전적(典籍)도 선보인다. (054)429-1720

원주고판화박물관도 특별전 '일본 고판화의 세계'를 7월 7일~8월 30일 개최한다. 일본 고판화 100여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불교 · 유교의 소설, 화보류 등의 목판본 삽화 30여점 △관경변상도 등 불화판화 20여점 △불교 및 신도 관련 부적 판화 20여점 △일본 우키요에(목판화) 30여점을 선보인다. 고판화 박물관은 전시에 앞서 한일 국제학술대회와 한일 전통판화 명인 시연회 등을 7월 5일~6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고려 문인 이달충의 〈제정집〉 초간본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033)761-7885


울산지역은 일제강점기부터 입암리 사지 등에서 삼국시대 기와가 출토되어 주목받아왔다. 사진은 울산 대곡박물관에서 전시중인 '영축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

만해기념관에서는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소장 사료를 중심으로 '남한산성 역사 · 문화 특별전'을 9월 30일까지 기획전시한다. △병자호란 당시의 의병활동과 순절한 선인들의 기록 △남한산성의 축성과 관련된 역사, 지리, 군사, 승군 자료 △병자호란의 실상을 전하는 한글과 한문 일기 △오학사(五學士) 관련 자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병자호란 자료 등을 국내외에서 수집해 전시로 기획했다. (031)-744-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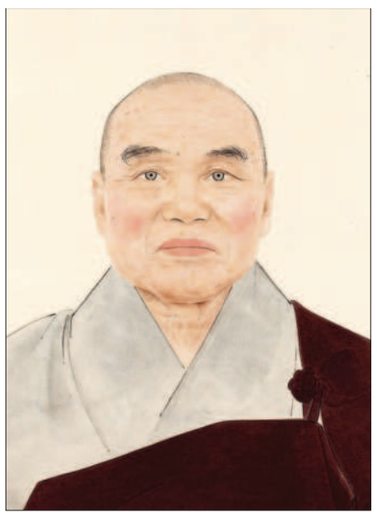
이밖에도 통도사성보박물관은 가장 한국적인 그릇을 선보이는 도예가 김진량 씨의 작품을 작은전시회를 통해 선보이고 있으며 수도사 괘불탱화를 10월 20일까지 공개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초상화로 표현하는 우리 시대의 '틈'

김호석 작가 개인전 8월 16일까지

성철 스님 · 법정 스님 초상화도 전시


김호석 작가의 '성철 스님' 초상화

현대사회에서 틈은 결핍 또는 미완성을 상징한다. 빠르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느껴지는 허전함과 결핍을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강박적으로 채우고자 한다. 하지만 김호석 작가에게 틈은 충만의 공간이자 잉태의 공간이다.

틈은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가지며, 또한 새로운 것들이 자라 채워질 빈 공간인 것이다.

김호석 작가의 초대전 '틈'이 7월 6일~8월 16일 고려대 박물관 기획전시실 및 현대미술전시실에서 열린다. 1979년 중앙미술대전 장려상으로 데뷔해 수묵화운동 등을 이끌며 한국화의 전통적인 형식과 방법을 고수해온 김호석 작가는 오랜 한국 전통의 화법을 현대적으로 가장 잘 해석해낸 작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작가는 전통적으로 임금 및 사대부의 초상화 등에서 나타나는 전신사조 기법을 사용하는데, 일상을 살아가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에 적용했다.

가까이에 있는 가장 한국적인 삶을 한국의 전통적인 기법과 형식으로 표현해낸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항상 그가 담아내는 장면 또는 인물과는 틈을 두고 철저히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그려냈다. 이번 전시 또한 같은 맥락에서 그가 틈을 두고 바라본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199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어 대형전시를 가진 바 있는 작가는 이후의 16년간 작업을 총망라하는 작품 120점으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특히 성철 스님, 법정 스님, 지관 스님 등의 초상화도 만날 수 있으며 법정 스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 10여 점도 선보인다. (02)3290-1513

정혜숙 기자

독일인들도 연꽃 감상하며 108배를

재독작가 김현수,

뮌헨서 설치미술 '백련' 전시

백련 연꽃이 독일 뮌헨 시청 뒤 마리엔 호프에 활짝 피었다. 재독 작가 김현수 씨가 설치 미술 '백련-범문화적 의식'을 선보여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9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특수코팅으로 조립된 지름 5m 50cm, 높이 2m 60cm 백련을 중심으로 108배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작가의 독특한 발상이 돋보여 눈길을 끈다.

연꽃은 불교문화뿐 아니라 그리스 로마 이집트 등에서도 상징적 꽃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전시를 통해 연기법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고고학에 관심이 많아 공부를 해보니 고대문화에서 연꽃은 거의 태양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죠. 열매와 꽃을 동시에 맺는 거의 유일한 꽃인 연꽃은 과거 현재 미래의 통합을 상징하는 것은 물론 시공간을 넘어 정신적 통합 그리고 연기법적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재독작가 김현수 씨는 설치미술 '백련'을 독일인들에게 선보이고 108배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끈다. 사진제공=채희석 작가

특히, 작가는 작품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108배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108배를 하며 마음을 닦자는 뜻에서 시작한 퍼포먼스입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행위(?)를 하냐고 의아해하며 질문을 하던 시민들도 108배를 해보고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아요. 모두가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6월 24일 오프닝 이후 두 번의 108배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전시 기간 동안 3번 정도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8월 15일에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108배 퍼포먼스를 펼쳐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전남 문화 예술 재단'과 '베를린 한국문화원'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가 끝나면 연꽃 작품은 한국으로 운송된다. 또한 뮌헨시와 공동으로 내년 한국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1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 중 제28권 출간. 양산, 명초, 법안 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낱낱이 설하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2015년에도 전국에서 다양한 연꽃 축제가 열린다. 사진은 세미원 연꽃문화제를 찾은 어린이들이 현장학습을 하는 장면.

연꽃 滿開하니 온 세상이 연화장세계

〈만개〉

2015 전국서 연꽃축제

"나는 연을 사랑하나니 연꽃은 진흙 속에서 났지만 더러움에 물들이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기어도 요염하지 않으며 속이 비고 밖이 곧으며 덩굴지지 않고 가지도 없다. 향기는 멀리 갈수록 맑으며 우뚝 서있는 모습은 멀리서 보아야 참 맛을 느끼게 하니 연은 꽃 가운데 군자이다."

송나라 유학자 주돈이는 연꽃을 보면서 군자를 떠올렸지만 불교에서 연꽃은 연못 위에 그대로 만개해 연화장세계를 펼친다. 진흙 속에 오롯이 피어 불법의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름이면 전국 곳곳에서 연꽃 축제가 열린다. 만개한 연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노라면 어느새 좀더 부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연꽃도 감상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현장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물과 꽃의 정원 세미원에서는 향기롭고 그윽한 연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7월 4일 ~ 8월 16일 열리는 연꽃문화제는 '물을 맑게, 마음을 맑게'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연꽃관람전시, △'음식으로 피어난 연꽃전' △'연꽃음식 체험마당' △연꽃명상 '세미원 산책' △작가체험마당 △연꽃문화체험교실 △연꽃음악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명상 프로그램인 '세미원 산책'은 아침시간에 명상가와 함께 탁 트인 강변과 연꽃밭을 거닐며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연꽃차를 음미하며 건강식인 안심빵과 연자를 갈아 만든 연자유를 맛봄으로써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리 신청을 받아 진행하며 무료다. 또한 연꽃문화제 기간 중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연꽃음악회가 펼쳐지는데 한국가곡예술연주회에서 들려주는 가곡의 향연과 엣지오카리나앙상블의 오카리나 공연이 펼쳐진다.

부여 서동 연꽃 축제도 7월 10일~19일 부여서동공원 궁남지 일대에서 열린다. 7월 10일 궁남지 수상무대에서의 주제공연을 시작으로 초청가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명품경관 연꽃축제 현장 스토리 현장 토크쇼 '임백천 라디오 7080'과 궁남지

세미원-연꽃 명상, 음식 체험

서동 연꽃 축제-풍등 날리기

무안연꽃축제-연꽃 백일장 등

수상공연장에서 '사랑 설렘 행복 낭만'을 주제로 축하음악회가 열린다. 이밖에도 익산시립무용단 공연 '서동애화', 전통 예술단 '혼'의 전통연희 판놀이 등이 이어지며 체험행사로는 사랑의 소망 풍등 날리기 등도 진행된다.

남양주 봉선사에서는 7월 25일 '제13회 봉선사 연꽃축제'를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 봉선사는 "사부대중 1만 2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축제에서는 불교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음악공연을 통해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행사 취지를 전했다. 이날 출연가수로는 민해경, 변진섭, 크라잉넛, 자전거 탄 풍경, 봉선사 합창단 등이 무대에 오른다.

제19회 무안연꽃축제는 '백련의 향기 백년의 사랑'을 주제로 힐링여행을 찾아 떠난다. 8월 13일~16일 무안군 일로읍 회산 백련지 일대에서 펼쳐지는 무안 연꽃 축제는 개막축하공연, '연꽃 소망풍등' 날리기, 연극 '품바' 공연, 군민어울림마당, 군민노래자랑, 향토예술단체 공연 등이 열린다.

연계행사로는 전국 요리경연대회, 전국 명품코스 걷기대회, 청소년 페스티벌, 무궁화 축제, '품바존' 운영, 청소년 연꽃 백일장 및 사생대회, 남도예술작품 특별경매 등이 열린다. 또한 연쿠키 만들기 체험, 연꽃길 보트탐사, 도자기 빚기, 천연염색체험, 연모형 소품만들기, 얼음 이글루 체험, 연차시음 등의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이밖에도 제 14회 하소백련 축제가 7월 17일~19일 열린다. 첫날 개막공연에는 오카리나 연주, 태평무, 오케스트라 등이 선보이며 이튿날인 18일에는 무용과 악기 연주가, 마지막날에는 탱화행사와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국 연꽃축제

행사명	날 짜	내 용	번 호
세미원 연꽃문화제	7월 4일~ 8월 16일	연꽃명상 · 음식 체험	(031)775-1830
부여 서동 연꽃 축제	7월 10일~19일	축하음악회, 풍등날리기 등	(041)830-2921
봉선사 연꽃축제	7월 25일	음악회	(031)527-1956
무안연꽃축제	8월 13일~16 4일간	'연꽃 소망풍등' 날리기 등	(061)450-5473
하소백련 축제	7월 17일~19일	음악회 탱화 행사	(063)542-8943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외로운 곰과 부모 잃은 마샤의 훈훈한 인연

러시아 초원의 동심(童心)으로의 초대

EBS TV만화 '마샤와 곰'

네 살의 아들을 둔 필자는 원하지 않아도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을 봐야 한다.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동화적 상상력과 소설적 상상력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동화적 상상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의인화이다. 그리고 이 의인화에는 동물은 물론이고 무정물(無情物)도 대상이 된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동심을 잃는다. 그 시점은 아마도 논리적 혹은 합리적 사고가 싹트면서부터일 것이다. 그런데 사고를 전환하면 자로 잰 것처럼 완벽해 보이는 이성적 사고란 것도 그야말로 인간의 입장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린네의 명명법을 들 수 있다. 과연, '종-속-과-목-강-문-계'로 나눠지는 이 명명법을 인간이 아닌 다른 자연 구성원들은 알고 있을까? 바꿔 말해서 이성적 혹은 합리적 사고는 자연의 도구화에 지나지 않다.

최근 EBS에서 방영 중인 '마샤와 곰'은 재미도 있거니와 따뜻한 정조를 지니고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봐도 좋은 애니메이션이다.

'마샤와 곰'은 러시아 애니메이션이다. 마샤는 마리아의 애칭이라고 한다. 이 애니메이션의 원작은 러시아 동화이다. 원작동화와 애니메이션은 줄거리가 조금 다르다. 먼저, 원작동화 내용부터 살펴보자.

마샤는 부모 없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었다. 마샤는 버섯과 산딸기를 따러 숲에 갔다가 그만 길을 잃었다. 숲속을 헤매다가 마샤는 오두막집을 발견한다. 오두막집에 들어갔으나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오두막집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곰이었다. 곰은 마샤에게 온갖 허드렛일을 시킨다. 이튿날 마샤가 집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곰이 불같이 화를 낸다. 마샤는 곰에게 말한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튀김을 전해주고 싶어."

곰이 대답한다.

"안 돼. 너 대신 내가 튀김을 갖다 주고 올 게."

마샤는 튀김이 든 바구니에 몰래 숨는다. 그 사실도 모르고 곰은 마샤의 집으로 향한다. 마을에 다다르자 튀김 냄새를 맡은 개들이 몰려든다. 달려드는 개들을 보고 곰은 어쩌지 못하고 도망을 친다. 마샤는 바구니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달려간다. 버려진 아이라는 점에서 원작 동화는 〈헨젤과 그레텔〉을 떠올리게 한다.



최근 EBS에서 방영 중인 '마샤와 곰'은 재미도 있거니와 따뜻한 정조를 지니고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봐도 좋은 애니메이션이다.

서로가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

어머니의 자비가 느껴지는 스토리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애니메이션



그로테스크한 원작동화와 달리 애니메이션은 시종일관 따뜻한 정조를 유지한다. 줄거리도 다르다. 원작과 달리 애니메이션의 곰은 착하다. 서커스단 출신의 곰에게 어느 날 천진난만한 말썽꾸러기 마샤가 찾아온다. 애니메이션에서도 마샤는 돌보는 가족이 없는 외로운 아이이다. 마샤는 곰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일쑤이다. 그런데도 곰은 마샤를 혼내지 않고 돌본다. 하루는 늑대들이 마샤를 유괴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늑대들은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마샤를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한다. 물론, 곰은 뛸 듯이 기뻐한다. 마샤는 늑대들과 병원놀이를 한다. 병원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늑대들은 마샤에게 혼쭐이 난다. 결국 늑대들이 외려 먹을 것을 들고 곰에게 찾아온다. 다시 마샤를 받아달라는 것이다.

또 하루는 곰이 마샤를 위해 드레스를 만들어준다. 마샤는 그 드레스를 금세 더럽힌다. 곰은 그 드레스를 세탁한 뒤 다른 드레스를 만들어준다. 그 일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애니메이션이 끝날 무렵 어쩌면 마샤는 더 많은 옷을 갖고 싶어서 옷을 더렵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마샤와 곰은 서로 외로움을 달래주는 관계인 것이다. (곰은 옛 영화의 회한에 젖어서 사는 러시아 남성을 상징한다고 한다. 실제로 러시아는 한 때 양극체제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강대국이었다.)

마샤와 곰은 시린 가슴을 안고 사는 어린 소녀와 곰이 친구가 되어서 따듯한 정을 나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황금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황금률이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하라'는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는 그 황금율의 대상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자구성원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사랑과 자비(慈悲)의 차이도 바로 이 지점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모든 숨을 탄 존재들을 한없이 가여워하는 마음, 그것이 자비인지도. 그러고 보면, 자비란 사랑과 슬픔이 합쳐진 단어가 아닌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마음과 같은 것이다.

유응오 작가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구성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5~7/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안부(산승이마음으로전하는)	지안스님	(주)조계종출판사	6	눈부신오늘	법상스님	마음의숲
2	영원한자유의길(재개정판)	성철스님	장경각	7	남을위해기도합시다	퇴옹성철	장경각
3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법정,최인호'	여백	8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4	꿈을깨면 내가부처	서암스님	정토	9	좋은사람으로사는법	틱낫한	김영사
5	산사에홀로앉아	일운스님	모과나무	10	심심한생각채우기(엽서컬러링북)	아름다운인연	누똥바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저자 호진 스님과의 대화 - 〈무아 · 윤회 문제의 연구〉

경주 기림사 동암을 가다

"불교는 왜 무아와 윤회를 양립 시키고 있나?"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1972년에 해외로 나가 여행을 하거나 공부하는 일은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불교의 향학열 하나로 걸망 하나만 짊어진채 프랑스로 유학길에 오른 스님이 있었다. 주인공은 前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호진 스님이다.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도불(渡佛)한 것이다. 당시로서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힘든 결정이었다. 이런 거창한 여정에 비해 스님의 유학 동기는 의외로 우연하고 간단했다. 당시 동국대서 동문수학하던 로제 르베리에(Roger Leverrier, 한국명 여동찬) 교수의 권유에 의해서다.

2년동안은 삐엘끼비르 가톨릭수도원서 수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프랑스어를 배우다가, 1974년 파리에 입성했고 이후 1976년 프랑스 정부 장학금으로 소르본 대학에 정식 입학할 때까지 산스크리트어를 배웠다. 강의가 없을때는 도서관서 불교학 자료를 정리하고 전공서적을 읽으며 토대를 닦았다. 스님의 공부는 구도역정과 같이 치열했다. 이방의 언어를 익히고자 한 장을 심지어는 200번씩 강독한 적도 있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호진 스님은 6년만인 1981년 〈나선비구경의 무아와 윤회 문제〉란 주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는다. 불혹(不惑)의 나이였다. 학위 논문 심사 당시 스님의 논문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이 분야의 연구 중 가장 깊이 있는 논문이라는 찬사와 함께 최고점수인 '트레 비엥' 을 받았다.

이 논문을 스님은 학위 취득 후 10년 뒤인 1991년에 우리말로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대승불교권인 우리나라서 스님의 논문 주제인 무아 · 윤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책이 출간된 뒤 '무아 · 윤회' 에 대한 관심이 점화돼 관련 소논문과 여러 권의 책이 출간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다시 24년이 흘렀다. 그리고 최근 〈나선비구경의 무아 · 윤회〉 문제를 고찰한 호진 스님의 박사 논문이 1년에 걸친 시간을 바쳐 재 손질돼 나왔다.

스님은 '다시 쓰는 머리말' 에서 "이 책이 '30대의 학생이 쓴 논문' 이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 수 있었다.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점을 발견했다"며 "처음의 논문과 달라진 것은 〈우빠니샤드〉의 윤회와 해탈, 그리고 초기불교의 무아와 열반에 관한 곳이다. 〈우빠니샤드〉에 나타난 윤회와 범아일여(梵我一如) 문제에 대해서는 전보다 더욱 깊이 탐구했고, 초기불교 부분은 핵심에 있어서는 전과 동일하지만 더욱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했다."고 밝혔다. 2000년 퇴직 후에도 스님은 공부에 대한 열정을 계속 불사르고 있다. 경주 기림사 경내의 동암에서 '불타전(佛陀典)' 에 대한 연구를 계속중인 호진 스님을 6월 30일 인터뷰 했다. 원래 인터뷰에는 인물사진이 들어가는 것이 상례지만, 한사코 내세울 것이 없다며 거절하는 노 스님의 학자적 소신을 존중하기로 했다.

△무아설과 윤회설은 서로 다른 바탕서 이루어져 한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양립할 수 없지만 또 양립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아설과 윤회설은 불교를 지탱하는 두 핵심 기둥이다. 부처님 재세 당시에도 이 두 설의 양립 문제는 해결 못했다. 그 결과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면서 불교는 여러 부파로 나뉘었다. 부파불교서 제기된 여러 이론들을 종합 정리해 무아설과 윤회설의 양립을 시도한 경전이 바로 〈나선비구경〉이다. 이 경전서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해 불교의 여러 이론은 더욱 발전을 거듭했다. 내 연구도 이 연장선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양립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불교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답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책 처음 머리말에 '완벽한 이론은 없다. 역설적이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 란 전제를 두었다.

△〈나선비구경〉 즉 〈밀란다왕문경〉서 굳이 무아와 윤회의 해답을 찾은 이유는?

– '무아와 윤회의 문제' 를 말할 때는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나선비구경〉 또는 빨리어본 〈밀린다빵하〉의 설명에 의거한다. 〈나선비구경〉은 정통 경전도 아니고 부처님 열반 후 500년뒤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 경(經)' 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아와 윤회 문제에 대해 〈나선비구경〉보다 더 나은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 〈무아 · 윤회 문제의 연구〉에서는 바로 이 〈나선비구경〉서 설명한 무아설과 윤회설의 내용은 어떤지, 두 교리를 어떻게 적절히 양립시키는지, 초기경전서 설한 내용과 비교해 얼마나 교리적으로 튼튼한 근거를 갖는지 등에 대해 연구했다.



사진은 경주 기림사 경내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암자인 동암. 이곳에서 호진 스님은 '불타전' 에 대한 연구를 계속중이다. 인터뷰 사진을 스님이 극구 사양해서 겨울 동암의 자료사진을 썼다.

무아 · 윤회 문제의 연구

호진 스님 지음 | 불광 펴냄 | 2만 8천원



〈나선비구경〉, 무아 · 윤회 양립 시도 양립 해결책… 뿟갈라 · 식 · 상속설 등 소로본 박사 논문 24년만에 재 개정 〈우빠니샤드〉 윤회와 '범아일여' 보충 한국 철학계의 열띤 주제로 점화

△〈나선비구경〉은 어떤 경전인가

–이 경전의 명칭에 보이는 나선은 비구의 이름으로 원어는 나가세나다. 나가세나와 밀린다왕이 불교에 관해 토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문적인 교리문답서이다. 이 문답서가 저술될 당시 널리 알려진 밀린다 왕을 화자의 한 사람으로 차용해 경의 권위를 높였을 뿐, 이 경은 당시 최고의 논사들이 여러 부파의 교리를 이용해 무아설과 윤회설의 양립을 위해 저술한 전문적인 교리문답서이다. 밀린다왕은 그리스 사람인 메난드로스왕으로서 대략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서북 인도에 침입해 통치한 실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유능하고도 상당한 지식의 소유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밀린다왕은 그 후 불교에 흥미를 갖게 됐고, 나가세나 비구와의 토론 끝에 불교에 귀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밀린다왕의 날카로운 질문은 현대인이 불교에 대해 갖고 있을 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초기불교의 무아설과 윤회설을 설명해 주신다면?

–불교의 중심 문제는 인생의 괴로움(苦)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괴로움은 인간의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되며, 욕망과 집착은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에서 발생한다. 어떤 것을 실제적이고 영원한 '나' 라고 여기게 되면 그에 집착해 다른 모든 것을 배척하게 된다. 이것이 불교가 '나(我, ātman)' 에 대해 집요하게 추구하는 이유이다. 영원불변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즉 유아설(有我說)이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무아설(無我說)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아설은 불교를 가장 불교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라는 건축물을 세우는 또 하나의 기둥이 윤회설(輪廻說)이다. 윤회설과 유아설은 불교가 성립되기 훨씬 이전에 인도에 이미 존재하던 사상으로, 인도의 정통철학파가 주장하는 것이다. 인도철학사에서 유아설과 무아설의 대립은 근대 유럽철학에서의 합리론과 경험론 사이의 갈등 이상으로 오랫동안 첨예한 논쟁거리였다. 유아 윤회설을 주장하는 인도 정통철학파에서는 어떻게 무아 윤회가 가능한가를 문제삼는다. 즉 고정불변의 '나' 가 없다면 누가 윤회하고 누가 과보를 받으며 누가 열반을 이루는가를 묻는 것이다.

불교 내부에서도 무아설은 윤회의 주체 문제와 관련해 이미 초기불교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으며, 그 문제를 해결키 위한 여러 이론을 도출하는 과정서 많은 부파로 나뉘게 되었다. 즉 부파불교의 주요 성립 원인중 하나가 바로 무아설과 윤회설의 양립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수많은 불교사상가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그 덕택으로 무아 윤회설은 인도의 다른 어느 종교나 철학에서보다 불교에서 가장 정교히 발달했다.

△무아설을 주장하면서 생긴 윤회의 주체에 대한 초기경전서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인가?

–초기불교 문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전인 〈아함경〉을 중심으로 불교의 핵심교리인 무아설과 윤회설의 의미와 구조, 실천 등 여러 면에서 고찰했다. 윤회설이 일으킨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색된 교리들, 그리고 무아 · 윤회의 양립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무아설을 주장하면서 생긴 윤회의 주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초기경전서 내놓은 해결책은 뿟갈라설, 식(識)설, 상속(연속)설의 세 가지였다. 초기불교에서는 아직 '설(說)' 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전들이 만들어졌다. 부파불교에서는 이 경전들의 내용이 확대 발전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설(說)이 이뤄지게 되고 그 설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모여 각각의 부파를 만들었다. 뿟갈라설을 택한 사람들은 독자부와 정량부(正量部)를 이루었고, 식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분별설부와 이 부파서 갈라진 화지부, 장로부 등 대부분의 상좌부계 부파들을 이루었다. 이들 부파는 상속설을 수용한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와 경량부 못지않게 오래도록 번창했다. 이 사실은 초기 · 부파불교서 윤회의 주체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나선비구경〉에 나타난 무아 · 윤회설의 내용을 요약하신다면?

–〈나선비구경〉에서도 초기경전의 경우처럼 윤회의 주체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으로 뿟갈라설, 식설, 상속설이 언급되었다. 베다구로 표현된 뿟갈라는 나가세나의 조리 정연한 논법에 의해 여지없이 반박되었다. 그러나 식설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무아설을 역설한 〈나선비구경〉이 윤회의 주체로 식(識)을 인정할 수 없던 것은 당연하지만 뒷날 빨리어본 〈밀린다빵하〉의 추가 부분에서는 재생의 주체 역할을 하는 식이 등장하고 있다. 〈나선비구경〉이 수용한 것은 상속설이었다.

〈나선비구경〉의 무아설과 상속설은 초기경전서보다 훨씬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먼저 육체의 32부분과 수레(車)를 구성하는 열 가지 부분품의 비유를 통해 인간 존재에 실체적인 '아(我)가 없다는 것(無我)' 을 설명했다. 나가세나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 존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뿟갈라(또는 베다구)와 같은 '어떤 것' 이 아니라 업(業)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즉 '현재의 존재가 업을 짓고 그 업에 의해서 다음 존재가 만들어진다' 는 것이다.

나가세나는 실체적인 주체 없이 윤회하는 것, 즉 '무아 · 윤회' 를 위해서 등불과 우유의 비유를 들었다. 등불을 켜면 초저녁에서 새벽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한다. 그러나 초저녁 불꽃에서 새벽 불꽃으로 변하지 않고 옮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역시 우유가 낙(酪)과 생소(肥)를 거쳐 제호가 되는 과정서 변하지 않고 옮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나가세나는 한마디로 "존재(dharma)의 연속은 계속된다. 하나가 나타나면 동시에 다른 것은 사라진다. 이를테면 그것들 사이에는 앞서는 것도 뒤따르는 것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저자 호진 스님은?

1964년 직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과 대학원서 불교학을 전공했다. 이후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철학과서 초기불교를 전공한 뒤 종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동국대 불교학과서 2000년까지 초기 · 부파불교를 강의했다.

저서로는 〈무아 · 윤회문제의 연구〉를 비롯해 〈Le problème de l'ātman et du saṃsāra dans le sūtra du bhikṣu Nāgasena(韓 · 佛合本)〉 〈인도불적답사기〉 〈성지에서 쓴 편지〉(공저) 〈인도불교사〉(1-2)(번역) 〈아쇼까왕 비문〉(공역)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불교의 노동문제〉 〈윤회이론의 기원〉 〈불멸연대고(佛滅年代考)〉 〈나선비구경 연구〉(1) 〈초기불전성립연구〉(1-2) 〈Aśoka 왕과 불교〉 〈Menandros 왕의 불교 개종 문제〉 〈불교의 죽음 이해〉 외 다수가 있다.

화엄수행자 진귀(眞歸)와
차 한잔의 친견만 해도
말기암의 암성통증과 빙의 등등
일체고통 들이,...
어떤이는 줄어들고
어떤이는 사라지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데.....
불신(不信)의 마음벽에 갇힌 말법시대에
과연 이런일들을 믿을수 있는지?
백천만겁난조우의 진귀한 인연이로다.

불가사의한 수행자 ~ 진귀(眞歸)의
화엄경 강좌

강의일자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인터넷 강좌 개설 준비중
강 의 료 : 1년에 50만원 (월 5만원)



■ 진귀 수행자가 직접 편저한 화엄경 책은 전국서점에서 판매중이며 수행센타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 화엄경 책값 15만원임 》
■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각종 종교적 방편및 천도재 등은 일체하지 않으며 특히 유사 의료행위 및 대체의학 등은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한잔의 친견만 합니다.
■ 진귀의 화엄경 강좌및법회를 개설할 전국의 불교대학및 사찰은 전화 접수 하세요. (서울, 대전, 부산, 순천 등 주 1회 강좌 / 법회는 월 1회)

화엄경 수행센타 문의 ☎ (대구) 1899-9532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NAVER 연꽃소전대 검색

귀사찰에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작품을 제안합니다.

작품성과 실용성 모두 완벽에 가까운 수제 작품입니다.

디자인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를 모두 획득한 작품이며 장인의 땀과 혼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열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귀사찰의 기제사나 천도제의 마지막 의식인 소전 의식을 준비 하신다면 사찰의 품격과 신도님들의 품격또한 높여 귀사찰의 무궁한 발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소】 1,200×600×1,300 (가로×세로×높이)㎜
【중】 1,600×700×1,700 (가로×세로×높이)㎜
【대】 1,700×800×1,800 (가로×세로×높이)㎜
〈대(大)에는 반야용선조각이 추가됩니다.〉



■ 연락처
010-9195-1044 / 070-7563-3898
■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82번길 30
불교조각연구원

나를 단단히 붙들 '나만의 화두'를 찾자

흔들리는 마흔, 붙잡아 주는 화두

이지형 지음 | 흐름출판 펴냄 | 1만 3천원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머리, 어떤 중요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실마리'라는 뜻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단어 '화두'는 불교에서 왔다. 선불교서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마음에 품고 깊이 고민하는 일종의 키워드를 말한다. 그러나 마음의 평온과 진리를 구하려는 노력이 꼭 불교의 세계에서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근심을 떨치고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고 싶은 바람은 일상에서 더욱 절실하다. 〈흔들리는 마흔, 붙잡아주는 화두〉는 '화두'라는 불교적 개념을 일상의 영역으로 끌어내렸다. 단순히 화두를 인용하고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생의 키워드로 삼아 일상 문제를 해결하는 독특한 지혜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공자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마흔에는 불혹(不或)'이라고 했지만 마흔 지나 중년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마냥 즐겁고 안정적이지만은 않다. 오늘날 '마흔들'의 삶은 휘청이고 흔들린다. 사십대의 삶은, 열정과 체력으로 밀어붙이는 이십대나 요령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일을 벌이는 삼십대와 다르다. 더구나, 지나온 여정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오십대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마흔은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시기로 인식된다. 우선 남은 인생을 더 가치있게 만들고 싶은 마음과 노후에 대한 걱정이 개인적인 숙제로 다가온다. 게다가 아래로는 자녀 걱정, 위로는 노부모 걱정까지 챙겨야 하니 중압감은 더욱 커진다. 물러서자니 어깨에 진 책임이 등을 떠밀고, 확 나아가자니 넘어질까 두렵다. 자신감은 줄어들고 걱정은 많아지는 이런 진퇴양난 앞에서는 선택과 행동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왜 이럴까? 저자는 '우리 삶에 곁가지가 너무 많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정리하지 못한 인간관계나 이리저리 챙겨야 할 자잘한 일상사가 주의를 흩트린다. 그 결과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코앞에 닥쳐서야 임기응변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러니 삶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마음속 머릿속으로부터 곁가지를 쳐낼 필요가 있다. 중심이 되는 것,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잔가지 다 쳐내고 굵은 나무둥치가 드러나면 삶의 방향은 더욱 또렷이 보일 터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에만 집중하면 문제를 해결할 원리를 깨칠 수 있다. 중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가고, 강연을 듣고, 고전을 공부하고, 철학서와 자기계발서를 탐독한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식을 쌓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문제와 고민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법이나 삶의 기준으로 삼을 가치를 찾는 데는 더욱 근본적인 방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기 위한 노력에는 본질적인 원리를 깨치게 하는 화두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보통, 화두는 스승과 제자가 알쏭달쏭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고받으면서 깨달음에 도달하는 형식을 취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방식이다. 하나의 화두를 품고 해답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탐구한다.

단하가 행각 중 낙양 혜림사에 들렀다. 대접이 시원찮았다. 제대로 된 공양은 고사

'화두' 불교적 개념 일상으로 끌어내

"화두, 현실 고민 해결 도구로 삼자"

머릿속 곁가지 쳐내라…12개 키워드로

화두마다 풍부한 용어 해설도 곁들여

하고 한겨울에 냉방 신세를 져야 했다. 절에는 영험하다는 목불(木佛)이 하나 있었다. 야밤, 단하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본당에 안치된 목불을 끌어내 불을 지폈다. 원주 스님이 사색이 되어 튀어나왔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감히 불상을 태우다니!"

"놀라시기는……. 부처님을 태워 사리를 얻으려는 것뿐이오."

"목불에 무슨 놈의 사리가 있단 말이오!"

단하가 태연하게 응대했다.

"사리도 없는 나무 덩어리를 땔감으로 쓰는데 왜 호들갑을 떠는 게요?"

이 짧은 일화 속에 선의 특징이 드러난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활달함, 경전보다 일상의 대화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구도의 방식, 권위로부터의 일탈, 일상의 논리를 깨면서 동시에 넘어서기도 하는 촌철살인……. 화두를 통한 깨달음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서론을 길게 늘어놓지 않고 곧장 핵심을 찌른다. 화두에 담긴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에는 군더더기나 곁가지가 생겨날 틈도 없어 상쾌하기까지 하다.

이 책은 화두를 현실의 고민을 해결하는 도구로 삼아 볼 것을 권한다. 저자는 어지러운 시기에 삶에서 중요한 질문거리를 스스로 뽑아내고 그것을 화두 삼아 답을 얻고 상쾌함을 느꼈다. 이 책은 마흔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방편의 모음이기도 하고, 선의 세계로 안내하는 가이드이기도 하다. 1천 년 전 스승과 제자들의 기이하고 놀라운 대화 속에서 각자 자신만의 화두를 하나씩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프레임 깨기, 자신의 본모습 찾기, 일상의 재발견, 굴레 벗기, 물러나 쉬기, 단순해지기, 삶의 비밀, 한계 넘기, 마음으로 통하기,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기, 세상에 느끼는 관점, 주저 없이 떠나기' 등 12개의 키워드들은,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고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며 새롭게 다가올 시간을 대비할 수 있는 화두가 될 것이다. 책에 등장하는 60여 개의 화두는 선불교의 종지를 담고 있는 〈육조단경〉과 종문제일서로 불리는 공안집 〈벽암록〉, 그리고 그 외 걸출한 유명 선사들의 어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선불교에서 손꼽히는 중요한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셈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내가 괴로운 이유는 나 때문"… 나로 인해 스트레스 비롯

행복은 달처럼 우리곁에 있네

월호 스님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 4천원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변화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우주의 법칙뿐입니다.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머물렀다가 흩어져 사라집니다. 육신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현상만을 보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봄에 꽃이 피었다가 지면 꽃이 진다고 슬퍼합니다. 가을, 겨울이 지나 이듬해 따뜻해지면 다시 꽃이 핍니다. 이듬해에 피어난 꽃은 지난해의 꽃과 같은 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해의 꽃과 다른 꽃일까요? 아닙니다. 같지도 다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충분해지면 드러났다가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자연 현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나,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함께 해주는 메세지로 가득하다. 〈행복은 달처럼 우리 곁에 있네〉는 불교TV서 인기리에 방영한 〈월호 스님과 함께하는 즉문즉설〉 내용을 엮은 것으로 방송 현장서 직접 받거나 문자 메세지를 통해 받은 인생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지면에 담은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문장 문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 시대가 가야 할 방향을 담고 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자신에 대한 과도한 애정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고,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우위에 서려는 집착을 갖고 살고, 한낱 물질에 지나지 않는 몸뚱이를 치장하는 일에 집착해서 괴로운 것이다. 이 책은 달처럼 매일 존재하는 행복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한다. 너무나도 가까운 행복이 있는데,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불교TV 〈즉문즉설〉 강의내용 엮어

스트레스를 꽃처럼 가꾸는법 22가지

대부분의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는 '나'로 인해 시작되기 마련이니,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이의 고민도 한번 엿보고, 복잡한 머릿속을 쉬어 갈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도 좋겠다. 화려한 색감으로 휘감은 유화들이 더해져 독자에게 '힐링'을 선사할 것이라 확신한다.

달처럼 매일 곁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 월호 스님은 스트레스를 꽃처럼 여기는 방법, 화가 났을 때 숨을 쉬는 방법, 과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 등 구체적이고 어렵지 않은 방법들을 소개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스트레스에게 별명을 붙여 주고, 관찰하라는 것이다. '월호가 화가 났어. 아이고, 이렇게 화가 났으니 어떡할까. 헌데 화가 나서 얼굴을 찌푸리면 주름살이 늘어 좋지 않은데, 표정부터 바꿔봐야지.' 식으로 스트레스를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밉고 짜증나서 어쩔 줄 모르는 화근 덩어리가 아니라 꽃을 피웠다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여기고, 관찰해야 한다.

책에서 소개하는 22가지 방법은 너무 유난스럽거나 인생을 뒤바꿀 혁신적인 방법들을 소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유쾌하지만 조심스럽게 마음을 가꾸는 소소한 방법과 고민들이 잘 엮여 독자로 하여금 마음에 단단한 돌을 심게 만들어준다. **김주일 기자**

"분별 버리면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 …최고最高 문자 〈신심명〉서 배우는 지혜

무분별의 지혜

김기태 지음 | 판미동 펴냄 | 1만 5천원



〈신심명〉을 통해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넘어설 것을 제안하는 〈무분별의 지혜〉가 출간됐다. 중국 선종의 제 3대 조사 승찬이 쓴 〈신심명〉은 마음의 근본에 관한 짧은 시문으로, 최상 법문으로 칭송받으며 1400년간 널리 읽혀 왔다. 유불도를 넘나들며 동양 철학을 강의해 온 저자는 이 경전의 핵심인 '분별을 버리면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메시지에 주목했다. 그는 이를 '무분별의 지혜'라 명명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프레임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리네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스스로 만들어 낸 기준 때문이라고 말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적인 기준을 자기에게 들이대고 요구하며 거기에 맞추려 애쓰기 때문에 삶이 한없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고통의 여정을 끝내려면 이분법적인 사고에 근거한 '분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완전과 불완전, 좋고 싫음, 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나로 존재하는 힘, 그것이 바로 무분별의 지혜다. 이 책은 자신의 기준치에 도달하려 애쓰느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기 쉬운 현대인에게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긍정하는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우리는 언제나 '여기'와 도달해야 할 '저기'로 나누고, '지금'과 '미래'를 나누며, '좋고 나쁨', '옳고 그른 것'으로 분별하면서 그중 하나를 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리려고 애쓴다. 다만 그 분별심 하나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본래 아무런 일 없는 평화로운 존재인 것을, 그 허망한 마음을 좇아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가운데 충만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려고만 하니,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그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감정을 경험한다. 이 중에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 저자는 〈신심명〉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며 매 순간 있는 그대로 감정을 받아들일 것을 권한다.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불안, 분노, 슬픔, 우울 등의 감정을 마음 깊은 곳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어떤 감정이든 가려서 택하지 말고 귀하게 대접해서 배웅하는 것이 바로 마음 치유의 핵심이다.

"불안한가. 잠시라도 그 불안과 함께 있어 보라. 그리고 안절부절못하는 자신을 따뜻이 안아 주라. 누군가가 몹시도 미운가. 그 때문에 마음이 무척 괴로운가. 어떻게든 그 마음을 해결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를 온전히 미워하라.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감정, 느낌, 생각도 거부하지 말고 그 모두를 한결같이 평등하게 지녀 보라. 그리하면 오래지 않아 그것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며, 이와 동시에 깊은 이완이 우리를 따뜻이 감쌀 것이다."

이 책에는 동양 철학과 세계 경전을 바탕으로 20년간 마음공부, 사람 공부를 해온 저자의 내공이 오롯이 담겨 있다. 그간 강의를 통해 만난, 삶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와 옛 선사들의 일화, 그리고 논어, 도덕경, 성경 등 동서양의 고전을 종횡무진하며 인문학적 재미와 교양을 함께 선사한다.

한편 〈신심명〉은 사언절구의 73수로 구성된 선시(禪詩)다. 중국 남북조 시대와 수나라에 걸쳐 살았던 제 3대 조사 승찬이 쓴 것으로, 팔만대장경의 핵심과 불법의 정수가 함축돼 있어 중국에 불법이 전래된 이래 '문자 중 최고의 문자'라는 찬사

일상 언어로 풀어낸 마음 치유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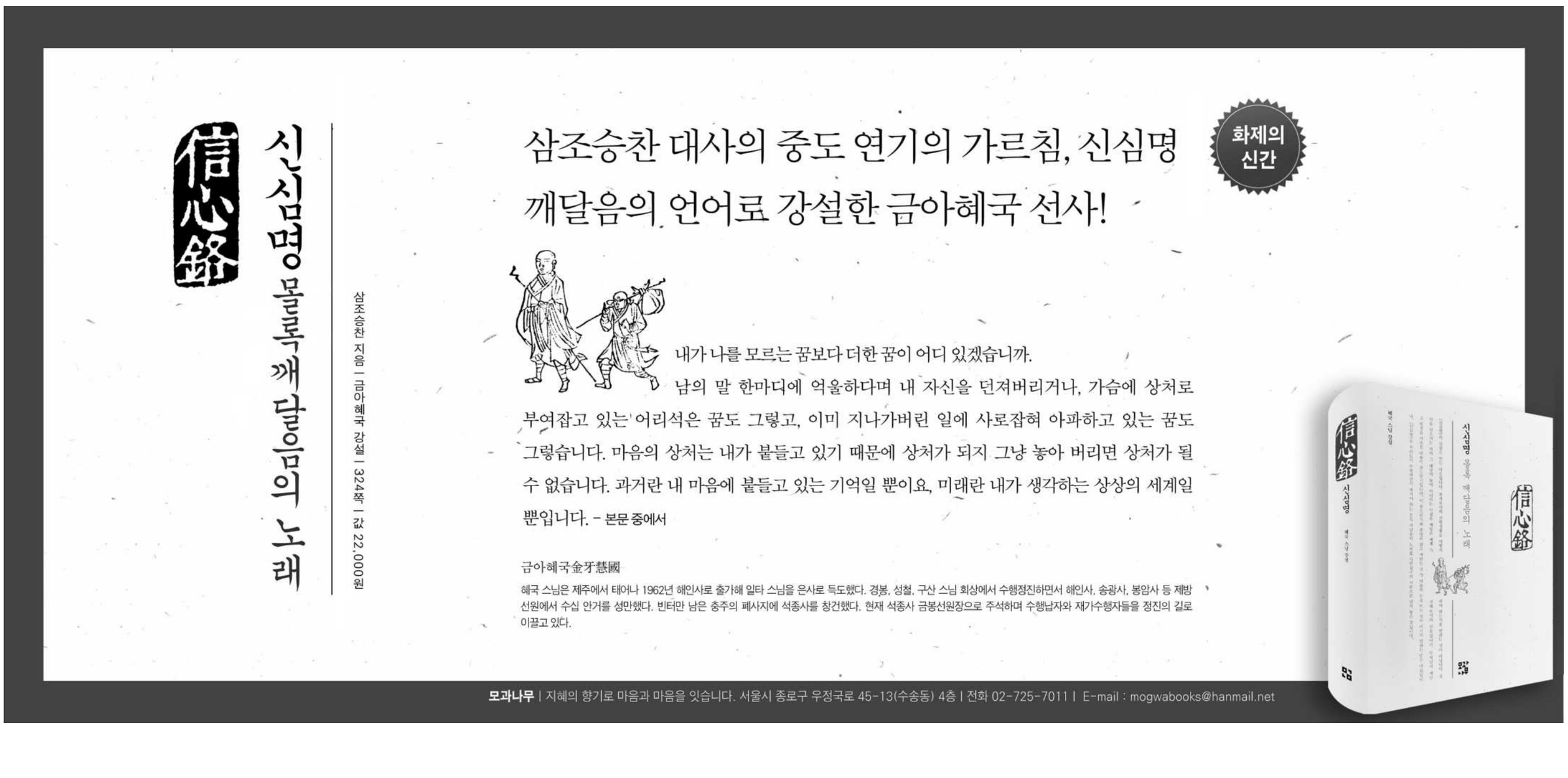
"마음껏 슬퍼하라, 깊은 위로 있다"

를 받고 있으며, 선종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시 가운데 하나로서 초기부터 널리 읽혀 왔다.

이 선시의 핵심은 다음 구절에 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가려서 택하지만 말라.(至道無難 唯嫌揀擇)" 여기서 말하는 '가려서 택함'이란 좋음과 싫음,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으로 나누고 그중 한쪽을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불가에서는 이러한 분별심을 멀리해야 도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신심명〉의 첫 구절이 대표적으로 인용된다. 다음은 분별과 관련된 조사 승찬의 유명한 일화다.

"마흔이 넘도록 심한 풍질(한센병)을 앓던 승찬은 중국 선불교의 제 2대 조사인 혜가 스님의 명성을 듣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 물었다. "스님,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혜가가 답했다. "그 죄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없애 주마." 승찬이 다시 말했다. "죄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혜가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네 죄는 다 없어졌다. 찾을 수도 없는 죄에 묶여 헛되이 고통받는 일은 이제 그만하라." 그 말에 승찬은 크게 깨쳤다. 그는 자신을 평생 무겁게 짓누르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김주일 기자



‘표리부동’의 세계, 진실을 보는 눈 가졌는가

불교로 읽는 古典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정재형
동국대 교수, 영화평론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의 한 장면을 묘사한 에드윈 오스틴 애비(Edwin Austin Abbey, 1852~1911)의 작품 ‘코델이아의 작별인사(1898년 作, 캔버스에 유채)’. 리어왕은 탐진치에 매몰된 어리석은 인간 군상의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King Lear: Cordelia's Farewell by Edwin Austin Abbey

‘표리부동(表裏不同)’, 이게 〈리어왕〉의 세계를 한마디로 표현한 주제어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고 인간의 속성이다. 리어왕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겉과 속이 다른 행태로 살아가고 결국 비극의 인물들이 된다. 그것은 소포클레스 희곡 〈오이디푸스〉의 비극과 닮아 있다. 신탁을 거역한 인간이 결국 비극에 처하게 되고 비로소 나약한 인간의 존재를 깨닫게 된 다는 것.

불교는 나약한 인간의 존재를 슈퍼맨의 존재로 끌어올리는 교리를 갖는다. 나약함에서 금강불괴의 강인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지. 그것이 불교의 인간관이다. 인간의 나약함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된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탐진치(貪瞋痴)’이다. 삼독(三毒)으로 일컬어진다. 이 삼독을 여의지 않고는 부처가 될 수 없다.

〈리어왕〉의 내용을 살펴보자. 리어왕은 권력을 내려놓고자 자신의 딸들에게 국토를 삼등분해주며 이렇게 말한다.

“이제 모든 정치적 근심과 국사를 이 노인의 어깨로부터 젊고 기운 있는 사람들에게 이양하고, 홀가분한 몸으로 죽음으로의 여행을 떠날 참이다.”

하지만 그는 말과는 달리 표리부동하다. 딸들도 리어왕의 재산이 탐나 거짓말로 사랑을 고한다. 딸 거너릴은 “저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시력보다도, 자유로 처분 할 수 있는 넓은 토지보다도 소중한 분으로서, 값지고 희귀한 어느 것 보다도 귀중하고, 사랑과 미와 건강과 명예가 구비된 생명보다도 소중한 분으로서, 일찍이 자식이 바치고 어버이가 받은 바 있는 최대의 애정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고 칭송한다.

극진한 사랑의 표현은 그 자체가 가짜이다. 리어왕은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 코델리아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며 이렇게 묻는다.

“언니들 보다 더욱 비옥한 세 번째 영토를 받기 위하여 너는 무어라 말하겠느냐?”

그러자 코델리아는 말한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리어왕은 “아무 할 말이 없으면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니, 다시 말해 봐라”라고 코델리아를 채근한다.

이에 코델리아는 “아버님은 저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보답으로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아버님께 복종하고 아버님을 사랑하고 아버님을 누구보다도 공경합니다”고 재차 말한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
진실 보지못한 리어왕의 자멸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상 그려

코델리아가 보인 평정한 마음이
범부가 미혹에서 벗어나는 방편

코델리아의 이 말은 리어왕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셋째딸에게 리어왕은 더욱 큰 기대를 하고 있었으니까. 마치 신하들이 과잉충성을 경쟁하는 맹세를 해대듯이 언니들의 사랑에 대한 표현보다도 더욱 큰 표현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델리아는 있는 그대로를 표출하였다. 일상심(日常心)이 곧 도(道)인 것이다.

코델리아의 말은 부처님의 무설전(無說殿)을 떠올린다. 부처님은 80 평생 사시면서 무수한 말씀을 쏟아내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 많은 중생들을 깨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는 ‘난 아무 말도 한 것이 없다. 내가 한 말은 단지 우는 어린애 달래는 거짓말이었을 뿐’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리어왕의 어리석음은 끝나지 않는다. “나는 저 손에 보호받아 여생을 보낼 참으로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달이 일백 명의 기사를 거느리고 너희들 부양 아래 한 달씩 교대로 두 집에 머무르면서 생활하기로 하겠다.”

리어는 두 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이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왕위를 양위하고 영토를 물려주면서도 권력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욕심 때문에 리어왕은 욕심 많은 두 딸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 물려주며 흔쾌히 모든 권력과 권한에서 손을 떼야 했다.

리어왕은 코델리아에게 화를 내며 그녀를 두둔한 충신 켄트마저 추방령을 내린다. “만약 열흘 후에도 추방된 몸을 국내에 둔다면 발견하는 즉시 사형에 처하겠다.”

리어의 욕심과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반면 코델리아는 부처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녀는 양설(兩舌)을 갖지 않았다. 코델리아는 무주상보시(無主相布施)를 행하는 아라한(阿羅漢)이다. 그녀는 무소유(無所有)를 실천한다. 그것이 리어왕에게는 분노를 자아낸 이유이다. 이처럼 성(聖)과 속(俗)은 대립하는 개념이다. 코델리아의 말과 성격에 감동받은 프랑스왕은 그녀를 왕비로 맞이하여 프랑스로 데려간다.

코델리아: “남의 안색을 살피는 눈이나 아첨하는 혓바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없는 편이 오히려 인간으로서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프랑스왕: “마음 먹은 것을 말로 하지 않고 실천하는, 말수 적은 천성 때문에? 사랑이 본질을 떠나 타산적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 것도 없어도 가장 부유하고, 버림 받았어도 가장 소중하며, 멸시를 받았어도 가장 사랑 받는 분입니다.”

리어왕의 인물들은 상반성을 갖고 있다. 양설로 남을 속이는 인물로 큰 딸 거너릴, 둘째 딸 리건, 서자 에드먼드. 이들은 정욕과 야망으로 양쪽을 이간질하거나 교언영색을 통해 권력을 획득한다.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인물은 권력에 눈이 멀어 딸들에게 속아 넘어간 리어왕, 일방적으로 말만 듣고 믿어버려 효자를 불신한 글로스터, 역시 고지식하게 한 편 얘기만 듣고 속아 넘어간 에드가가 있다. 반면 리어왕에게 인생의 교훈을 조언해주는 궁정광대는 현자이다.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충직한 인물은 막내 딸 코델리아와 리어왕에게 추방당했음에도 끝까지 호위하는 충신 켄트 백작이다.

희곡에서 핵심인물은 리어왕과 글로스터다. 둘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 중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인물들이다. 리어왕은 어리석음 뿐 아니라 성냄과 탐욕까지 고루 갖춘 인물이다. 리어왕은 거너릴과 리건이 재산을 받기 위해 아양을 떨다가 재산을 얻은 후 박대하는 행동을 그대로 받게 된다. 리어왕은 겉만 보고 판단하여 효녀인 코델리아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두 딸에게 모든 걸 잃어버리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글로스터는 큰 아들 에드가가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서자 에드먼드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게 된다. 글로스터가 에드가를 마음으로 믿었더라면 에드먼드의 얘기를 곧이 듣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계속 에드먼드의 계략에 말려들어 적국 프랑스의 스파이로 몰리게 되고 두 눈이 뽑히는 극형을 받게 된다.

글로스터: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러면 에드가는 모함을 당했구나. 나는 갈 길이 없으니까 눈은 필요없다. 눈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넘어졌다.”

맹인이 된 이후 글로스터는 자신이 에드먼드의 거짓말로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눈이 있을 때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눈이 먼 이후 진리를 깨닫는다는 역설은 그대로 불교의 진리이다. 유식설(唯識說)에 의하면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六根)의 작용은 불완전한 망상을 일으킨다. 내관(內觀)과 무념무상(無念無想)을 통해 공(空)의 진리를 깨우쳐야 해탈한다.

리어왕 역시 두 딸에게 배신 당한 후 미쳐버린다. “바람아, 불어라! 내 뺨을 찢어라! 뒤끓어라!”라는 격정의 대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리어왕은 비로소 자신의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자학하기 시작한다. 이제 그는 깨달음의 초기에 도달한 것이다. 초발심(初發心)의 상태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그의 육신은 노쇠하고 약해져 있다. 그의 앞에는 죽음만이 놓여져 있다.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죽게 된다. 우리 인간의 유한한 삶을 나타낸다.

리어왕: “우린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처음으로 이 세상의 공기를 마실 때 으앙으앙 울었잖아? 네게 일러 주겠으니, 잘 들어둬! 우리들이 태어날 때, 우는 건 바보들만 있는 이 큰 무대에 나온 것이 슬퍼서야.”

리어왕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깨닫는다.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처음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음 걸으시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셨고, 성장하면서 동서남북 문으로 인간의 생노병사를 체험하시면서 인생은 고해이며, 불타는 집이요, 독화살에 맞은 것이니, 어서 해탈해야 함을 깨닫으신 것이다. 리어왕의 깨달음은 불교적으로 설명되어진다.

리어왕에는 이처럼 맹인과 광인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그것은 불교의 가르침인 공의 원리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색즉시공(色卽是空)이고 공즉시색(空卽是色)이다. 〈금강경(金剛經)〉에 이르기를 “만약 모든 보이는 것이 그 상태가 아님을 알면, 곧 깨치리라(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의 진리다.

리어왕의 시종인 궁정광대는 이러한 진리의 상태를 바보의 언어로 표출하는 현자의 이미지로 등장한다. 리어왕과 광대가 나누는 대화는 선문답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리어왕에는 맹인, 광인, 바보의 세계가 뒤엉켜 있으면서 깨달음의 세계를 지시하며, 속세와 해탈의 불일(不一), 불이(不二) 사상을 보여준다.

광대: 사람의 두뇌가 발뒤꿈치에 있다면 터져서 피가 날 염려는 없을까?

리어왕: 그럴 염려야 있지.

광대: 그럼 안심하세요. 당신이 지혜를 가졌다면 슬리퍼를 신고 가지는 않을 거니까요.

광대는 끊임없이 리어가 지혜를 갖추기를 경계한다. 두 딸에게 배신 당한 리어에게 이제 잃어버린 권력에 대해 더 이상 분개하지도 말고 차분해 지길 바란다.

광대: 일곱 개의 별은 왜 일곱 개 밖에 아니냐 하는 이유는 재미 있거든.

리어왕: 그야 여덟 개가 아니니까 그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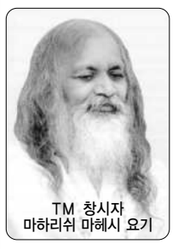
광대: 그거 명답이야. 당신도 이젠 제법 광대가 될 수 있겠는걸.

이런 문답 속에는 선(禪)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 미친 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정상이 되는 것이다. 미친 사람은 인위적으로 일을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려고 한다. 하나는 하나고, 둘은 둘일 뿐이다. 하나면서도 둘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투명하고 담백하게 사물을 직감적으로 받아들인다. 미친 리어는 내면적으로는 점점 정상이 되어가는 것이다. 욕심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어지는 것이다. 두 딸에게 배신당한 이후 일어난 변화이다.

리어왕: 저녁 식사는 아침에 하자.

광대: 그리고 나는 대낮에 자러 가야지.

리어왕은 광대에 가깝게 변하고, 그가 왕으로 살았던 지난 세상의 이치는 전도되었다. 아비가 영원히 딸을 지배하려 하고, 딸이 아비를 배신하려 하던 질서는 세속의 법이었고, 그건 폐기되었다. 광인의 세계와 바보의 세계에서 세상의 진리는 평등이다. 부처님의 말씀에서처럼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은 보이는 권력은 무상하고 인간은 평등하며 그 속에서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는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다.



가장 쉽고 빠른 힐링! 깨달음!
고혈압 • 심장병 • 우울증
불면 • 스트레스 해소
KBS(마음,생로병사의 비밀),CNN,TIME지 등에 소개

초월명상(TM) 강연회

오프라 윈프리는 왜 TM을 선택했나?
“초월명상을 하면 저는 10배나 좋아집니다.”
(미국 최고 여성부호, 방송인)

【 하버드 대학, 일본 노동성 등
세계 200여 연구소가 입증한 효과 】

수면보다 2배 깊은 휴식 / 불안, PTSD, 강박증 해소 / 지능, 이해력, 집중력 증가 / 대인관계 개선 / 흡연, 음주, 분노, 습관 개선 두뇌개발, 창의력 증가 / 당뇨, 비만 등 신진대사 증후군 개선 내면의 평화, 삼매경 체험 /자아완성(깨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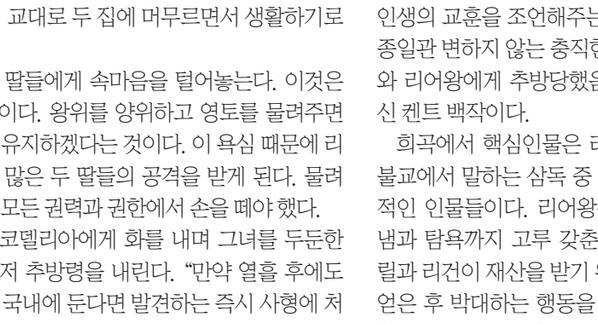
“초월명상으로 암 사망률 50%, 심장병 사망률 30% 감소 입증”
[2005년 5월 2일 SBS 8시뉴스, 중앙일보 의학뉴스]

곳 : 한국초월명상원 (서울 강동구 천호1동 4-2 세일빌딩 601호)
(명일역 1번출구, 사거리에서 우회전 250m, 강동삼성한의원건물 6층)

문의 서울 598-3152 / 010-7504-1299
www.tm-korea.org (기업 및 지방 출장 강연 환영)

▶ 미국 심장협회가 유일한 뇌졸증 치유 명상법으로 권장 !
▶ 일본 150여 기업 등 세계 유수 기업들 도입 !
▶ 세계 1천여 학교에서 시행, 브라질 전 국립학교에 도입 !

대한민국 새로운 장래문화
분 재 공 원
특허권취득! 화분장묘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없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읍시다.



화분장이란?
연꽃좌대화분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장 점
◆ 이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1기의 화분장은 가족모두 신도화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상조회사. 지역장례식장. 신도가족의 영업방안.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조성
◈ 현 수목장비용 300 ~ 500만원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영가등.천도재.기타

화분장묘 특허권자 : 김성만 / 특허번호 : 제 10-1467668
상담전화 : 054)331-9303.010-8458-3310
www.화분장.kr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뜸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편안하게 배에 차기만 하여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이열치열 : 여름철은 뱃속이 더욱 냉합니다. 본제품 사용으로 뱃속의 냉기를 몰아내면 배탈없이 건강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낼실수 있습니다.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헬스온열복대는 금강약돌 바이오세라믹 육각거북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도 화상 없이 신체 깊은 곳까지 강력한 원적외선 이 방사되어 원적외선“열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 다 복대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숙변배출효과 스트레스성 대상증상.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 관절, 전립선, 혈액순환 조절, 산후조리 오로배출효과 , 소화불량, 숙취, 체질개선, 등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대하등을 자연치유 시키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시간 사용시 하복부에 탄력를 주는 다목적 뜸온열밸트입니다.

온열복대 사용후 : 일주일 정도는 평상시 보다 대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문의전화_ 02.723.009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구제품을 가지고 계신 교우님께서는 보상판매를(신제품교환) 받아 사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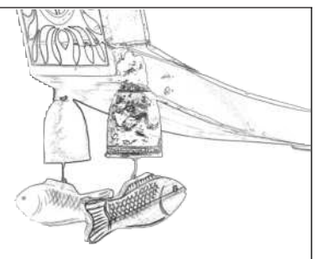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자녀가 있는 자는 자녀로 근심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로 근심한다.
실로 인간이 집착하는 것이 근심이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벽조목 진품
(벼락맞은 대추나무)
신지기기(神知奇知) 신비의 명물
벽조목으로 제액처방
비법전수,부귀공명,입신출세,빙의,간질,매매
*직접오셔서 진품을 구경하시고 주문하세요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을 치시면 구경가능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 136 지장선원
054-383-8553 / 010-8585-4908
cafe.daum.net/JJUJUbe



범패의식 교육도량
의식을 쉽게 개인지도
일반의식 바라, 작법무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점안식,불교행사
(보현사)
011-482-2091
051-557-1130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육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제주 갓바위 부처님
이제는 제주시대!
세계 관광의 中心, 한가지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전설의
갓바위 부처님 (세계 소원사)
창건 중. 동참자, 인수자 불심
깊은 보살님을 초대합니다
010-9089-3538 하회장

정원불교무용단
- 사찰의식에 필요한 작법을 정성껏 해드립니다.
- 바라작법,살풀이,극락무, 연화무,비천무,회심곡...
- 49재,천도재,산사음악회
- 배우시면서 행사 함께 하실 분 모집
010-3172-1145

침술, 한약, 뜸, 부항, 맥진법
기초부터 고급과정
까지 수강생 수시모집
010-6536-3510

사찰 운영하실
분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0-2078-959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010-3647-0018

홀로 사시는
신심깊은
보살님을
찾습니다
010-2827-574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공주, 계룡산)
042-825-1724

주지 원합니다
미륵신앙을 받은 60대
비구스님 안계신 절
합의 운영 포교. 정기법회
불교대학 가능한 절
031-373-1125

적은 보시금 받고 남은
여생을 같이 지낼 수 있는
세수 55 ~ 63세
비구 스님 모십니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499-372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밀양 산중 조용한 암자)
010-4484-5758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특수하고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인천행 지하철 부천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2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53-474-8228, 010-8582-7034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구성학+현공풍수양택 7월 지역별 강의일정
■ 서울지역 무료공개강의 : 7월 15일 수요일 오후1시-4시
개강일 : 7월 22일 수요일 오후1시-5시(매주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강의장소 :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 대전지역 무료공개강의 : 7월 16일 목요일 오후1시-4시
개강일 : 7월 23일 목요일 오후1시-5시 (매주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강의장소 : 대전 서구 용문동 243-18번지 2층
010-5116-9313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성학 현공풍수양택학회 강남 안병내 배상

불교수련원, 사찰 명당 터
(경기 양평)
- 위치 :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685-1 산음캠핑
- 현 캠핑장으로 운영 중이나 개인사정으로 급 안내하여 드립니다.
- 18,000여평에 캠핑장 15동 / 수영장, 체육시설 완비
- 캠핑장 운영으로 조경시설 완벽
- 가액 : 38억
문의전화 : 010-6335-0695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①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②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③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기문둔갑 강의안내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기문을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운명에 공직자,사업자,직장자가 정해져 있다. 공직 생활할 운명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며, 사업자가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부도가 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이 왜 공부가 안되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 공부가 안되는지 본인과 잘 맞는 학과 선택을 잘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떤 질병을 타고 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게 기문이다.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5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성의껏 강의 해 드립니다.
(스님직접 강의, 항상 문의 가능) 010-3544-9777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전화 010-7415-0803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 (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우리의 마음은 갖가지 번뇌 망상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우리의 얼굴이나 모습도 일렁이고 왜곡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결이 조용해지면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나타낸다.

- 법구경 -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1,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년된 벽락맞은 대추나무 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 (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논산시 사찰전세7천만원
- 2층법당58㎡요사110㎡공양간
- 토지600㎡, 마을주변, 깨끗함
- 전세금액 7천만원(양도 가능)
- 집기류완비즉시법회가능(월세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총평수 800평 건물, 법당
- 요사채 합 50평, 산신각 5평, 용왕당 2평
- 가액 : 3억 2천만원

010-8034-8309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
- 대지 183평, 인법당 20평 요사채 60평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가액 : 2억 6천만원

010-2060-279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인천 ◎ 위치:경기
◎ 부지:60평 ◎ 대지:220평
◎ 법당:40평, 교통편리 ◎ 법당:50평
◎ 요사:60평 ◎ 요사:60평
◎ 양도:8억7천 ◎ 양도:6억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연무대사찰 급 양도
* 법당 69㎡, 요사채 73㎡, 토지 850㎡
* 논산훈련소부근 사찰. 주차장 있음
* 인수가 7천만원(융자5천만원 별도)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구의동
- 약 60평, 2층에 2층
- 법당 30평, 요사 30평 방 2개, 화장실겸 욕실 2
- 가액 : 2,000만원에 12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5497-7667

작은암자(급) 안내

- 위치 : 경주시 서면
- 대지 100평, 건평25평, 실평수 35평정도
- 신축 목조주택 임법당, 몸만오시면 됨 불사 완벽하게 했습니다
- 동네끝집 절옆으로 조용한 차도로 있음
- 가격은 1억 9천 정도이나 직접와 보시고 형편대로 절충하셔서 상의하십시다 대출 6천정도 됩니다
- 꼭필요하신 분께서만 전화주십시요

017-808-2543

사 찰 안 내

- 위치 :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 980번지 (칠서 IC에서 5분거리)
- 대지 330평, 삼신각 5.2평, 대웅전 15평 요사채(가건물) 30평
- 가액 : 4억 5천

010-4819-8690

포교원 안내

- 위치: 포교원 최고의 위치 부산 서면역 3분거리
- 5층건물에 4층 47평(엘리베이터)
- 법당(20평)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 후불탱화 108호신불, 시설완비, 강의실(명리학, 불교대학, 불교의식)겸
- 공양간(17평), 종무실, 주지실 (10평)
- 가액: 보증금 2,000만월,월10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 명리학 공부하신 스님 최고의 조건

문의 : 010-3711-5072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
- 대지 800평, 대웅전 2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 산세좋고 물 맑은 곳 기도하기 좋은 사찰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가액 : 3억 2천

011-9571-655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사 찰 안 내

- 위치: 창원 도심 사찰 의창구
- 교통, 경치, 생활방편 양호
- 슬래브지붕, 토기와 올렸음
- 6층 전체사용, 상가빌라 2채
- 도시가스, 수도직수, 지하주차장
- 전유면적 많음
- 건평 : 종교시설 601호 33.56평, 법당, 단청 602호 요사채 26평, 주택
- 가액 : 3억

010-4548-7662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산 남부시장옆
- 2층 80평, 법당내 삼존불, 본존탱화, 신중탱화
- 방3개, 공양실 1, 화장실, 엘리베이터 사용
- 가액 : 보증금 5백만, 월45만 시설비 절반가 6백 5십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7283-0089

좋은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 대지 405평
- 대웅전 : 섣가래 목조기와 지붕 30평, 단청필
- 삼성각 : 섣가래 목조기와 지붕 5평, 단청필
- 요사채 : 55평 콘트리트 기와 지붕, 단청필
- 화장실 및 창고 약 20평, 교통 편리함
- 주지스님 건강 악화로 부득이 급안내
- 가액 : 6억 5천만원(감정가 5억으로 3억 대출가능)

010-6664-1662 (주인직접)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부천역 5분거리 소사역 6분거리
- 5층 건물에 5층 100평 (엘리베이터)
- 법당, 공양실, 종무실, 접견실, 방4개, 화장실2개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4,000만원(절충가), 스님 건강 관계
- 시설완벽, 즉시법회

010-4413-4268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121, 1121-1, 1125번지
- 종교부지 : 302평, 과수원 390평
- 전기, 토목공사 완료
- 지관이 추천한 명당
- 가액 : 1억 5천만원

010-7156-9687
현장 답사후 연락주세요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 ~ 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영광군
- 대지 500평,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6평
- 연못 차고 유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235-1112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 용흥동 구포항역 도보5분
- 평수 25평, 법당, 방한칸, 주방
- 집기류 일체 두고감
- 가액 : 보증금 5백 월 20만원 시설비 7백만원

010-7788-3320
010-3290-6699

전원주택-사찰 양도,차판판매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에
- 대지 약 600평 주거건물 및 창고 포함
- 입주 후 바로 생활 가능
- 별장으로 최상. 가야산 정상 조망 수도자분께도 최적의 장소 텃세없고 조용한 마을
- 개인소장 차판 판매(번개맞은 나무. 기목. 괴목. 대추나무 등) 기암괴석
- 고가구 판매 • 가액 : 3억5천

010-8880-8911

사찰 (급) 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법당,포교원 안내

- 위치 : 안산IC,서울외곽순환도로 바로진입 위치좋은역세권
- 교통편리,유동인구, 유동차량 많은 대로변에 위치
- 법당, 포교원, 수련원으로 아주 적합
- 상가형성 잘되어 입지조건좋고, 일체 종교행사 민원없음
- 전철, 농수산물시장10분거리
- 4층독채(엘리베이터있음), 실평수 60평, 법당, 주거 겸용 풀완벽 리모델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 90만원 시설비 4000만원, 가격절충가능

핸드폰 010-5913 -7239
010- 3145-8626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 수십년된 명당터 사찰
- 대지 420평, 법당 1동, 요사채 1동
- 공찰소임 관계로 조건 맞는 스님께 협의 양도코저 함
- 가액 : 협의 조정

010-4263-0801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 3층 건물중 3층(75평)
- 단독등기 이전 가능 최고명당터 자리
- 시설완비
- 가액:1억 8천만원(절충불가)
- 꼭 필요하신분 연락 요망

043-845-8123

마 산 암 자 안 내

- 위치 : 마산 무학산 입구 주차편리
- 2층 건물 1층 법당, 2층 방 2칸, 친견실 별도
- 특징 : 37년간 암자로 사용
- 삼존불, 용왕당
- 건물 깨끗함(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전 월세(8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7169-9878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해도동 포교당 35평
-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격 : 보증금 300백, 월50만 보증금 포함 1천 5백만원 방문 후 가격절충
- 은사스님노환으로 인해 급 안내
- 필요한분만 연락바람

010-9071-604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소재
- 삼존불, 방 5, 공양간
- 평수 85평
- 가액 : 전세 4,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백만원 (절충가능)

010-8384-7754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좋은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 종교부지 160평, 대웅전 25평, 전110평
- 스님방, 공양주방, 삼존불, 각단탱화(소불)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대출 4천안고 2억 3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1-1번지 외
- 6필지 대지 2,000평, 답 750평
- 임야 11,000평, 국유임대 550평, 건평 400평
- 국도 근접 희망가 10억 일부
- 대물 및 후불 양도 가능

010-8899-8899
010-7621-7621(주인직)

암 자 안 내

- 위치 : 전남광주인근, 옥과면
- 사자봉 적송림 7부능선
- 산 : 1만2천평, 종교부지 650평 노천 약사석불12자,
- 건물 : 조립주택 3동, 암반식수
- 특징 : 암자, 연수원, 선원, 별장, 인근, 초중고,대학교있음
- 가액 : 3억 7천만원, 조건부협의가능

010-8224-1688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국도변
- 2층 건물 2층 전체 70평
- 법당 35평(개금, 삼존불) 요사 35평
- 방2개, 사무실1개, 공양간, 주차장
- 스님 건강상 문제로 급 양도
- 시설완벽, 법회즉시 가능
- 가액 : 전세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3574-3885

부산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온천장 중심지
- 대지 54평, 건물 100평, 4층건물 법당30평
- 지하철 온천장역, 명륜역 중간 버스 정류장 50미터 이내
- 가액 : 5억 8천(시설비 포함) 시설비 1억이상 들었음

010-4583-05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 가능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11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4646-3638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 포교원 52평
- 주차시설 편리 지하철 인접
- 원목 인테리어 시공
- 가액 : 보증금 1,000원 월 6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0-2591-4589

절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신녕
- 전답 3000여평
- 가옥 60여평 한채 토지조성 완비 대형차 진입가능
- 사계절 물 흐르고,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있는 곳 주변 경관 좋음
- 가액 : 4억

010-6253-310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포교원 52평
- 주차시설 편리

토 굴 터 안 내

- 위치:경북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 502번지
- 토굴터 396평
- 가액 : 25,000,000 원정

010-8852-1479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4〉 지금 상태 그대로의 인생 바라보기 ㊥

생각은 생각일 뿐… ‘사실’ 이라 믿을 때 고통 초래



자신 그대로 모습과 화해하기

병에 걸리기 몇 해 전 나는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아야 케마가 이끄는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했었다. 그 명상 프로그램에서 아야 케마는 생각의 본성에 대해 강연했다. 내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했다.

“생각들은 우리 주변의 공기처럼 다만 그곳에 있습니다. 생각들은 일어나곤 하지만 제멋대로이고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것들 대부분은 그저 형편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것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고, 병에 걸리기 전까지 그 가르침을 적용하는 데 상당히 능숙해졌다. 특히 정식 수행 중에는 마음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인격이 없는 에너지로 대하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다.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고통은 내가 그 생각을 믿을 때, 그 생각의 내용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믿을 때 생기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오늘 내 불법행위 수업은 잘 안될 거야.’ 라는 생각이 그 수업에 별로 좋지 않으리라는 의미는 아님을 알게 되었다. ‘생각을 믿는다는 것’ 은 우리가 그것에 매달리면서 고통의 바퀴 위를 계속 돌고 도는 상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파리 독감이 강타하기 전까지 나는 생각의 본성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고통을 불러일으키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 자신을 하루 종일 병상에 밀어 넣고 나자 갑자기 내 생각들이 모두 인격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아야 케마가 말했듯 생각은 제멋대로이고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그 모든 생각들이 다음과 같은 절대적 진리의 힘을 갖는다고 믿게 되었다.

‘나는 다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할 거야.’

‘어떤 의사도 나를 치료하고 싶어 하지 않아.’

‘친구들은 모두 나를 저버렸어.’

‘내가 토니의 인생을 망쳤어.’

생각과 고통은 이제 내 인생에서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고 있었다. 고통에 압도될 때면 종종 그렇게 했듯이 이번에도 나는 붓다의 도움에 의지했다. 《법구경》이라는 조그만 책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경구 하나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생각으로 세상을 만든다.”

내 생각이 나를 고통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나를 옭아맸다. 내가 토니의 인생을 망치고 있고 다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리라는 생각들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내 생각이 만드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나는 나에게 영감을 주는 교사 바이런 케이티(미국의 영적 교사)의 도움을 받았다. 케이티는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 이라고 부르는 것의 타당성에 의문을 품으라고 권한다. 그녀는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 방법을 소개한다. ‘작업’ 혹은 질문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믿을 때 그것에 따라오는 고통을 보여 주는 방법이다.

질문 수행 바이런 케이티는 스트레스나 고통의 근원이 되는 생각의 타당성에 의문을 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묻는다. 그 경우 나의 대답은 이러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지 묻는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의 타당성을 의심하는 데 있어 세 번째 단계는 그 생각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그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는지를 명상하는 것이다.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되자 나는 해방감을 느꼈다. 무거운 짐이 덜어진 느낌이었다,

그 다음은 다섯 번째 단계이다. 이것은 직관을 거스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바이런 케이티는 우리에게 ‘뒤바꾸기’ 를 하도록 요청한다. ‘뒤바꾸기’ 는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원래 표현과 정반대로 말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말을 접했을 때는 터무니없게 들렸다. 그러나 ‘내 친구들은 나를 저버렸어’ 라는 생각을 뒤바꾸자 내 친구들이 나를 보러 오지 않는 데는 진정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 주변에 있는 것을 불편해한다. 자신도 아프게 될 까봐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를 방문하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할까봐 찾지 않는 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더 이상 그들과 연락을 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실을 어찌 알겠는가?

뒤바꾸기 작업을 하자 예상치 못한 통찰 두 가지가 생겼다. 첫째, 왜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는지에 대해 가능성 있는 그 모든 이유를 만들어 내는 동안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단지 나를 찾아오지 않거나 전화조차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나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나아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둘째, 친구들이 나를 보러 오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이 아닌 그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 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어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붓다가 말했듯이 우리는 생각으로 세상을 만든다. 나는 억울하고 분한 세상을 창조했었다.

내 고통의 근원은 친구들이 아니었다. 그들에 대해 품은 확인되지 않은 생각이 그 근원이었다. 내가 느낀 상처는 스스로 불러온 일임이 밝혀졌다. 이제 그것은 치유되기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나를 보러 오지 않는다고 친구들을 비난하는 일을 그만두었고, 그들이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추측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바이런 케이티의 질문은 고통의 근원인 생각을 점검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를 붓다의 두 번째 고귀한 진리로 인도한다. 고통의 근원은 욕망이라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생각의 이면에는 지금 이대로의 상황이 아닌 다른 상태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다. 나는 친구들이 나를 보러 오기를 바랐다. 바이런 케이티를 만나기 위해 ‘영혼의 바위’ 에 가기를 바랐다. 아프지 않기를 바랐다. 이 ‘네 가지 질문과 뒤바꾸기’ 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화해하게 만드는 도구를 제공한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기

파리 독감이 만성병으로 굳어졌을 때 나는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서 가능성 있는 치료법을 모두 찾아보았다. 나에게는 ‘거부반응이 일어난 보충제 상자’ 라 부르는 커다란 보관함이 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어떤 종교를 믿든 관계없이 명상 수행을 시작한 것이 자신이 시도해 본 일 중 가장 도움이 되는 단 하나의 치료였음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독실한 불교도는 그것을 외면했다.

병이 났을 때 나의 10년간의 좌선 명상

> **일어나는 생각 통제할 수 없어**
> **생각이 ‘사실’ 이라 믿으면 고통**
> **과거 고통 한순간 ‘놓아버리라’**
> **“미래 걱정 대부분 일어나지 않아”**

수행은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였다. 나는 ‘들숨과 날숨에 깨어있는 마음’ 이 되라는 마음챙김 수행의 전통적 지시에 따라 하루에 두 차례씩 45분간 명상 수련을 했다. 이 수련은 ‘호흡 쫓아가기’ 라고도 한다. 호흡을 하다가, 다음 날 끝마쳐야 하는 온갖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흐트러지면 나는 호흡을 쫓아가는 일에 다시 부드럽게 집중했다. 그 가르침의 목적은 우리의 주의를 현재 순간의 경험으로 계속 되돌리는 것이었다.

2001년 7월 ‘영혼의 바위’ 명상 프로그램에서 나는 셋째 날 아침에 일어나 다른 형태의 파리 독감이 다시 돌아왔음을 깨달았고 그 사실을 명상 교사와의 그 다음 면담 시간에 이야기 했다.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명상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러나 아플 때가 명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말만 들었다. 죽음에 다가갈 때를 준비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호흡을 쫓아가고 신체 감각이 생길 때 그것에 주목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래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명상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그 아픈 감각은 내가 함께하기에는 너무도 불쾌할 뿐이었다. 인터넷에서 만성병 환자에게 명상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읽을 때마다 나는 실패자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명상을 시도할 때면 불편할 정도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와 몸을 으스러뜨릴 것 같은 피로가 나를 압도했다.

내가 마음챙김 명상을 다시 시작하기까지는 7년이 걸렸다. 틱낫한의 책들이 계기가 되었다. 그의 가르침은 정식 수행이든 아니든 현재 순간에 깨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음’ 이 어떻게 고통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두 가지 수행을 알려 주고 싶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기 명상 마음을 현재 순간에서 떼어 내어 의식적으로 과거로 데려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신을 탓하게 만든 일, 자신이 후회하는 일 혹은 자신을 슬프게 만든 일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제 이 슬픈 기억 혹은 스트레스를 주는 기억을 마음속에 단단히 유지하고 있다가 다만 ‘놓아 버리라.’

아마도 수백만 분의 일 초 동안만 놓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놓아 버린 뒤 자신의 주의를 감각 기관을 통해 현재 입력되는 것으로 돌린다. 그것은 당신이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는 것일 수도 있다. 발에 느껴지는 땅 위의 감촉이나 몸속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의 느낌일 수도 있다.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수행을 다시 해 보라. 수행을 하다 보면 ‘놓아 버리라’ 는 명령에 의해 그 기억은 사라지고 거기에 뒤따라오던 고통도 사라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을 현재 순간에 두면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게 되거나 몸에 닿는 산들바람의 감각을 느끼게 되거나 벽의 아름다운 무늬를 보게 되거나 부엌에서 무엇인가를 요리하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제 이 수행의 두 번째 부분으로 옮겨가 보자. 걱정이 되거나 스트레스 혹은 불안의 근원이 되는 ‘미래’ 의 어떤 것을 생각함으로써 현재 순간으로부터 마음을 의식적으로 떼어 놓는다. 나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의 근원이며 지금까지도 되풀이되는 생각이 하나 있다. 토니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갔을 때 그 옆에 내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것이다. 의사들을 대하고 토니를 간호해야 하는데 그 일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자주 떠올린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이렇게 한다. 첫째, 그 두려움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것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아 그래, 내 오랜 친구인, 병원에 갈 것 같은 불안감.’

그런 다음 그렇게 떠오른 생각을 다만 놓아 버린다. 그리고 나의 주의를 시각이나 청각, 후각이나 촉각으로 돌린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놓아 버릴 때마다 나는 현재 순간 속에서 휴식하고, 그러면 그 생각에 따라오는 두려움과 고통은 무거운 짐을 덜어 버린 듯 사라진다. 나는 그 생각이 또다시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나는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에 관해 마크 트웨인(미국의 소설가. 《톰 소여의 모험》집필)이 남긴 말을 좋아한다.

“나는 긴 인생을 살았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았지만 (중략) 그것들 중 대부분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 글은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문학의 숲)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월호 스님이 잔잔하게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전하는 **참선 이야기**와
하루하루 일상속의 깨달음을 보여주는 **‘냥의 수행일기’**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월호 · 배종훈 지음 | 변형신국판 올칼라 280쪽 | 16,500원

참선은 의미가 있다. 카툰은 재미가 있다.
그래서 참선과 카툰이 만난 것이다!

모든 사물을 정신과 물질의 두 가지로만 나누어 관찰하는 서구식 사고로는 참선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플라톤의 고양이는 천국에 원본이 있다. 현실의 고양이는 사본에 불과하다. 하지만 참선의 고양이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항상 귀중한 원본이다. 고양이를 살려낼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대에게 달려 있다. – 월호

민족사 전화 (02)732-2404

물도 뱀이 먹으면 독, 소가 먹으면 우유



게임은 시간을 정해 두고 즐기겠어요

I won't play games or be on my computer longer than I'm allowed.

컴퓨터가 등장했던 1940년대, 컴퓨터의 크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에니악은 무게가 30톤이나 나갔습니다. 크기가 작은 컴퓨터는 1976년에 등장했습니다. 스티브 잡스(Steve Jobs, 1955~2011년)와 스티브 워즈니악(Steve Wozniak, 1950~)이 애플 컴퓨터를 만든 것입니다. 1981년, PC(Personal computer)라는 이름의 개인용 컴퓨터가 세상에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컴퓨터는 이제 각 가정에서 누구라도 손쉽게 쓸 수 있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고 30년 남짓 지난 지금, 사람들의 생활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정보를 얻고, 멀리 떨어진 사람과도 쉽게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물건 구입하기나 은행 일도 집안에서 척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인터넷이나 게임 등에 심각하게 빠져드는 중독 현상입니다. 특히 인터넷, 게임 중독은 어른보다 어린이, 청소년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 안의 컴퓨터라고 하는 스마트폰까지 보급되면서 전자기기에 빠져드는 어린이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게임은 분명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눈이나 척추 등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운동부족이 생기는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성격이 예민해지고 참을성이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불경에는 똑같은 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컴퓨터가 건강에 해가 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 컴퓨터나 게임 때문에 부모님들께 걱정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 컴퓨터 중독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 컴퓨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양한 예술 작품에 관심을 갖겠어요

I will try to experience different types of art instead of only watching TV.

얼마 전, 미국의 뉴스 방송국이 재미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기후변화, 테러, 경제 뉴스와 함께 연예계 소식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연예인의 소식을 따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면 몇 해째 연예인이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1순위입니다.

이유는 멋지게 보이기 때문이랍니다. 연예계에 관심을 갖고 장래에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온통 연예계에만 관심을 두면 예술작품을 보는 눈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술작품을 많이 접한 사람은 관찰력, 상상력, 창의력, 표현력 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고 표현하는 동안 행복감을 느낍니다. 음악, 미술, 문학, 사진 등 우리 주변에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계에만 쏠았던 관심을 예술 쪽으로 조금만 옮겨본다면 다양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예술작품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예술작품을 자주 접하나요? 기억에 남는 작품은? 그 작품에서 받은 느낌을 말해 보아요.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겠어요

I will not provide my name, address or phone number to strangers on the Internet.

1998년에 개봉한 영화 '트루먼쇼'는 전 세계에 생방송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목입니다.

주인공인 트루먼은 태어나면서부터 서른 살이 넘도록 전 세계인에게 사생활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자기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트루먼 몰래 만들어지는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사실을 눈치 챈 트루먼은 자기에 관한 내용을 남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며 한탄합니다.

자기 생활을 다른 사람들이 감시하듯이 낱낱이 들여다본다면 끔찍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트루먼처럼 자기 정보가 낱낱이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개인 정보를 몰래 빼내서 보이스 피싱 같은 범죄나 자기 이익을 위한 일에 쓰는 나쁜 어른들 때문입니다.

요즘은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알아도 그 사람이 인터넷에서 어떤 상품을 구입했고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은 나를 대신하는 개인정보입니다. 남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말고 소중하게 관리하기 바랍니다.

* 자기를 나타내는 개인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남들이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봉침교육 숙박휴양
건강힐링캠프

암환자 전문 요양소
수 시 건 강 상 담
유기농 죽염식단
원장 천범석
황토 통나무집에서...
본연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 내몸 스스로가 자연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치유요양원
http://healthycamp.co.kr
(검색창에서 '건강힐링캠프'를 치세요)
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


거제멸치.미더덕 청정지역
거제 가조도 섬마을, 작은사찰내 삼성각 건립을 위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에 동참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사찰과 불자님 단체구입 환영
아파트, 중소기업 단체 환영
멸치는 참멸치, 청어멸치, 다신멸치
1박스 1.5kg (가격 10,000원 부터)
미더덕 2kg (가격 13,000원) 아이스박스 택배
택배는 멸치 5박스, 미더덕 10kg 주문시에는 택배비 무료
※ 소비자와 직거래로 신선도 유지 및 재고는 일체 취급하지 않습니다.

쫀득쫀득 멸치

그윽한 향 미더덕
농협 352-0211-4308-13 (예금주 : 박동열)
구입문의 : 055)633-9766 / 010-7169-9878
거제 금룡정사 대정 스님(두손모음)

기도치료학
우리는 에르스로 인해 인간 능력의 한계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만 잘 드려도 대부분의 질병은 예방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치료법은 불. 보살님의 가피력에 의한 치료법입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치료로써 낫지 않을 병은 없습니다.
책 550페이지 값 24,300원
부처님은 大醫王이십니다.
우납은 부처님의 대의왕 의맥(醫脈)을 세우기로 발원하여 이번에 위 서적을 발간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반드시 대의왕이신 부처님의 불교 의맥(佛敎醫脈)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제방 큰 스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자 정 보 석 性照 합장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光法寺
책 구입 : 경남 010-2093-3385, 011-557-2773, 010-2736-9910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림)
입금 온라인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불자 세상보기

메르스의 네 가지 해결책, 사섭법



선업 스님
봄 행복치유센터장

종교는 크게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변이 가능해야 세월의 터널을 통과하여 존재 가능하다고 한다. 첫 번째는 옛날부터 있어온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다. 경전의 (〈앙굿따라 니까야〉 AN 8 24 핫타카 경) 해답은 네 자지 해결책을 담은 '사섭법' 이다.

첫 번째 해결책은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나눔인 '보시' 의 실천이다.

반갑게도 보시행의 실천자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여러 지역의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줄여 받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은 고무적이다.

'메르스 월세' 라는 별칭의 보시 선물은 삶의 팍팍함을 녹여주는 좋은 예로 등장하며 세상의 살맛을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부드럽고 사랑이 담긴 말을 나누는 '애어' 의 활용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 위험에 노출돼 보름 동안 자가 격리됐던 한 간호사가 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 근무하는 자신으로 인해 자녀들이 등교 금지 조치를 받은 것을 보고는 가슴이 아팠다"는 내용의 편지글이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편지로 인해 간호사의 자녀들이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학교 측으로부터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뒷이야기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말 씀씀이에 대한 숙제를 우리 사회에 던져주었다.

문수보살 게송을 보면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 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마음이 맑으면 말이 부드럽고 진실해지고 말을 진실하고 부드럽게 하면 사람에게서 꽃보다 더한 맑은 향기가 나는 법인데 자신의 자녀를 챙기는 것이 지나쳐 안 그래도 힘겨운 이들에게 가시 돋친 말을 쏟아낸 것은 도가 지나쳤다. 이 때야 말로 "힘내세요. 우리가 곁에 있습니다"라는 따뜻한 말로 마음 아픈 이들의 마음을 녹여야 한다.

세 번째 해결책은 자신보다도 남을 먼저 이롭게 하는 이타적 행위를 나누는 '利行(이행)' 의 이행(履行)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스스로 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이행' 의 좋은 예이자 나눔 활동의 꽃이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메르스 극복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1천

참 보시는 이웃에 대한 '배려'
오가는 말 '따뜻하게' 하고
스스로 봉사의 삶을 늘려야

500명 가까이 모였고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자체의 일원으로 메르스 감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일손 돕기 활동, 방역활동, 자가 격리 지역 후원물품모집 등 적극적으로 돕는 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비의 손길로 어려운 곳들을 토닥이고 있다.

네 번째 해결책은 어울려 함께 사는 삶을 나누는 '동사(同事)' 의 생활화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우리 삶의 터전에 던져진 숙제이다. 사회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회복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사회탄력성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함께하는 삶을 지지하는 내적 네트워크가 공고하다면 별 문제 없이 이번 일을 극복하겠지만 이웃과 고락(苦樂)을 나누는 삶의 중요도가 떨어진다면 이번 일의 후유증은 더욱 깊고 오래 갈 수 있다.

어울림은 상대방이 있기에 자기 자신도 존재한다는 연기적 자각이 서로 배려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 현실화될 때 나타나는 결과이기에 이번 사태 해결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월세보시, 애어보시, 행동 보시, 어울림 보시가 동시 다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붓다의 정신을 이어 받은 의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로 힘 든 이 때야 말로 네 가지 해결책인 사섭법으로 사회적 난관을 극복하는 불자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반대

일본정부가 유네스코 심의에서 하시마 탄광(일명 군함도)을 비롯한 일부시설에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다고만 설명하기로 했다. 강제징용 사실은 끝까지 부인하는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이에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에게 입장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일본의 강제징용, 세계인이 안다"



이상근 공동대표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이번에 일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신청한 23곳 중 7곳은 일제강점기와 침략전쟁시기에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필리핀 등 당시 피압박민족과 연합군 포로를 강제동원해 노역을 시킨 곳이다. 특히 하시마 탄광은 아이들을 동원해 해저 1000미터까지 갱도를 파고 채탄작업을 시킨 곳으로 지옥도라고 불린 곳으로 나가사키 조선소, 비행장 등에 동원된 강제징용자들은 원폭 피해까지 입어 1만명 이상의 조선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782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니 그 피해규모가 상상을 넘는다. 특히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징용했고, 수많은 희생이 발생했다.

이번 등재 심사를 앞두고 일본정부가 보인 행보는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마땅했다. 근대산업시설이라는 명분하에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특히 강제징용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

조선정벌 등을 주창한 군국주의자 양성소인 쇼카손주쿠도 등재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강제동원 기록뿐만 아니라 일본 측의 양심에 의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일본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행보는 한국과 중국 등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세계 각국의 우려를 자아낼 것이다.

유네스코가 일본의 자금을 앞세운 로비에 무너진다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은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정글사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에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의 대응능력을 비판하고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저지하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국내외적으로 양심과 문명의 이름으로 막아야 한다.

"日과 조건부 진행이라니, 한국정부에 실망"



김한수 할아버지
강제징용 피해자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된 아픔이 있는 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에 미리 정부가 조건부 합의를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로 실망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강제 동원돼 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다.

본인은 1944년 8월 당시 26세 나이에 황해도 연백에서 강제징용당해 나가사키 조선소에 배치돼 군수물자를 생산하는데 동원됐다. 1945년 8월에는 나가사키 원폭피해로 피폭당하기도 했다.

머나먼 이역 땅에서 가혹한 노동과 배고픔에 시달렸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에 고생한 날들을 생각하면 어제 당한 일처럼 고통스럽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런 곳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하는 것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여기의 해당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의 노역에 대해 단 한마디 사죄도 없고 일체의 보상도 거절하고 있다. 이들은 반성은 커녕 피해자들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 곳에 현재도 일본인 희생자는 큰 비석으로 기리고 있고, 한국인들의 무덤은 당시 일본인들의 애완용 개와 고양이들의 무덤가에 초라하게 석여 있다. 이처럼 반성의 의사가 없는 일본의 협의 타진에 정부가 응했다는 것이 문제다.

일본은 식민지배 동안 벌인 잔혹한 행위들은 대부분이 반인륜적 행위로 이는 수많은 세월이 가더라도 잊혀져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인들은 체인에 끌려 발가락뼈가 부셔져서 소리가 나는데도 병원에 갔는데도 휴가를 안 해주고 가서 일하라고 했다. 개나 돼지처럼 일하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은 것이다. 물론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국가로서의 신용을 저버린 것이다.

社說

자리 싸움에 멍드는 佛心

새로운 방장 스님의 추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됐던 해인총림 해인사가 다시 시끄럽다. 내용을 종합하면 방장 스님이 특정 스님을 주지 후보로 추천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해인사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연, 원학 스님이 반발하고 나섰다. 방장 예경실에 비위가 있는 특정 스님은 주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는 주지 선거로 인해 생긴 잡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현 주지 성월 스님의 사실혼 문제까지 거론되며 신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성월 스님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돈선거 의혹은 검찰에 불기소처분에 의해 마무리될 듯 하다.

사실 불교계에서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적통을 이어받은 종단이고, 이 안에 있는 24개의 교구본사는 각 지역 불교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 소속 사찰 인사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문제는 교구본사 주지 교체가 있을 때마다 잡음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방장 스님이 주지 추천권이 있는 총림마저도 주지 선거 갈등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근자의 해인사가 그렇고, 2014년 봉축 직전까지 내홍을 겪은 동화사를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항상 갈등을 빚는 양측에는 본인들만의 명분이 있다. 여기에 정치 역학적 프레임이 함께 맞물리며 최근 대부분의 선거마다 갈등이 빚어진다. 민주적으로 더 나은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이 아닌 단순한 이전투구식 '자리 싸움' 이 된다.

과거 스님들은 주지 자리나 높은 소임을 "닭벼슬만도 못한 중벼슬"이라고 했다. 주지를 맡기면 바랑을 걸머지고 암자로 도망쳐버리는 게 미덕이었다. 이 같은 옛 미덕은 현대 한국불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이런 자리 싸움에 상처를 받는 것은 불자들의 '불심(佛心)' 이다. 조계종이 새로운 청규 제정을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청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율장대로 살아가는 것을 먼저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수교는 50년, 문화재반환은 0년

지난 6월 22일로 한 · 일 수교, 특히 '한 · 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이 5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 · 일 수교 당시 일본이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한 1905년부터 1945년까지 불법적 수단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 중 명목이 뚜렷하고 소재가 확실한 것을 선정,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모두 정당한 수단에 의한 입수물, 개인 소유물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기증' 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반환' 과 '기증' 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인도' 라는 용어 아래 1432점이 돌아왔다. 정부가 요구한 4479점의 32%다.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조사에 의하면 6월 현재 해외로 유출돼 공식확인된 한국 문화재는 20개국 15만6000여점에 이른다. 그중에 일본에 가장 많은 6만6000점이 있다

그중 일본으로 유출된 한국 문화재의 상징이자 시민단체 등이 반환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오구라 컬렉션' 이다. 이 곳의 불교 유물은 불교 조각, 회화, 공예품으로 분류되는데 공예품의 경우 일본 중요미술품으로 8건이 지정되는 등 가치가 높다. 불상 등 조각은 49점에 이른다. 과연 오구라 컬렉션은 돌아올 수 있을까. 환수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오구라 컬렉션 반환을 추진 중인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 의 혜문 스님은 지난 4월 국제박물관협의회에 오구라 컬렉션 반환 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문화재는 민족의 자존심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문화재 환수에 적극 힘을 기울이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동국발전을 위한 일심동행(一心同行)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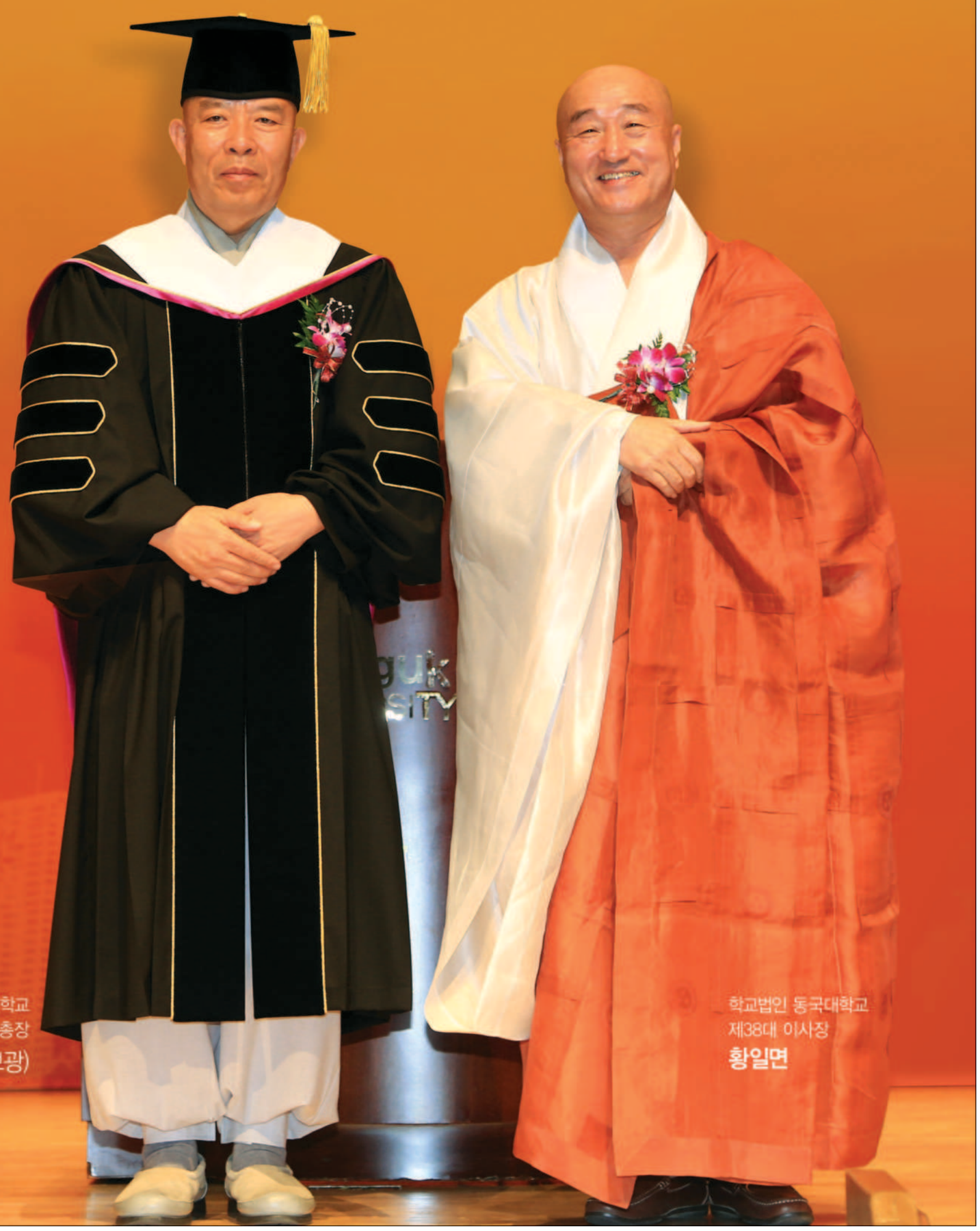
새로운 천년을 선도하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제38대 이사장,
동국대학교 제18대 총장 취임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배움의 대학,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발전기금
진제 대선사(대한불교조계종 총장예하), 성타스님(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 불국사 회주)
수불스님(범어사 주지 / 안국선원 선원장), 학명스님(성불사 주지), 정목스님(정각사 주지)
증휘스님(일산병원 법당 법사), 구인회,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창회
문기곤(동국대 동문), 백명숙(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회장), 신한은행
안채린(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하복동(前감사원장 대행), 한미불교문화인회

▲공양미
가야산회원일동, 각성스님(경주캠퍼스 정각원장), 강창일(국회 정각회장 / 국회의원)
경주캠퍼스 교무위원 일동, 경주캠퍼스 새동모, 고흥택, 광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광동고등학교 총동문회
광동중학교 운영위원회, 광동중학교 학부모회, 구윤희(광동고등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구재대(경우회 중앙회장)
구태회, 권오창(동아대학교 총장), 권우성, 권준혁(광동중학교 교법사), 김갑순(동국대 교수)
김경호(동국대학교 경주한방병원장), 김경화(불심정사), 김경훈(불교 신도)
김교남, 김근우(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장), 김남형(와우글로컴주식회사), 김무량심(불암사 신도)
김문기(삼지학원 상지대학교 총장), 김미숙(광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김복환, 김봉석(법무법인 신아)
김상규(불교대학 CEO 37), 김상헌봉(불암사 신도), 김상화(前축구코치), 김석기(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석만(사회과학대학원 총동창회장), 김석준(안양대학교 총장), 김석희(광동중학교 교감)
김선녀(광동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회장), 김세곤(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장), 김세희(동국대 동문)
김순애(불암사 합창단장), 김연주(단우들어린이집), 김영지(도명암 신도회장), 김원섭(석전건설㈜ 회장)
김인곤㈜주원항공여행사 회장), 김인철(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정권(국민은행 충무로역 지점장)
김중철(광동중학교 교감), 김지희(광동고등학교), 김진문(신성약품㈜ 회장), 김진선(사)율곡연구원 이사장)
김현숙(대학원 107), 김홍규(㈜아신 회장), 김효율(인천대학교 교수), 남정스님(수진사), 남준(前법인사무처장)
대각상(하늘빛어린이집),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덕현스님, 도서스님(도선사 주지), 도일스님(석굴암 주지)
도후스님(낙산사 주지), 돈관스님(은해사 주지), 동국대학교 동우회 회원일동
동산스님(수종사 주지), 동휘스님(헤피만다라 문화원), 만혁스님(기원정사 주지), 명안스님(대한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우스님(전국비구니회장), 묘각스님(도명암 주지), 무원스님(삼광사 주지), 무진스님(마야사)
미산스님(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민동기((의)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장), 박광온(국회의원)
박도근(테크본시스템즈 회장), 박병수(광동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박상구(학교법인 광동학원 사무국장)
박선경(용인대학교 총장), 박순래(불일회), 박순래(불교여성개발원장), 박완순(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
박용근(이화불교사), 박인숙(불교 신도), 박중명(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박중현(동대문테크노상가회장)
박한흥(불암사 거사회), 백명숙(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회장), 백수활(현대기전㈜)
백승달(생명나눔실천본부 경남지역본부장), 백운계곡상인협동조합, 법공스님, 법안스님(우면산 대성사)
법안정사 대각회, 법안정사 신도회, 법운스님(원각사 주지), 법인산하 고등학교 교감 일동
법인산하 고등학교 교장 일동, 법일스님(송신노인종합복지관장), 법진스님(태고종 중앙종회의원), 법현스님(선문사 주지)
보덕스님(보덕사 주지), 보명스님(미타사), 보운스님(육군본부 계룡대 호국사), 보현사 주지 및 신도 일동, 불심문도회
불암사 관음회, 사요스님(죽림사 주지), 삼구아이엔씨, 생명나눔실천본부 직원 일동, 서동선(광동중학교 교법사)
서상일(포항시 북구 기계면 면장), 서재훈(불암사 신도), 서정호(엠버서더호텔그룹 회장), 석굴암
선상산(前불교방송 보도국장), 선용스님(아림사 주지), 선우스님(보광사 주지), 선일스님(부루나포교원장)
성문스님(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성원스님(약천사 주지), 성타스님(회룡사 주지), 성행스님(참계사)
성화스님(종회의원), 세계불교청소년교화후원회, 손삼길(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손우환(넥스파시스템), 송암스님(송암사 주지), 수암스님(화계사 주지), 신명자(롯데재단 이사장)
심경스님(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심진스님(봉선사), 양동훈(동국대 교수), 양삼례(불암사 명예회장)
양승순(의정부광동고등학교 교감), 양승윤(불암사 신도), 엄상호(건영육영재단 이사장), 염재호(고려대학교 총장)
영배스님(통도사 주지/불교신문사 사장), 오미정(한미불교문화인회), 오인구(동국대학교 일산병원장), 오복진
오숙희(정토사 신도), 오순표(기계초교 총동창회 동문), 오혜경(동국대학교 동우회), 왕산스님(호계위원 / 왕산사 주지)
운달스님(동학사 미타암 회주), 원각스님(해인총림 방장), 원명스님(조계사 주지), 원명스님(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원민스님, 원상스님(안국사 주지), 원소스님(중앙승가대학교 도서관장), 원행스님(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월운스님(보문사 주지), 유근식(광동중학교 행정실장), 유동호(광동학원 수석법사)
유선기(가톨릭대학교 교수), 유승광(기계초교 총동창회 고문), 윤덕호(철필회), 윤종희(광동학원 이사)
윤창화(민족사 대표), 윤천수(불교대학 CEO 17), 윤초자(불암사 신도), 의은스님(서울 불광선사)
의정스님((재)선원수좌복지회), 이경희(동국사 신도), 이계영(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장), 이금강화(불암사 신도)
이기재(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장), 이기흥(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동석(동국대학교 경주병원장)
이상주(기계초교 총동창회장), 이선애(유)화우 변호사), 이수경(중림종합사회복지관장), 이신수(신당5동 어린이집)
이신양(불암사 신도), 이영무(한양대학교 총장), 이용우(부여군수), 이원기(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 이원희(광동고등학교)
이재순(예비역 준장), 이정기(송산복지관 토교사), 이정우(동국대 동문), 이종숙(불암사 관음회)
이진식(불교대학 CEO17), 이진희(새누리당 부대변인), 이채원(BBS불교방송 사장), 이태호㈜자운개발 대표)
이해옥(보현사 신도), 인태스님(보문사 주지), 일면문도회, 임명배(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임여여심(불암사 신도), 임원갑(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 자광스님(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장)
자승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운스님((재)대자원 이사장), 자현스님(백화암 주지), 장하용(동국대 교수)
적연스님(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장), 전영자(불암사 신도), 전영환, 전혜미(불암사 신도), 정경심(보문학원 이사장)
정경스님(옥천암 주지), 정규상(성균관대학교 총장), 정법륜(흥륜사 주지), 정보라성(불암사 신도), 정수스님(봉선사 주지)
정수화(포항시의회 의원), 정안석(동국대 총동창회 사무총장), 정용수(광동고등학교 행정실장)
정우스님(구룡사 회주 / 군종교구장), 정은주(광동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회장), 정지천(동국대학교 부의료원장)
조경래(불암사 신도), 조광희(동국대 교수), 조길수(석굴암 신도회장), 조바라밀(정토사 부회장), 조영래(송산노인종합복지관)
조철호(불암사 신도), 조희영(동국대 명예교수), 종상스님(불국사 자원봉사단장), 종우스님(불국사 주지)
종인스님(소림사 회주), 주재훈(동국대 교수), 지견스님(보문사), 지경스님(대한불교삼론종 천용사)
지공스님(대한불교일붕선교총), 지문스님(정각사), 지선스님(수락산 영불사), 지원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일스님(보현사), 진광스님, 진여심(미타사 신도), 차이주(남산형제축구회), 철안스님(봉선사), 철우스님(임하사 주지)
초중고법사일동, 최금희(광동고등학교 학부모회 3학년 총무), 최법은성(불암사 신도), 최성금(㈜아신)
최순애(한국불교차인중앙회), 최양식(경주시장), 최종천㈜브릿지경제신문사), 최창식(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춘광스님(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태석기(동국대학교 의료원장), 하임성(야구해설위원), 한안방(불암사 신도)
함결스님(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감사), 해성스님(사회복지법인 연화원), 해운스님(경국사 주지)
향운스님(대한불교원효종 묵연암), 혜봉스님(미래사 주지), 허미선(광동고등학교 학부모회장)
허성우(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허수창(오원물산㈜ 회장), 허일심화(불암사 신도), 허재님(불교차인중앙회 명예회장)
현병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지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장), 혜광스님(관음사)
혜련심(정토사 사무장), 혜륜스님(함통사), 혜림(향천선원 원장), 혜성스님(화암사 주지), 혜성스님(금강사 주지)
혜안스님(남한산성 약사사), 혜원스님(한마음선원 주지), 혜총스님(감로사 주지), 호명스님(태고종 총무부원장)
호산스님(수국사), 호암 인환 대종사(동국대 명예교수), 홍이정(법무법인 지후 변호사), 홍순득(광동고등학교)
홍용표(통일부장관), 홍욱헌(위덕대학교 총장), 화범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 화암스님(동화사 주지)
황영수(前동국대 총무처장), 황영호(불광사 처사), 황윤석(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회정정사(진각종 통리원장)
효강스님((재)불교총지종 종령), 효경스님(법안정사 회주),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 (주)에스원, Ashin Visuta

▲화환
구자명(국립공주대학교 기획처장), 도현스님(불교상담개발원장), 부구욱(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송석구(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수불스님(범어사 주지), 이계영(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장)
이병석(국회의원), 홍이정(법무법인 지후 변호사), 이정만(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자구촌불일회일동
현암스님(문수산 법륜사 주지), 혜천스님(대한불교진언종 총무원장), 홍파스님(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가나다순



동국대학교
제18대 총장
한태식(보광)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38대 이사장
황일면

茶
한국불교
차문화 70년

차 한잔에도 禪의 맛이 있으니…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1970년대 이후 경제 발전은 사회, 문화, 풍습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전통 문화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뜨거웠다. 기실 이 시기에 나타난 전통 차 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 또한 같은 맥락에서 출발된 것이다. 전통 차 문화의 복원과 확산을 주도한 것은 스님들이었다. 불교문화의 핵심인 차 문화를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광복 70주년에 즈음하여 근·현대 차 문화의 현황을 살펴보려는 의도는 차 문화의 전성기에 드러난 차의 긍정성을 드러내는 한편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함을 보충해 보려는 것이다.

1) 근대의 차 문화

근대의 차 문화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일본의 다도를 여과 없이 받아들였던 시기였다. 사찰 또한 일본 다도의 영향을 배제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소수의 사찰 승려들은 한국 차 문화의 우수성을 지켜내려 하였다. 당시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사찰에서는 산에서 채취한 약재를 다려 차를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실제 차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찰은 차나무가 산재했던 백양사, 대흥사, 송광사, 불회사, 보림사 등이다. 결국 근대에 전통 차 문화를 이어온 사찰 중에는 대부분 초의선사의 영향이 미친 곳이었다. 1926년에 쓴 최남선의 〈〈심춘순례(尋春巡禮)〉〉에 "백양사에서 나는 차가 좋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백양사에서 차가 생산되었음을 드러낸다. 이외에도 송광사의 금명보정은 범해각안의 제자로 차를 만든 다승이다. 그는 다사(茶事)를 노래한 시문을 남겼다. 대흥사에는 원응계정이 초의선사의 다풍을 이어 초의차의 제다법이 이어지고 있었고 이를 응송 박영희가 이었다.

한편 일제가 민족성말살정책(1931~1945)을 주도하면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서는 일본 다도를 가르쳤는데 이는 조선인을 순화, 일본화하려는 의도에서 실시된 것이다. 더구나 일제강점기에 고관대작이나 일본에 경도된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식 가옥에 다실을 만들어 차를 즐겼는데 이는 우월한 일본 다도를 향유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일본에 경도된 조선인 중에는 일본 다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으리라 짐작된다. 사찰 또한 일본 승려들과 교유했던 조선 승려들 중에는 일식 다도를 숭상하는 이도 있었다. 이는 일부 승려들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지만 당시의 현실은 그러했다.

1918년 임야조사사업 시행 후 조선의 자연자원을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든 일제는 합법적으로 조선을 착취한다. 조선의 역사, 문화, 민속, 종교 등 전반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조선의 실정을 파악하려했다. 1937년경 모르오까 다모쓰(諸岡存1879~1946)와 이에이리 가즈오(家入一雄)가 조선의 차 문화를 조사하여 1940년 〈〈조선의 차와 선〉〉을 출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조사 당시 이들은 조선의 차 문화의 핵심이 사원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간파하여 화엄사, 불회사, 보림사, 백련사 등을 조사하였다. 실로 차는 불교문화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인식했던 셈이다. 그렇다면 차와 불교가 융합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대략을 살펴보면 신라 말에 도당구법승들은 수행과 융합된 차 생활에 익숙했으니 신라로 돌아 올 때에도 차를 가져왔던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이들은 좌선 수행의 장애였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차를 적극 활용했던 당시의 선풍에 익숙했을 것이다. 이들이 가져온 새로운 문화인 차는 왕실에 소개된다. 특히 고려시대는 불교의 융성과 맞물려 최고의 차 문화를 꽃 피운 시기다. 이외에도 중국과 교류했던 왕실에는 귀품의 중국차가 들어와 문벌 사대부들에게 나누어졌지만 차를 만드는 일은 사찰의 수행승이 주도했다. 사찰 부근에 다촌이 형성되었고 귀품의 차는 수행승이 만들었다. 따라서 고려의 멸망 후, 조선 전기까지 차 문화를 이끈 계층은 수행승들과 왕실, 사대부들이었다. 문인들은 사찰을 찾아가거나 수행승들과의 교유를 통해 명품 차를 향유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차 문화는 점차 쇠락해졌다. 다시 차 문화가 중흥된 것은 조선 후기이다. 초의선사는 초의차를 완성 차 문화를 확대했다. 그가 만든 초의차는 당대 유학자들의 차에 대한 기호를 충족시켰다. 하지만 이런 전통은 근대기를 거치는 동안 다시 쇠락할 대로 쇠락해져 명맥만을 유지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시절인연이었다. 하지만 대흥사, 송광사, 백양사 등을 중심으로 차의 명맥을 근근이 지켜낸 것은 사찰의 수행승들이었다. 차가 나는 산지에서 차를 만들던 당시의 상황은 〈〈조선의 차와 선〉〉에 상세히 드러난다.

그들은 차를 만들던 민가를 조사, 현장을 답사한 후 이에 관한 자료를 축적했다. 당시 조선 총독부 산하 임업시험장에서는 차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조사도 함께 시행하였는데, 이는 이에이리 가즈오(家入一雄)처럼 1932년 이전에 "전라남도의 차를 (무등산)묘포에 뿌려서 그 성적을 살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실제 일본인 중에는 무등산, 지리산, 보성, 정읍 등지에서 차 공장을 운영했다. 조선 거주 일본인들에게 자생하는 차잎을 채취하여 파는 농민도 있었다. 특히 강진에서 생산된 청태전을 조사했고, 영암 성전리의 이한영이 만들어 판 백운옥판차의 제조과정을 조사하는 한편 상품화된 금릉월산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화엄사의 주지, 송광사의 주지 등 차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은 '대흥사에서 마시는 차가 제일 좋다' 고 말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 〈〈다신전〉〉 이라는 것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닐까"라고 하였다. 당시 대흥사 주지는 응송 박영희였다. 따라서 대흥사는 초의선사의 영향으로 일제강점기까지도 그의 다법이 전승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차의 종류는 잎차와 떡차 종류인 돈차, 떡차, 벽돌차 등이 생산되었다. 따라서 근대 차 문화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 속에 일본 다도의 영향을 암암리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지만 차 문화의 명맥이 이어졌음을 드러낸다.

2) 현대 차 문화의 태동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중이 차에 관심을 둔 것은 70년대 중반이다. 72년도 정승수 소장은 "한국고유차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대중에게 차를 알렸다. 이 무렵 전통 차 문화 복원을 위한 다인들의 열정은 대단했다. 전통차 문화 복원과 차 문화 운동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던 시절 대중에게 차를 알리는 방편은 다례(茶禮)였다. 이는 차와 예가 융합된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차 문화의 틀을 만들어 낸 것이다. 실제 다례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예절을 교육시킨 점에서 그 역할이 컸다. 그러나 의례의 절차와 형식에 치중된 다례는 결국 대중이 차를 가까이할 수 있는 방법인가 하는 점에서는 그 한계를 드러냈다. 다시 말해 현대 차 문화의 중심인 다례는 현대에 생성된 형식이며 틀이다. 하지만 전통차 문화의 특성적 요소인 검소와 소박성을 드러내기엔 불충분했다. 특히 차를 향유한 계층이 남성 중심에서 여성 중심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시대의 흐름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형적인 면을 부각하려는 경향은 현대 차 문화가 지닌 한계로, 차의 응용폭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차의 본질적인 가치가 도외시되는 미흡성이 노출된 것이다. 더구나 사찰의 수행승에게 있어서 차는 참선에 필요한 물품이었다. 이런 전통 차 문화의 특징적 구성요소를 현대 차 문화 형성과정에서 간과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1970년대 중반, 차를 문화 운동을 전개할 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2014년 11월에 열린 〈〈21세기 전통 차 진흥을 위한 대 토론회〉〉에서 차 문화 운동 초기에 참여했던 박동선 회장과 도범 스님의 증언은 어떤 처지에서 차 문화 운동이 전개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도범스님이 차 문화 운동에 앞장서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다. 박동선회장과 명원 김미희(1920~1981)여사와의 인연 또한 그가 실질적으로 차 문화 운동을 주도하게 된 동기이다. 특히 김 여사와 박 회장 이외에도 독지가의 경제적인 후원을 받았는데 이는 차의 자료를 조사

일제 강점기 日 다도 문화 보급
사찰 수행승들이 차의 명맥 지켜

효당 스님, 차문화 대중화 앞장
응송 스님, 초의 스님 다풍 계승
박동선 · 김미희 차문화 복원 나서

초의 주석처 일지암 복원… 茶 성지 돼
차인연합회 결성… 5월 25일 '차의 날'

사찰 문화 마당에 늘 茶 등장
잡지 발간, 학술적 연구 영역 확대



불교는 해방 이후 전통차 문화를 복원 확산 시켰다. 불교의 수행 정신이 깃든 차문화는 1970년대 부터 새로운 문화의 흐름으로 주목 받았다. 외형적 의식에 대해서는 차의 본질적 가치를 도외시 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박동선 회장



명원 김미희 여사



대흥사 일지암. 1970년대 후반 초의선사가 주석했던 일지암을 복원하기 위해 다인들이 힘을 모았고, 일지암은 다인의 성지가 된다.



명원 김미희 여사의 유지를 이은 명원 문화재단의 차문화 시상식과 시연회. 지금은 김미희 여사의 딸인 김의정 씨가 궁중다례로 발전시켜 맥을 이어가고 있다.

※ 법화경 · 사경 ※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5권 이상)
정 가 40,000원(1권)



묘법연화경(우리말)
할인가 9,600원(20권 이상)
정 가 16,000원(1권)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 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문생산〉
정 가 5,000원(1권)
※ 칸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 영가옷 · 예수재용품 ※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동남영가옷 정가 1,000원 동녀영가옷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茶
한국불교
차문화 70년

수행·포교 넘어 차문화 복원 확산


일제강점기 보통학교의 일본 다도 교육 모습. 어쩔 수 없는 시대 선택이었다. 하지만 사찰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차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이어졌다.

하고 전통 차를 증언할 승려들을 만나는 일 등, 기초를 조사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박동선 회장의 인기와 명성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한다.

이런 차의 열기에 힘입어 정부에서는 1980년에 "전통다도풍속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 연구에 참가한 김운학은 "오늘의 차인의 중심은 대흥사를 중심한 응송 스님과 진주를 중심한 효당 최범술 스님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응송 스님은 초의선사의 다풍을계승, 유지했던 반면 효당 스님은 대중에게 차를 널린 알린 분이다. 그는 〈〈한국차생활사〉〉를 저술하여 초기 차 문화 운동의 확산에 기여했으며, 차 강연을 통해 수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이외에도 독서신문에 한국 차 문화를 알리는 글을 연재하면서 〈〈동다송〉〉을 세상에 알렸다. 그의 다법은 채원화에게 이어졌다. 채원화는 1983년 효당본가반야로차문화원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사천지역에서 "반야로"라는 차를 생산하여 대중에 보급하고 있다. 무등산의 허백련 화백은 해방 후 무등산 차 밭을 일본인에게 인수하여 춘설차를 생산한다. 하지만 '수구(물 식힘 그릇)' 의 등장은 물의 온도를 낮추어 차를 우리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전래된 탕법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 당시 도범 스님의 증언으로는 다관에 뜨거운 물을 잘 붓기 위해 수구처럼 생긴 토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한 수구의 실체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이런 현상은 차의 역사,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고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1979년에 한국 차인연합회(현회장 · 박권흠)를 결성, 전국 규모의 차 단체가 만들어졌다. 당시 차 문화 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로는 서울의 안광석 선생과 한웅빈 선생, 김규현, 윤종규여사 등이 있고, 다선회를 만들어 차를 알린 정원호 사장과 김종규 선생, 해남의 김봉호 선생. 해남병원 원장 김제현, 부산의 장명식회장, 최규옹 선생, 진주의 박종한 선생, 다례를 가르친 정승연 선생 같은 이들이 차를 알리기 위해 힘썼다. 승려들 중에는 일지암 초대 암주였던 용운 스님, 백운 스님, 고경 스님, 성우 스님, 여연 스님, 선혜 스님도 차 문화 운동에 활발히 동참했다.

70년대 후반에 일지암 복원을 위한 "일지암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당시 김미희 여사, 박동선 회장의 후원과 복원을 위해 동참한 사람들에 의해 일지암 복원이 복원된 것이다. 일지암은 다인들의 구심점이 되었다. 1981년에 매년 5월25일을 '차의 날' 로 선포했다. 이는 다인들의 결속과 차 문화 운동의 확산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차를 즐기는 승려들뿐 아니라 대중들의 차의 수요는 지리산의 김복순, 호남제다, 대한제다, 쌍계제다, 태평양 화학의 서성환 회장이 차 공장을 세워 대중화에 부응하였다. 초기 다구를 만든 분은 토우 김종희 선생이다. 이후 신정희 선생, 천한봉 선생 등이 다구를 만들면서 다구를 전문으로 만드는 도공이 출현하였다.

사찰의 선방 승려들 사이에서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찰의 손님 접대에는 언제나 차가 등장했는데 이는 사찰을 중심으로 차가 확산되는 경향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현대 차 문화는 차의 전반적인 연구와 고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다례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이다. 차는 검소와 자기 정화에 쓰였던 음료다. 이 점을 간과한 것이 현대 차 문화이다. 이외에도 차 단체 간의 반목 또한 현대 차 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는 차 문화를 다시 꽃피우려면 꼭 해결해야할 차계의 당면의 과제이다.

3)현대의 차 문화

실로 차를 즐기는 인구의 증가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지방 도시에 소규모의 차 단체가 급속도로 늘어난다. 1991년에 이귀례 회장은 한국차문화협회를 설립하여 2002년엔 규방다례가 인천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에 앞서 명원문화재단을 설립, 2001년에 궁중다례로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의정 이사장 등은 무형문화재가 되어 본격적인 차 문화 보급에 앞장선다. 한편 응송 박영희의 다법을 계승한 박동춘은 1985년 응송에게 "다도전계"를 받는 후 스승이 열반한 다음엔 승주에서 "동춘차"를 만들며, 전승과 연구에 매진하는 한편 2000년에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를 개설하여 후학 양성에 몰두하고 있다. 차학의 연구에 앞장 선 김명배 선생은 강의와 저술에 힘썼다. 불모지와 같던 차의 연구는 이런 분들의 노고에서 그 토대를 든든히 하였다. 차의 전문 잡지가 출간된 것은 80년대 초이다. 이후 〈다원〉, 〈다도〉, 〈차인〉, 〈차의 세계〉, 〈차와 문화〉 등 잡지가 출판되었다. 한국일보의 예용예 선생과 김대성 선생은 차의 역사와 현장을 취재하여 신문에 연재했으니 이는 차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각 사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차회는 승려들이 주축이 되어 대중 포교에 활용되었다. 차를 파는 가게 또한 인사동, 부산, 대구, 중소 도시로 확산되었는데 이는 보이차의 유행에 따라 중국차를 파는 것이 대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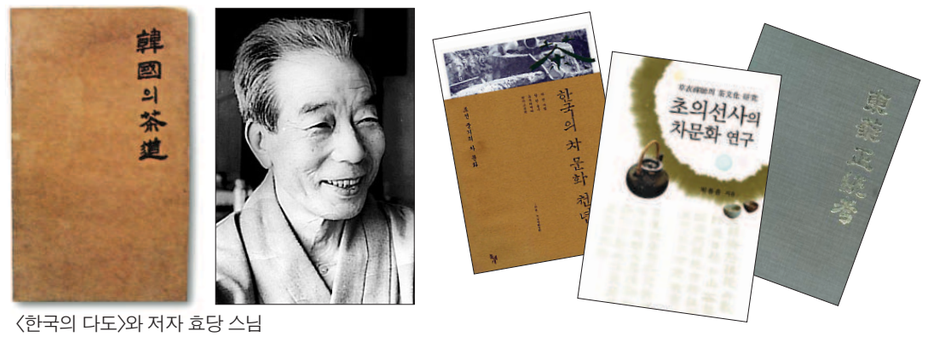
90년대에는 실로 차의 전성기였다. 차 단체에서는 다례를 무대화하였다. 전통음악과 차가 결합되어 "다악"이란 공연이 열렸다. 이는 차가 다른 전통 문화와 결합된 형태로 차의 응용 폭이 넓어졌음을 의미하지만 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뿐 깊은 감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차 단체의 폐쇄성과 갈등은 새로운 차 인구의 유입을 막는 요인이었다. 이 뿐 아니라 차농과 도공들은 좋은 차품과 다구를 만들 수 있는 이론적 토대도 미흡하였다. 다구를 만드는 도공들의 차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실용성보다는 아름다움에 치중하는 디자인이 주류를 이뤘다. 현대 차 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 따른 실용화를 주도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차 문화가 침체된 이유이다. 하지만 차의 이로움을 전하려는 승려들의 노력은 지속되었다. 사찰의 문화마당엔 언제나 차가 등장했다. 이는 불교문화가 대중과 함께 공유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현대 차 문화가 일군 긍정적인 측면이라 하겠다.

대학에 차학이 개설되어 차의 전문 인력을 배출한 것도 현대 차 문화 전개의 특징이다. 1999년 성신여대에서 예절다도학이 개설될 것을 필두로, 부산여자대학, 서원대학교와 목포대, 한서대, 성균관대, 원광대,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등에서 차 관련 학과가 개설, 차 관련 석. 박사가 배출되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미 개설된 대학교에서 차학과가 폐과되는 등, 차의 침체는 대학교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찰에서는 차와 명상을 템플스테이에 주요한 프로로 만들어 활용 중이다. 2000년대 이후 차에 대한 전문 서적도 다량 출판되어 명실 공히 차학의 학문적 토대가 풍부해졌다. 그러나 차의 전문 인력이 배출되었음에도 이들의 진로 문제가 불투명하다. 현재 차 문화는 아직도 발전을 모색 중이다. 커피와 홍차의 유행도 거쳐야 할 흐름이다. 사찰의 커피 유행도 시절 인연이다. 그렇다고 차 문화가 지닌 가치가 상실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시기에 대중의 관심이 잠시 커피와 홍차로 집중되었을 뿐이다. 문화의 흐름은 늘 그랬던 것이다.

하지만 현대생활에 알맞은 차의 실용을 위한 차계의 노력은 현재진행이다. 더구나 차와 수행이 결합된 사원의 수행 풍토는 전통 차 문화의 토대이다. 수행을 윤활하게 한 차는 불교문화의 정수로 그 유용성이 크다. 따라서 사찰의 특성이 담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명상과 융합된 차의 활용을 불교의 우수한 차 문화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차 문화의 융성을 위한 차계의 분발도 요구된다.

차 문화 토대를 구축하게 한 도서들



〈한국의 다도〉와 저자 효당 스님

차의 역사부터 문화 · 철학 '한눈에'

효당 스님 '차 생활사' 필두로
학술 · 문화 통합된 전문서 발간

응송 스님, 대흥사 제다 탕법 소개
'차문화 천년' 시리즈 발간돼

차와 관련된 다서가 처음으로 출판된 것은 1966년도이다. 이후 차 생활 뿐 아니라 차의 역사, 초의선사의 〈동다송〉 등이 소개되면서 한국 차 문화의 역사적인 고찰을 다룬 책들이 출판되었고, 중국의 차 문화, 일본의 다도를 소개하는 책들이 활발하게 출판된다. 특히 1990년 말, 대학에 차관련 학과 개설된 이후 차에 대한 역사, 철학, 문화, 차의 실용성을 다룬 논문이 대거 발표되면서 차학(茶學)의 학문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이로 인해 차의 문헌적 자료를 집성한 도서의 출판과 중국 다서를 소개하는 번역물이 많아진 것도 2000년 이후의 변화이다. 특히 차를 즐긴 문인, 수행자의 다시(茶詩)를 번역한 다서도 출판되어 차 문화의 역사, 문화적인 학문적 토대가 풍요로워졌다. 시기 별로 출판된 다서를 개략적으로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66년 효당 최범술 스님은 〈한국차생활사〉를 저술한다. 이는 차 문화 운동 초기 가장 먼저 차 생활을 위한 지침서로 차생활의 사적 고찰을 담았고, 다도와 다례를 별도 목차로 두었다. 1975년 〈한국의 다도〉를 저술하여 초의의 〈동다송〉을 소개한다. 그는 독서신문에 〈동다송〉을 연재하여 초의선사가 이룩한 차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1978년 명원 김미희는 생활다례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었다. 1982년 김명배는 〈다도학〉을 저술하여 차나무의 원산지 뿐 아니라 한국 차 문화의 역사를 조명하였다. 〈조선의 차와 선〉을 번역하였다. 이외에도 〈중국의 다도〉와 〈일본다도〉뿐 아니라 〈한국의 다시감상〉등을 저술하여 차학의 학문적 토대를 풍부하게 했다. 1982년 석성우 스님은 〈다도〉를 출판하여 불교와 차 문화 관계를 조명하였다.

1985년 일지암 초대 암주인 용운 스님은 〈초의선사전집〉을 편찬, 초의가 저술한 자료를 수록하여 초의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해 주었다. 1987년 〈한국다예〉를 저술하고 〈한국차문화자료집〉을 집성했다.

1985년 응송 박영희 스님은 〈동다정통고〉를 저술하여 대흥사의 다풍을 소개하는 한편 다각시절 대흥사의 탕법을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초의와 교유했던 사대부들과의 관계를 밝혔다. 1986년 효동원에서는 〈다향선미〉1.2권을 간행, 차의 역사, 시문 등을 모아 편찬하였다.

1990년 정영선은 〈한국차문화〉와 〈다도철학〉를 저술, 차 문화사와 다도철학을 정리했다.

1994년 박희준은 〈차한잔〉을 펴냈는데, 차세시기이라는 조목에선 달마다 즐기는 차의 운치를 문학적으로 표현하였다. 김대성은 〈차문화유적답사기〉상 · 중 · 하권을 출판하였는데 이는 그가 한국일보 기자시절, 답사와 취재했던 자료를 모은 것이다. 그는 〈동다송〉도 번역, 출판하였다.

2000년 무산 스님은 〈한국역대 고승의 다시〉를 썼다. 장유화는 육우의 〈다경〉을 번역하여 중국 차 문화의 대강을 소개하였다.

2001년 김상현은 〈한국의 다시〉를 저술, 사대부들과 승려들의 다시를 소개했으며, 2002년 이귀례는 〈한국의 차문화〉를 저술 한국 차의 역사와 정신 이외에도 규방다례를 규명했다.

2009년 송재소, 유홍준 등은 〈한국차문화 천년〉 1권을 출판하였는데 이는 (주)아모레퍼시픽의 후원으로 연구한 자료를 출판한 것이다. 이후 〈한국차문화 천년〉2~7권을 간행, 풍부한 차사의 자료를 제공했다.

2010년 박동춘은 박사학위논문을 정리한 〈초의선사의 차문화연구〉를 출간, 초의선사의 교유관계 뿐 아니라 초의선사의 소장목록 등을 밝혔다. 이외에도 초의 선사의 자취를 따라 〈맑은 차 적멸을 깨우네〉, 추사 김정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모음집 〈추사와 초의〉를 출판, 초의와 사대부들의 교유에 차가 매개물이었음을 밝혔다. 초의선사 관련 자료를 발굴, 연구했다. 이외에도 소개하지 못한 다서는 많다. 차의 실용화를 다룬 책이나 홍차 활용법을 소개한 도서들이 출판되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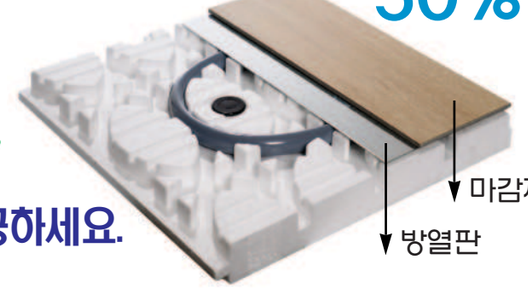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서로에게 버팀목 23년…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 듀크대 부교수 일미 스님



하림 스님(사진 오른쪽)과 일미 스님은 동국대 선후배로 만나 23년 우정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일미 스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림 스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또한 하림 스님이 지병으로 고생할 때 일미 스님은 미국으로 건너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면서 포교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진정한 도반이다.

1992년 동국대에서 첫 만남 가져
석림회 회장 부회장으로 맹활약
어려웠던 서로의 어린 시절 나누며 공감
하버드대 진학이 목표였던 일미 스님
하림 스님 적극적으로 모금 운동
대행 스님 등 사부대중의 도움 이어져
일미 스님 듀크대서 한국불교 포교
한국불교 관련 학자 배출이 '願'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에서는 지난 6월 '희망과 사랑' 을 주제로 한 힐링 콘서트를 3주 동안 열었다. 콘서트의 주인공으로 초청된 일미 스님은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세계 명문대 중 하나인 듀크대에서 종교학 부교수로 재임하고 있으며 한국불교를 알리는 것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타선원에서 일미 스님을 초대 손님으로 하는 힐링 콘서트가 열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이 특별법석은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과 일미 스님의 특별한 우정이 숨어있다. 일미 스님은 "하림 스님과의 인연은 저와 한국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입니다. 한국에 매년마다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림 스님을 뵙기 위해서죠. 하림 스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매년마다 한국에 들어와서 미타선원 법회에 참석하고 강의를 하는 이유는 포교도 목적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하림 스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며 하림 스님에 대한 진한 우정을 표했다.

그렇다. 두 스님은 그렇게 각별했다. 일찍이 부처님은 수행에 있어 '도반이 전부' 라고 강조했다. 수행과 포교에 있어 하림 스님과 일미 스님이 걸어 온 길은 '도반이 전부' 라는 부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동국대 석림회를 이끄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1992년 1학년 1학기에 군 제대를 앞두고 복학을 준비하던 일미 스님은 동국대 백상원(동국대 비구 스님 기숙사)을 찾아가 선배들에게 인사를 했다.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받아주기를 바란다며 쑥스럽게 인사를 하는 일미 스님을 보며 하림 스님은 "첫인상이 참 앳되다라고 생각했다(웃음)"며 소감을 말했다. 그렇게 스님은 제대하고 돌아올 일미 스님을 기다렸다고 했다.

복학해 학교로 돌아온 일미 스님과 함께 대중 생활이 시작되었고 백상원에서 함께 수행하며 둘은 서로를 지켜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1년 후 백상원 석림회를 이끌 회장을 선출하는 시기에 하림 스님이 나섰다. 부회장으로 함께 출마한 일미 스님은 하림 스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하림 스님은 조용하고 느린 어투로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모습이셨습니다. 또한 감정의 흔들림 없이 뜻을 관철해 내는 점이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저 스님과 일을 하면 잘 할 수 있겠다 싶었죠."

1993년, 회장에 하림 스님이 당선되면서 두 사람은 백상원 스님들의 모임인 석림회를 이끌 주역이 되었다. 함께 일하며 서로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 정도로 서로가 잘 통했다고 한다. 무엇을 주장하든 무엇을 진행하든 그 중심에 '부처님 뜻' 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두 사람 다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일미 스님은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다. 그런 스님을 지켜보며 하림 스님은 의아해했다고 한다. "그 당시만 해도 스님들이 공부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눈에 많이 띄었죠.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싶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하버드에 갈 거라고 하군요. 그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림 스님은 일미 스님의 꿈을 듣고는 의아해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이라 생각했고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같이 노력하는 일미 스님을 보며 하림 스님의 생각도 바뀌었다고 한다. "새벽에 함께 예불을 드리고 나면 어김없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중공사에 빠지거나 여타의 일을 소홀히 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츰 일미 스님의 꿈에 대한 믿음이 생겼죠."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하림 스님과 일미 스님은 매일 같이 조계사를 찾아갔다. 종단 개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대를 도반들과 함께 하고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용역들이 조계사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김없이 저희 석림회 스님들은 달려갔습니다. 밤을 함께 지새우며 함께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죠. 하지만 처음과는 달리 많은 대중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계사에서 새벽을 맞으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종단 개혁 후, 스님들은 당시 각 대학에 법사단을 파견하고 법사 스님들을 위한 지원금도 마련했고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기숙사 혜광사 개원도 추진했다. "종단 개혁이 끝나고 그 때 당시 총무원장이셨던 탄성 스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것이 있느냐 하셔서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기숙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때 비구니 스님들은 기숙사가 없어 자주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미뤄졌던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처소가 마련된 거죠."

또한 두 스님이 이끌던 석림회 집행부는 법사 스님들을 위한 지원금 마련을 위한 일일 찻집 및 모금운동 등 동국대 스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석림회 집행부 구성에 있어 승납이 적고 어려도 능력이 있는 인재를 발탁해 파격적인 인사도 진행했다. 그야말로 개혁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자랑했다.

어린시절의 기억 나누며 도반으로

두 스님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불법 인연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각자의 사연에 대해 들은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게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일미 스님은 어린 시절 알콜중독자였던 아버지 아래서 자라며 폭력과 폭언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 스님이셨던 삼촌을 통해 은사 스님인 시몽 스님을 만나며 참된 아버지 상을 발견하고 15세의 나이로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또한 하림 스님의 가족들은 가난 때문에 머물 곳이 없어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빈집과 마을회관에서 잠을 청하며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가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아버님의 힘으로 집과 밭을 사고 행복을 꿈꿀 수 있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6개월 간격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었고 절에 보내졌다.

일미 스님은 '하림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서로의 사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두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주는 도반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존재만으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함께 마음을 나누며 응원하던 스님들에게 곧 졸업이 다가왔다. 일미 스님은 그동안 생각했던 미국 유학을 준비했지만 여의치가 않았다. 차선책으로 학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독일을 선택하고 떠날 준비를 했지만 전혀 자금이 없었다. 일미 스님은 하림 스님에게 사정을 이야기 했다. 그러자 하림 스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자신의 모든 사비를 투자하고도 비용이 여의치 않자 하림 스님은 편지를 써서 모금 운동을 시작해 60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했다. 하지만 1997년 한국에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환율의 가치가 떨어졌고 그 돈으로 독일 생활을 시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일미 스님은 계획을 중단하고 선배인 뉴욕 불광선원의 휘광 스님을 인사차 방문했다가 스님의 권유로 절에 머물며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콜롬비아대, 예일대, 하버드대에서 모두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학비가 문제였다. 입학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매달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했다. 이번에도 하림 스님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걱정하지 마라"였다. 먼저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림 스님과 일미 스님은 큰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다. 여러 대덕 스님들의 정성이 모여지기 시작했다. 그중에 한분이 바로 한마음선원 선원장 대행 큰스님이었다. "대행 스님은 어제 마침 브라질서 온 신도가 두고 간 1만 불이 있다며 장학금으로 쓰라며 봉투채로 내어주셨죠.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원 포교당의 성관 스님 등 많은 스님들의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또, 스님들과 재가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하림 스님의 이야기에 많은 도반 스님들은 후원을 자처하며 장학회를 설립했다. 그렇게 설립된 장학회는 일미 스님의 석사 3년 동안 정기적으로 후원했다.

하림 스님은 "주변 스님들에게 석사 3년만 도와주자고 설득을 했죠. 꿈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준 일미 스님을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그대가 있어 오늘의 내가 존재”



일미 스님은 매년 한국을 찾아 하림 스님이 주석하는 미타선원에서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희망과 사랑’ 힐링 콘서트를 마치고 기념 촬영.



2000년 하버드대 신학대학원 학생들과 뉴욕 불광선원 방문. 맨 오른쪽이 일미 스님, 뒷줄 왼쪽 끝이 하림 스님.

할 수 있었고 또 도반들과 재가자들도 모두 응해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일미 스님은 “하림 스님에게 무엇을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정을 비치면 돌아오는 대답이 ‘걱정하지마라’ 였고 늘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 주신 많은 비구니, 비구 스님들께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어요”라고 당시를 회상한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꿈꾸다

하림 스님을 비롯한 다른 도반들도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일미 스님이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열심히 공부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일미 스님은 하림 스님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척추가 굳었고 서서히 온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잠을 못자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일어날 수도 앉을 수도 없는 고통이 온몸을 덮쳤다.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했지만 병명을 찾을 수 없었기에 치료에 진척이 없었다. 1998년 종단 일에 노력을 기울이며 쉬지 못한 탓도 있었다. 결국 쓰러지기까지 한 하림 스님을 일미 스님은 당장 뉴욕 불광선원으로 불렀다.

스님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한 배려였다. 일을 멈추고 건강을 추스를 수 있도록 일미 스님은 도왔다. 특히 뉴욕 불광선원에서 만난 전문의를 통해 강직성척추염이라는 병명을 알게 되었다.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라 완치는 없지만 지금은 통증도 없고 활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뉴욕에서 만난 의사가 한국의 전문의를 소개시켜줘서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운동을 하고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꾸준히 운동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후 점차 고통이 가라앉으며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하림 스님은 한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하지만 한 노보살님의 얘기를 듣고 다시 미국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미국 한인 90%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노보살님 역시 불자임에도 한국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만 한다며 우시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미국 내에 한국불교의 존재감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2년을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이 아니라 한국불교 포교를 위해서였지요.”

하림 스님은 도반 스님들께 조직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뉴욕에 있는 조계종 스님들은 흔쾌히 뜻을 모았다. 그리고 2003년 ‘뉴욕조계종사암연합회’가 탄생했다. “미국 내에 스님들은 사암연합회를 구성하고 사무실도 내고 정식으로 직원도 구하고 포교를 위해 체계적인 기반을 다졌죠. 그렇게 2년을 더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림 스님은 귀국 후에도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한 포교잡지 ‘클리어마인드(Clear Mind)’를 제작하는 등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온 하림 스님은 미타선원 주지를 비롯해 조계종부산연합회 교육원장, 영도문화재단 이사장이자 전법도량 의장을 맡으며 포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림 스님과 일미 스님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두 가지를 언급했다. 하나는 인재 양성이며 또 다른 하나는 미국 내 한국과 미국불자들을 위한 센터를 세우는 것이다. 하림 스님은 “듀크대가 있는 지역이 미국 내에서 박사를 받은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이기에 한국불교를 학문적, 종교적으로 알릴 수 있는 포교의 포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미 스님은 “미국에서 학생들이 불교를 접하는 시기가 20대인데 대부분 대학에 와서 종교과목을 들으면서 불교를 경험하게 되죠. 동서양 문화적 차이는 물론 동양을 이해하는 매개체로 불교를 필수적으로 연구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한국불교를 세계화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대학에서 불교 전공자를 많이 키우고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죠.”라며 계획을 밝혔다.

하림 스님은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내에 일미 스님의 원력으로 미국 학계에서 뛰어난 한국불교학자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때문에 일미 스님 같은 인재가 필요한 거죠.”라며 한국불교 세계화의 밝은 미래를 예측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또 다른 뒷받침이 필요하기도 하다. 일미 스님은 “현재 듀크대는 불교공동체가 활동할 장소가 없어 학교 내에 있는 다문화센터를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대로 된 기반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하림 스님과 일미 스님이 걸어가는 길은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둘은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부처님의 법이 주는 행복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원력이다. 두 스님이 꿈꾸는 그 불국토의 세상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응원한다.

하성미 기자

하림 스님은
1986년 쌍계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96년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에서 선학을 전공하고 이어 실상사 화엄학림에서 수학했다. 이후 부산 미타선원에서 주지로 활동하며 동방대학원대학교에서 명상심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교육원장, 영도문화재단 이사장이자 전법도량 의장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하림이에요〉 〈두번째 프로포즈〉 〈Why 하림〉 등이 있다.

일미 스님은
19세에 출가해 1996년 동국대에서 ‘동아시아 불교와 유식 철학’으로 학사, 2002년 미국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신학대학원)에서 ‘불교와 사회학과 종교이론’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하버드대에서 ‘한일 불교 관계사’를 주제로 박사학위, 2007년 하버드 라이샤워 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 역임, 2008년 미국 아리조나 대학교 조교수, 2009년부터 미국 듀크대 종교학과 조교수, 2015년 5월 미국 듀크대 종교학과 부교수로 임명됐다. 저서로는 〈다르마의 제국-한국 불교와 일본 불교 1877~1912〉 등이 있다.

전법일기

온라인 포교의 큰 위력

2014년 4월, 불교방송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서 PD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나운서는 섭외 ? 아나운서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네, 스님 아나운서 섭외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나운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박.근.혜 아나운서에요.”

“‘원빈’ 스님과 ‘박근혜’ 아나운서?”

불교방송 라디오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두 MC의 이름이 참 화려했다.

‘원빈 스님과 박근혜의 행복한 두 시!

프로그램 제목만 들어도 ‘대박’ 느낌이 팍팍 왔다.

모든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사건의 아픈 시간이 지나가고, 프로그램이 정상화 되기 시작하면서 ‘행복한 두 시’에 대한 호평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다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자 ‘원빈 스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찾아가면 되는지 문의를 받게 되었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난감했다. 왜냐면 아직 법당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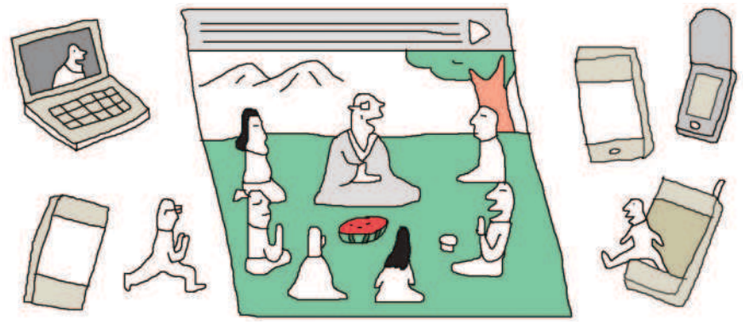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SNS를 통해 전법행을 실천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다양한 전법의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책 출판, 일반 강연, 개인 방송 운영, 온라인 명상 모임 등….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누군가 ‘원빈 스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이 큰 한계였던 것이다. 온라인의 가상공간을 법당으로 삼아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법을 시작했지만 오프라인의 현실 공간에 법당이 없으니, 씨앗을 심기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2014년 1월 가벼운 마음으로 온라인 명상 모임 모집 공지문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는데 하루 만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가상공간에 모이게 되었다. 다음 달에는 그 인원이 약 300여 명 가까이 되었고 가입하는 속도가 가히 엄청났다. 2014년 6월 ‘원빈 스님과 함께 하는 매일 15분 명상모임’을 위한 교재인 〈명상선물〉이 출간될 당시 가입 인원은 약 2,000여 명이 되었고, 그중 활동 인원은 200명이나 되는 온라인 모임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이 가상공간에 모였을까? 현대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외롭고 스트레스가 많다.

온라인 가상공간의 ‘광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세상을 구경하고 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소중한 행복의 보물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그들에게 스님들의 설법은 소중하고 또 소중하다. 하지만 아직 그들의 목마름은 해갈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소중하게 찾아낸 행복의 말씀만으로는 잠깐의 목추김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손을 당겨줄 ‘스승’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스타와 팬이 아닌 ‘스승과 제자’ 관계를 원하는 것이다.

온라인을 활용해 전법하는 스님에게도 고민이 있다. 그들을 오프라인 공간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대면접촉을 통해 그들을 종교에 입문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본격적인 전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오프라인 법당이 없다. 갓 비구계를 받고 시작한 군포교의 인연이 5년 정도 지나 현재의 전법 상황을 만들었다. 이제 출가한지 10년이 되었으니 법당이 없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전법을 열심히 실천해본 결과 ‘팬’을 ‘불자’로 교화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과의 조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온라인 전법과 오프라인 전법은 금시조의 양 날개와 같다. 두 날개가 온전할 때 전법의 금가루를 온 세상에 널리 뿌릴 수 있을 것이다.



원빈 스님(행복문화연구소 소장)

[지리산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60팩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02)879 - 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125,000원 (무료배송)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대행 스님

이 마음의 도리를 빨리 배우려면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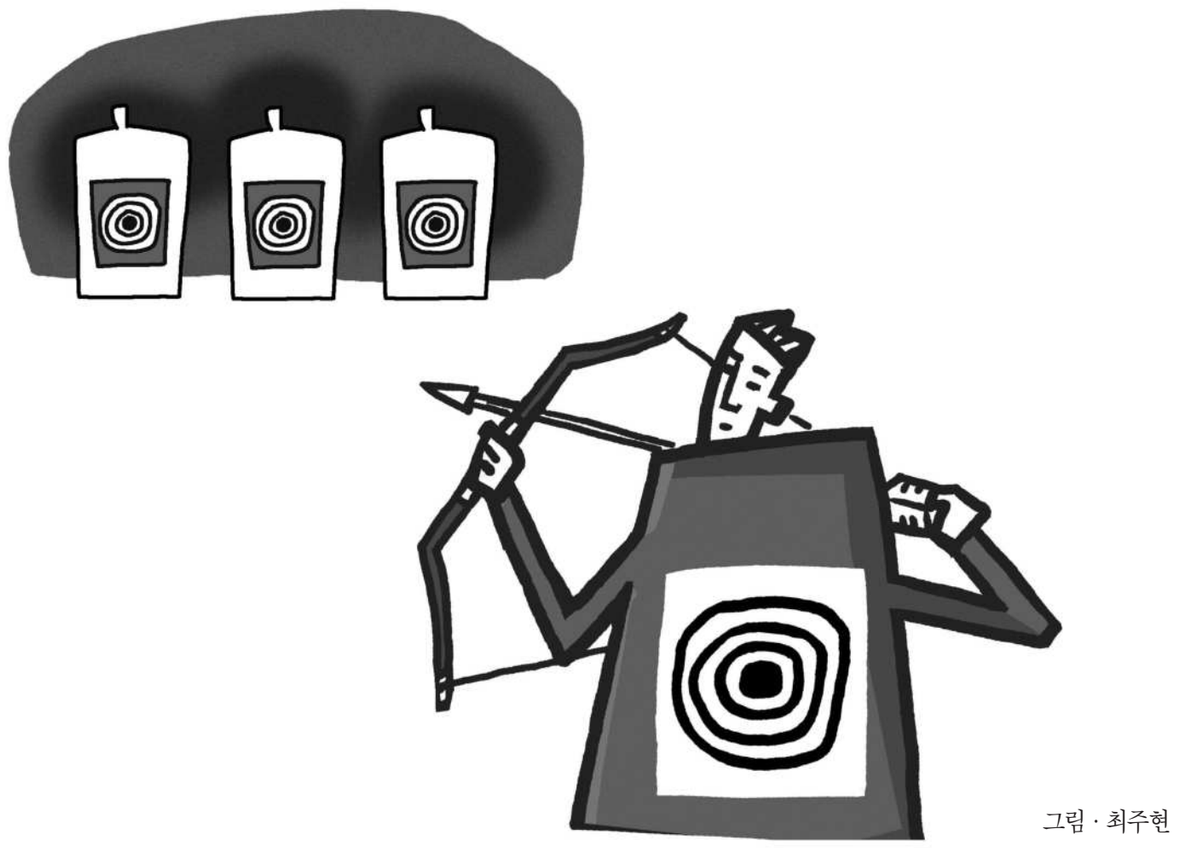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

질문 과연 이 물질문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일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만 돌아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음공부를 빨리 배워서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두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는 마음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정신계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지금 어느 학교에서도 물질계와 정신계를 한데 합쳐서 공부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야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전에는 한번 그렇게 해 보기도 했어요. 그게 스스로 돼야지, 억지로는 안돼요. 습이 다 녹고 업력이 다 소멸되면 스스로 내가 나를 이익 하게 생각하는 법이 없어요. 없어져요. 모두가 나 아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고생해도, 붙들려서 맞아도 나는 그 사람 탓을 안 했으니까요. '아, 나를 부딪히게 해서 단련시키느라고 그러는구나.' 하고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죄 없이 맞은 거는 빨리 낫는다고 하는 말도 있죠. 그렇듯이 금방 괜찮아지고 그래요.

그것을 말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한테 그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본인들이나 아는 거지 제삼자가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은 "남을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은 드뭅니다. 공을 치면 튀어 온다고 그러죠. 분명코 치면 튀어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욕을 막 해 댄단 말입니다. 욕을 해 대면 그 욕한 것이 나한테까지 튀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저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둘이 아닌데, 저 사람에게도 마음의 불이 들어오게 해서 그렇지 않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관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백팔십도로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거지 어떻게 그걸 다 고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치면 누가 좋으냐 하면 자기가 좋거든요, 편리하고. 앙숙으로 지내다가도 편해지거든요. 부모자식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그냥 의리가 나빠서 싸우고 하는 것이 다 마음 싸움이거든요. 그 업보로 인해서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만났던 과거의 인연들이 또 이 세상에 나와서 다시 만나서 앙숙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도님들더러 내가 그러죠. "남편을 원망하지 마라. 너도 전에 그랬잖아. 지금 네가 그렇게 당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당할 때는 알지만, 과거로부터 당해서 지금 현실에 온 것은 너는 몰라. 너도 남을 그렇게 아프게 했어. 그러니까 네 탓으로 돌려. 그러면 그것이 다 소멸돼." 그렇게 합니다. 사실이고요, 또 그게. 뭐 그걸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의 도리를 빨리 배우려면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이유를 붙이면 빨리 일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일심으로 정진해야 하거든요. 소멸시키는 실천이거든요.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정진이다 뭐다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키는 실천요.

공부가 많이 돼도 감정적으로 나오는데

질문 함께 공부하는 도반 중에, 공부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말과 행동과 모습이 어떤 경계에 부딪쳤을 때 걷잡을 수 없이 감정적으로 나온다면 이것도 가르치기 위함으로 봐야 되는 건지요.

답변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옆눈을 팔지 마라. 옆을 보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나도 한때는 그렇게 지내 봤습니다마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옆에서 잘못하든 잘하든 그거를 개의치 마라.' 이겁니다. 왜냐. 옆에서 잘못하는 거를 보더라도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데, 전자에 몰랐을 때 바로 내 모습이었다.' 하고 안에다 놓아 버리세요. 이것이 그냥 억지소리가 아닙니다. 수없이 바뀌어서 돌아왔으니까요. 여러분이 수없이 바뀌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못났을 때 그 모습, 잘났을 때 그 모습, 못했을 때 그 모습, 형편없는 그 모습이 모두 자기가 거쳐 올라온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에 모든 걸 놓고 '둘이 아닌데, 그렇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한마음 주인공 아니야?' 한다면 그쪽도 바뀌집니다. 바뀌져요, 예. 그거는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이게 바뀌져야지, 말로 육신으로 해서는 외려 더 업을 짓는 거지 그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놓고 가야만이 다 버려서 다 얻는 거죠. 만약에 이거 잘못된 것 보이고 저거 잘못된 것 보이고 이런다면 이러다가 언제 그 길을 갑니까? 언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보기 이전에, 그걸 봤으면 보는 대로 그냥 주워 넣어요. 그냥 보는 대로 주워 넣으라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해 줌으로써 그냥 한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면세계와 물질세계가 둘이 아니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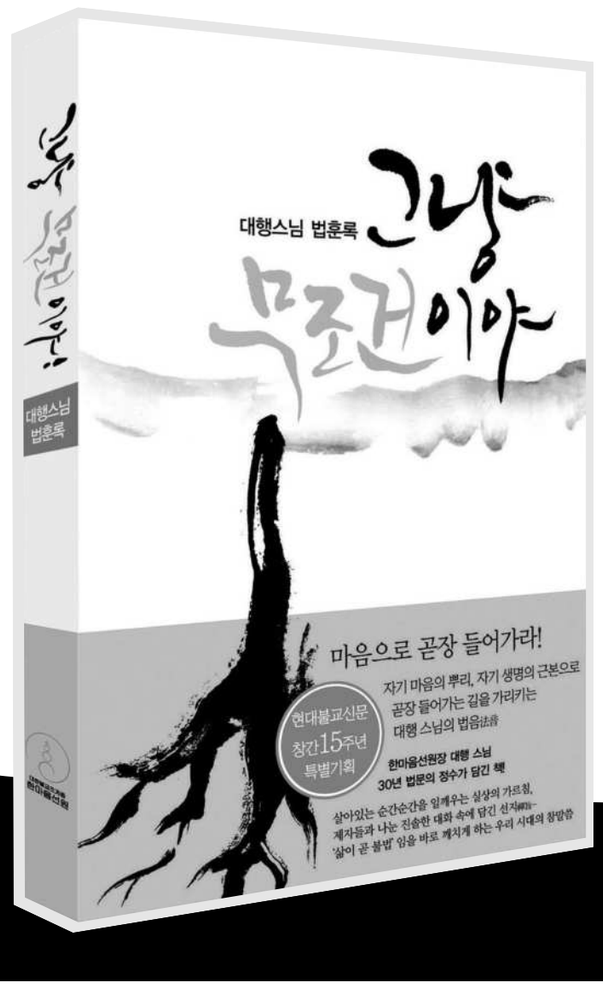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질문 큰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에서 "내면세계와 물질세계를 둘이 아닌 줄 알면 곧 여래를 보리라."라고 하셨는데 내면세계와 물질세계를 둘 아니게 보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는 물질세계와 내면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기에 물질세계고 나를 다스리는 자가 있기에 바로 내면세계다 이겁니다. 내면세계와 물질세계가 둘이 아닌 까닭에 내가 있으니까 내 내면에 선을 세워 놓고, 즉 주인공을 세워 놓으란 말입니다. 마음을 내는 것과 몸이 움죽거리는 것, 그리고 마음을 내게 하는 놈, 이 삼위일체가 같이 합동으로 돼서 찰나에 돌아가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가 자기 껍데기다 아니다 할 것도 없이 주인공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너만이 이끌어 갈 수가 있고, 너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병고가 있어도 네 몸이니까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가는 것도 너뿐이다.' 어떠한 상대가 나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내 마음 가운데에 한 찰나에 들고 나는 내 주처가 있습니다!

☞ 29면에서 계속

를 때리고 찢고 찍고 정신을 뺏어 먹으려고 애를 쓰더라도 '둘 아닌 까닭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거는 너밖에 없다.' 하고 놔 버린다면, 바로 그것이 정향이자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패기를 잃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그렇게 귀하고도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향' 할 때에 그걸 문을 찾아서 다니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광대합니다. 지구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고 우주 밖에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건 문을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고, 벽도 봇장도 우주도 대기권도, 땅속도 물속도 물론 여지없이 통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선을 세워 놓고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할 때 그 말이 한데 떨어지지 않고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투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내면세계와 물질세계 양면을 따로 보지 말고 같이 관찰하면서 체험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름해서 혜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났으면 바로 내 탓으로 일체 만법을 돌려라. 그런다면 증오도 미움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 법에 누(累)가 되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도 없이 계율을 지키게 돼 있고, 바로 자기에게도 누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난 탓으로 돌리니까,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기고 들고 나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잘못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잘되게 나오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다가 놓고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는 그 마음이, 패기 있게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이 들어야 된다.

그 마음이 듦으로써 지혜로운 마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면세계와 물질세계를 둘로 보지 않는 관찰 그리고 체험, 그렇게 해 가는 것이고, 그렇게 둘이 아니게 관찰을 하고 체험을 하고 가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내 자생중생의 무명,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얽히고설킨 그 무명에 묶여 있던 것이 스스로 풀어진다. 스스로 풀어지고 스스로 묶였던 게 풀어지니까 여여하게 다스리고 그냥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에도 그 자리에다 놓고, 두 번째도 그 자리에다 놓고 보임을 해야 하고, 세 번째도 그 자리에다 놓고 보임을 해야 되겠죠? 그건 왜냐. 나를 깨닫기 위해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상이 자손을 도울 수 있는지요

질문 부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로또에서 1등을 한 분들 중 39%가 조상의 꿈을 꾸고서 당첨이 됐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이 살아 있는 자손을 돌보고 그럴 수 있는 것인지요. 저도 조상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지금의 궁핍한 삶을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옛날에는 자손들을 육 형제나 오 형제나 이렇게 많이들 낳아도 낳는 대로 저거했지 어린애를 지우거나 이런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칠 남매를 두었는데 그 칠 남매를 두고 농사를 지어서 가르치고 뭐 하고 하려면 얼마나 피땀이 나왔겠습니까. 부모들이 위로는 다 좀 가르치고 그러다가 밑으로 막내를 가르치질 못했어요. 인제는 쇠약하고 저거 해서 위로 큰형들이 좀 도와서 해야 할 텐데 도와서 하질 않았기 때문에 밑으로는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농사를 조금 지어서 그냥 먹는 판이어서 부자가 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 남의 집의 품을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깐 아주 가난해서 부모는 인제 다 돌아가시고 제가끔들 사는데, 막내는 아주 더 가난하고 어렵고 그래도 그 위로는 괜찮게 살고 그랬는데 괜찮게 사는 형이 아우를 조금도 돕질 않거든요.

그러니깐 가난한 사람이 형네 집에 가면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차라리 안 가는 거죠. 그냥 굶더라도 안 가고 있는데 인제 어머니 제삿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깐 인제 자기가 먹는 냉이를 캐다가 말갛게 씻어서 보리죽을 쑤든 쌀죽을 쑤든 뭐 이렇게 죽을 쒀 가지고는 자기 먹을 거를 퍼서 인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이렇게 놓는데, 그것도 상에다 받쳐서 놓을 데가 없어서 장독자리에다가 이렇게 그냥, 장독자리도 뭐 원만히 돼 있겠습니까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선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면서 이렇게 못난 아들 때문에 한번 어머니 제사 때 가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거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형네 집을 가니까 그 부모님들이 형네 집을 안 가고 자기네 집으로 간다고 어서 가자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네가 해 놓은 것부터 먹고 내가 형네 집을 가야 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모시고 자기네 집으로 오니깐 그냥 그 장독자리에 있던 그 죽 쑤어 놓은 거를 그냥 방으로 들여다가 놓고는 그냥 그렇게 맛있게 잡숫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게 잡숫고선 "야, 난 인제 큰형네 집으로 간다. 잘 살거라." 이러고선 그렇게 가시더래요. 가시더니 그 해에 농사짓는 부잣집에서 마름을 얻었대요. 마름을 얻어서 농사를 지어서 참, 집을 한 칸 우리에게 됐고 인제 제대로 좀 밥을 굶지 않고 살게 됐더랍니다. 그렇게 살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 마음이 지극해서요, 마음이. 부모로 보였든 부모 아니로 보였든 간에 마음이 지극하니까 그 모두가 감동한 거죠. 우리가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도 자기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인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전파로 통해서 이렇게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인들이 모두 제각기 '타의에서 구하지 말라. 타의로 이끌어 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노예를 만드느냐 이 소립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타의에서 구하는 건 다 기복이니까 말입니다. 모두 각자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모든 게 벌어진 거고 우주가 있는 거고 세상이 벌어진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무효지.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세상이 벌어진 거고 업보도 유전성도 인과성도 다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나부터 알아야 하고 나의 주처부터 발견해야 한다 이 소립니다.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한 찰나에 들고 나는 내 주처가 있습니다. 이 몸뚱이는 그 주인에 의해서 항상 심부름을 해야 하고 부지런히 뛰어야 하는 그런 위치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항상, 즉 말하자면 하심하면서 위로는 자기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아래로는 참회하면서 자기 탓으로 돌리고서 거기다가 맡겨 놓는 거, 이렇게 굴리는 거….

또 여러분이 이 주처에, 주인공에 해 달라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해 달라고 '잘되게 해 주소서.' 이렇게 한다면 벌써 둘이 됩니다. 상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자기로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 아주 결론적으로 관하는 겁니다. '당신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나는 당신의 종일뿐이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모든 것이 당신 거고 당신이 하는 거고 당신이 들이고 내고, 병고가 나오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서 해결을 해야지.' 하고 모든 것을 관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관한다' 하는 거는 거기다 맡겨 놓고 지켜보고 실험하라, 체험하라 이 소리거든요. 그것이 참선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엎드러졌을 때 그 땅을 짚고 일어나지 딴 데를 짚고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그 속에서 나온 건 그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관하고 또 참회하면서 관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 보시면 사는 대로, 하다못해 부지깽이 하나라도 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궁리하는 것과 놓는 것에 대해서

질문 과거에 했던 일이 현실에 과보로 등장하게 되면 당면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궁리 저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 마음 안으로 이렇게 저렇게 답을 구하기 위해 궁리하는 것과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놓고 가는 도리, 그 두 가지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가 과거라고 하지만 어저께도 과거고, 한 시간 전도 과거고, 삼천 년 전도 과거입니다. 그런데 삼천 년 전과 어저께와 한 시간 전이 같습니다. 이게 한 찰나입니다. 내가 항상 구정물을 바꿔 쓰라고 그러죠? 그냥 거기다 놓으란다고 그냥 맡겨 놓기만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기계를 잘 고쳐서 끼워야 될 텐데 기계를 고치지도 않고 그냥 갖다 끼우면 이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고쳐서 끼워야죠, 고장이 난 거는요. 그와 같이, 그렇게 다가와서 내 앞에 닥칠 때는 과거든 뭐, 오래 걸렸든 업보든 그런 건 상관하지 말고 '네 속에서 이렇게 모두 진행한 거니까, 네 속에서 모두 나오게 한 거니까 네 속에서 해결을 해야잖아!' 하고 반드시 바꿔서 놓는 겁니다. 바꿔 끼우는 거죠. 바꿔 끼우고 믿어야 되죠. 고놈을 믿어야죠.

안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어떠한 문제든지 용도에 따라서 통신을 하고…. 이 인간에게도 대기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인 마음속에서 모두 분자로, 입자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음파라고 합니다. 빛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무전 통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 이것을 판단을…, 판단이라기보다도 법으로 진행을 해 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백이 있는 놈한테 다 맡겨 놓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서만 맡겨 놓으세요. 우리가 심부름을 시킬 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너 바꿔 가지고 오너라.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 가지고 오너라." 해야지, 이거를 주고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놔져만 있는 거지, 그게 중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정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맑은 물로 대치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돌려 놔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 이렇게 힌트를 주고 가르쳐서 말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 남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보기 이전에,
> 그걸 봤으면 보는 대로 그냥 주워 넣어요.
> 그냥 보는 대로 주워 넣으라고요.
> 그리고 부드럽게 해 줌으로써
> 그냥 한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의 정원
{ 랄랄라 진관사 }



· 구수하고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가 빵빵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세계일보〉
· 진관사의 역사와 전설, 아름다운 경내, 소박한 절밥 전통 등을 총망라한 책이다. 〈미디어붓다〉
· 비구니 스님들의 새벽 예불, 소박한 전통이 남아 있는 사찰 음식, 아름다운 건물과 자연환경 등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냈다. 〈연합뉴스〉
· 최근 출간된 '랄랄라 진관사'(클리어마인드)는 도심 사찰도 아니고 산사도 아닌 진관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조선일보〉
· 많은 이들이 꿈에 그리는 절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책을 내는 일을 복으로 받아들였다. (중략) '절집 이야기 시리즈' 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첫번째가 진관사다. 〈불교포커스〉

절집 이야기 1
마당을 거닐거나 법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절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 클리어마인드〈절집이야기〉시리즈는 이런 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찬익·수경 지음 / 클리어마인드 / 값 15,000원 전화 (02) 2198-5151 / 팩스 (02) 2198-5153 / 이메일 gobs108@hanmail.net